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2세 실행 자료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2 세 실행 자료

목차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2세 실행자료



학습자로서 영아 이해 06

1.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2세 영아 8
2. 2세 영아의 놀이와 배움 14





2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 놀이와 배움 22

1.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의 내용 24
2.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배움 읽기 30
3. 영아를 이해하는 평가 66
4. 영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 80

3

영아중심 보육과정 실행 96

1. 보육과정 실행자로서 영아 교사 98
2. 영아와 교사가 함께하는 일과 운영 104
3.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상호작용 138
4.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공간과 자료 154
5. 영아중심 보육과정 실행 평가 180

2세 실행자료



성격

- 2세 실행자료는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고시문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세 실행자료는 「해설서」와 함께 「0~1세 실행자료」 및 「모든 영아를 위한 지원자료」와 연계하여,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 고시문을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실행하도록 지원한다.
- 이 자료집은 보육내용과 교수학습의 실행이 곧 보육과정 실행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보육내용의 실행은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2세 영아의 배움을 읽고, 영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교수학습 실행은 영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편성·운영, 교수·학습, 평가를 포함한다.
- 2세 실행자료는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배움을 만들어 가는 능동적인 학습자인 2세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곧 보육과정의 실행임을 강조한다.





구성

- 2세 실행자료는 고시문의 내용을 현장에서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고, 고시문의 구성체계를 반영하여 총 3장으로 되어 있다.
- 1장은 능동적 학습자인 2세 영아에 대한 이해이다.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2세 영아를 바라보고 영아 놀이와 배움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서 영아중심 보육과정의 실행이 시작된다.
- 2장은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이다. 이 장에서는 2세 영아가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만드는 배움과 고시문의 42개 보육내용을 연계하여 살펴본다. 2세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경험하는 42개 내용과 영아가 만들어 가는 배움을 읽는 것이 보육내용의 실행이다. 여기에서는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는 평가와 영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도 다룬다.
- 3장은 영아중심 보육과정 실행이다. 이 장에는 보육과정 실행자로서 영아 교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2세 영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일과운영, 상호작용, 공간과 자료)과 보육과정 평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표준보육과정 고시문의 구성

추구하는 인간상
인간상을 향해 배우고 성장하는 영아

보육과정 내용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으로 구성
2세 영아가 경험하며 배우는 42개 보육내용,
영아를 이해하는 평가

편성·운영, 교수·학습 및 평가
일과운영, 실내외 환경, 상호작용, 교사 역할 등
보육과정 평가

보육과정 실행

**보육내용
실행**

**교수학습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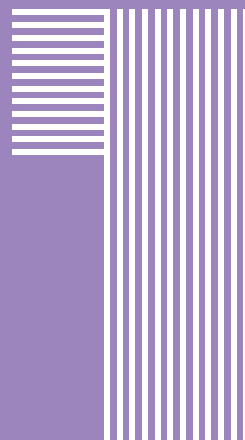
2세 실행자료

1장
학습자로서 영아 이해

2장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 놀이와 배움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배움 읽기
영아를 이해하는 평가

3장
영아중심 보육과정 실행
배움을 지원하는 교수·학습
보육과정 평가





학습자로서 영아 이해

1.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2세 영아	8
2. 2세 영아의 놀이와 배움	14

1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2세 영아



능동적인 학습자인 2세 영아는
몸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세상을 궁금해하고,
또래와 함께하며 배운다.

1. 몸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



- 영아는 몸으로 세상과 만나며 살아간다. 몸은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와 내부의 자극과 정보를 수용하여 해석하고 지각하며 배움을 만든다. 영아의 몸은 세상의 모든 것과 접촉하며 경험하게 하는 배움의 도구이자, 경험을 기억하고 만드는 장치이다. 또한 세상과의 접촉을 기억하고,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배움의 도구이자 배움 자체이기도 하다.
- 영아의 감각 경험은 영아가 몸과 감각으로 타인과 환경을 만나며 관계를 맺는 과정이자, 사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무언가를 주의 깊게 보고, 만지고, 느끼며 감각하는 사고의 과정이자 삶의 과정이다. 사례의 하민이는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끼적이며 뱀을 떠올리고, 자신이 느낀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뱀의 움직임에 주목하여 몸으로 표현한다. 이처럼 영아의 감각 경험과 사고 과정은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이며 상호 연결되어 있다. 능동적인 학습자인 영아의 모습이다.

꿈틀꿈틀! 뱀이 되었어요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2세 영아



하민이와 색연필이 만나는 경험은 크고 하얀 종이 위에 누운 하민이 몸의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된다. 사각사각, 쓱쓱, 툇툇. 하민이는 색연필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힘을 조절하며 끼적인다. 자신의 움직임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고, 선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이후 하민이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움직이며 더 길게 선의 흔적을 만든다. 끼적이던 하민이는 뱀을 떠올리고는 자신이 마치 뱀이 된 것처럼 꿈틀대며 뱀의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한다. 하민이는 종이와 색연필, 몸의 움직임, 소리, 손의 힘 등을 통해 즉흥적으로 또는 등을 이용하여 즉흥적으로 온몸으로 뱀을 표현하며, 뱀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가고 있다.

- 성민이의 사례에서 몸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영아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자. 성민이는 손으로 자동차를 굴리고, 자신이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타기도 하고, 기다란 자동차를 만들어 친구와 함께 타기도 하고, 빠른 자동차를 몸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성민이는 몸으로 자동차를 감각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동차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자동차의 속도를 몸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성민이의 감각과 사고가 얹히며 성민의 자동차에 대한 경험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 영아는 몸으로 세상을 감각하고, 사고하며 배움을 만들고 있다.

자동차 놀이



3월 6일



5월 14일



7월 24일



9월 25일



10월 23일



11월 18일

성민이는 평소 좋아하는 자동차 놀이감을 보며 자동차의 형태와 기능, 움직임에 주목한다. 자신의 팔과 손가락 힘 등으로 자동차 놀이감을 직접 움직이고, 자동차 놀이감 위에 카프라 블록을 여러 개 올려 블록이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며 놀이한다. 이후 성민이는 자신이 직접 탈 수 있는 자동차를 큰 와플 블록으로 만들며 온몸으로 자동차의 형태, 기능, 움직임을 탐색하며 놀이한다. 직접 타는 자동차에 관심을 더 갖게 된 성민이는 친구와 함께 탈 수 있는 더 넓은 자동차를 벽돌 블록으로 만들고, 넓은 자동차를 온몸으로 느끼며 친구와 자동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상상놀이를 한다.

상상놀이를 하던 성민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자동차의 구조와 형태 등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재활용품과 미술 재료로 자동차를 표현한다. 또한 여러 가지 블록의 모양과 끼우는 방법 등을 달리하여 자신만의 긴 자동차를 구성하거나 자신이 자동차가 되어 자동차의 빠른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한다. 3월부터 11월까지 성민이는 좋아하는 자동차를 온몸으로 감각하고 자동차를 다양하게 만들며 탐구 과정을 즐긴다.

2. 나를 적극 표현하는 영아



- 영아는 교사, 부모, 또래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비언어와 언어로 자신을 표현한다. 영아는 표정, 움직임, 눈맞춤 등과 같은 비언어로 자신의 요구와 느낌, 감정 등을 표현하고, 단어와 짧은 문장으로 자신의 경험과 배움을 적극적으로 나타낸다.
- 민지의 사례처럼 2세 영아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끼적임을 즐기고, 끼적임의 의미를 말로 소통한다. 2세 영아의 끼적임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며, 이는 자신을 적극 표현하는 영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친구에게 편지 쓸 거야

민지는 종이에 끼적인 후 교사에게 “친구야 사랑해라고 써여요”라고 말한다. 민지는 친구에 대한 감정을 끼적여서 표현하고, 끼적임의 의미를 말한다. 민지는 친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또래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려고 한다.

- 영아는 “내가 할 거야.”, “내가 입을 거야.”, “내가 이야기할 거야.” 등과 같이 말하며, 무엇이든 주도적으로 해 보려는 의사를 적극 표현한다. 2세 영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스스로 옷을 입어 보려 하고 신발도 혼자 신으려고 하며, 자신의 능력을 알아갈 뿐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적극 표현하며 자신의 고유함을 알아 간다.
- 영아의 주도성은 자신의 능력과 배움을 적극 표현하고 소통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영아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은 영아의 주도성이자,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살아가는 유능함의 다른 모습이다. 영아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은 배움의 기회를 의미하므로, 유능한 학습자가 되어 가는 배움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혼자 옷 입을 거야.” 고은이는 교사에게 혼자서 옷을 입겠다고 말한다. 고은이는 걸옷 소매에 천천히 두 팔을 끼운 후 뒤로 젖혀 자신만의 방식으로 옷을 입는다. 고은이는 스스로 옷을 입고 교사를 바라보며 뿌듯해한다. 고은이는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혼자 옷을 입겠다는 뜻을 교사에게 적극 표현한다.

3. 세상을 알고 싶어 하는 영아



- 영아는 세상 모든 것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한다. 호기심이 왕성한 영아는 넓고 다양한 주변 세상을 경험하며 “왜 그렇지?”, “왜요?”, “어떻게 해요?” 등과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한다.
- 영아의 질문에는 다양한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다. 영아는 새로운 상황과 정보를 마주했을 때 “이건 뭐예요?”, “왜 그래요?”라고 물으며 이를 알고자 질문을 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질문하거나,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을 때 “그다음은 어떻게 돼요?”라고 물으며 더 깊이 탐구하려 한다.
- 질문은 주변 세상을 이해하려는 영아의 적극적인 배움의 과정이자 의지의 표현이다. 영아는 가끔씩 “하늘은 파랗요?”, “왜 우리는 잠을 자요?”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질문이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한다.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탐구하려는 호기심과 사고가 확장되는 과정이다.
- 질문을 통한 영아의 배움은 성인, 또래 등과의 관계에서 더 풍부해진다. 영아는 자신의 질문에 성인, 또래 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며 질문하는 과정 자체를 즐긴다. 영아의 계속되는 질문은 성인이나 또래를 영아와 긴밀히 연결해 주기도 한다. 영아의 질문은 타인의 경험과 연결되어 배움을 확장하는 기회가 된다.

이건 뭐예요?



민하는 숲 놀이터의 그림지도를 한참 바라본다. 그림을 보며 민하는 교사에게 “이건 뭐지?”, “왜 이렇게 그렸어요?” 등과 같이 계속 묻는다. 민하는 지도의 그림을 보며 자신이 있는 놀이터의 공간과 그림을 계속해서 탐색한다. 또한 민하는 교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주변 환경과 지도의 그림, 자신이 있는 공간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서 표현한다.

4. 또래와 함께하는 영아



- 영아는 또래와 무엇이든 함께 하려고 한다. 영아에게 또래는 놀이와 경험을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어 주는 존재이다. 영아는 또래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아 간다. 영아는 관심사와 경험을 또래와 공유하며 놀이와 일상생활을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들며 점차 유능한 학습자가 되어 간다.
- 또래와 풍부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해 나감으로써, 영아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경험을 확장해 간다. 영아는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또래와 함께하며, 또래에 관심이 많아지고, 자신과 또래가 다르다는 것도 알아 가며, 존재의 고유함을 알아 간다.
- 영아는 또래와 함께하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슬픔과 갈등을 경험한다. 영아는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또래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2세 영아의 모습이다.

우리가 만드는 기차



바깥 놀이 시간, 영아는 축구장에서 놀이를 한다. 선 따라 걷기를 하는 하영이의 움직임에 지우와 종현이는 하영이 뒤로 가서 하영이와 같이 선을 따라 걷는다. 하영이 뒤로 길게 이어진 자신과 또래의 모습을 보며 종현이는 “우리 기차 같다!”라고 이야기한다. 영아는 “우리 기차놀이 하자.”라고 외치며 기차놀이를 시작한다. 그러나 영아의 속도와 보폭이 서로 달라서 금세 기차가 무너진다. 영아는 기차놀이를 지속하려고 자신의 움직임뿐 아니라 친구의 움직임에도 주목하며 서로에게 맞추려고 노력한다. 영아는 또래와 놀이하면서 고유한 자신과 다른 타인의 존재를 감각적으로 경험하며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 간다.

2

2세 영아의 놀이와 배움



영아는 놀이에서 일상 경험을 모방하고 상상하며 배우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배우고,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배운다.

1. 모방하고 상상하며 배움



- 상상은 경험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불가능한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상은 영아의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몸과 시간,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자유로운 표현으로 발현된다.
- 영아의 상상놀이는 배움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상상놀이에서 영아의 경험이 나타나고, 경험을 확장한다. 가족과 함께한 여행과 캠핑, 마트에서의 장 보기, 병원에서의 진료와 같은 다양한 일상 경험은 영아의 놀이로 나타난다. 여행에서 본 풍경, 캠핑장에서의 즐거운 순간, 마트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던 기억, 병원에서 느꼈던 두려움 등 영아의 일상 경험은 놀이에서 변형되고 확장된다. 영아는 자신이 먹어 본 적 없는 음식을 요리하거나, 본 적 없는 동물을 상상하며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알아 간다.

나만의 캠핑 요리



지난 주말 가족과 캠핑을 다녀온 해인이는 성민이와 캠핑 놀이를 한다. 해인이와 성민이는 화로에 고기를 굽고, 빵을 올려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든다. 열심히 요리하던 해인이는 자신만의 수프를 만들려고 주변의 음식 모형을 가져와 커다란 냄비에 넣는다. 해인이는 캠핑을 다녀온 경험에 상상을 더해 자신만의 새로운 캠핑 놀이를 즐긴다.

- 영아의 놀이와 일상생활은 상상을 통해 더욱 생동감 있게 변화된다. 영아는 상상놀이를 하며 부모와 교사 그리고 비행기, 사자, 나비와 같은 다양한 존재를 모방하고 다양하게 표현한다. 상상놀이는 영아가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하며 영아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 영아는 모방과 상상놀이에서 현실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세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 영아는 현실을 모방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넘나드는 상상을 하며 모방과 상상을 연결하여 놀이와 배움을 풍부하게 한다. 모방과 상상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유동적으로 연결되어 풍부한 놀이와 배움을 형성한다. 영아는 상상놀이를 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경험을 확장하고 배움이 넓어진다.
- 상상놀이는 영아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탐구하는 영아만의 독특한 배움의 내용이자 방식이며 과정이다.

비행기가 되었어요



교통기관에 관심이 많은 영아는 다양한 교통기관 자료를 살펴본다. 비행기 사진을 유심히 살펴본 은우는 교실에 있던 스카프를 두르고 자신이 마치 비행기가 된 듯 상상하며 몸으로 비행기를 표현한다. 그러자 다른 영아도 스카프를 어깨에 두르고 두 손을 뻗어 “비행기 출발합니다!”라고 외치며 온몸으로 비행기를 표현한다. 이를 본 석진이는 “난 비행기보다 더 빠른 로켓이 될 거야!”라고 외치며 더 빠르게 달리며 로켓을 상상하고 표현한다. 영아의 비행기와 로켓 상상놀이는 교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경험으로 영아를 이끌며, 영아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로켓이 되어 본다.

2. 시도하고 도전하며 배움



- 도전은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영아가 배움을 만드는 과정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영아의 도전은 다양한 시행착오로 나타나며 영아는 시행착오에서 배움을 만들어 간다.
- 영아의 도전은 놀이에서 잘 나타나며, 탐구 과정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영아는 물놀이를 하며 물을 다른 물통으로 옮기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고안하며 의도를 실현하려고 한다. 두 손으로 물을 담아 옮기다 작은 컵으로 물을 떠서 물통에 부어 보고, 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물이 담긴 컵을 들고 조심스럽게 걷는다. 자신이 의도한 바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며, 물을 옮기는 방법을 탐구한다. 영아는 물을 물통으로 옮기는 놀이를 하며 물의 특성, 물을 옮길 때 자신의 몸과 힘을 조절하는 법, 물을 담는 도구 등을 알아 간다.
- 놀이에서 영아의 도전은 어떠한 행동을 시작하거나 탐색하는 시도를 넘어 노력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아래 사례처럼 영아는 놀이하며 자신이 정한 목표를 성공시키고자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는 다양한 전략으로 자신의 능력을 확장한다. 영아는 도전함으로써 자신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자신감을 가지며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어 간다.

도전! 블록 높게 쌓기



“우리 블록 쌓기 하자.” 경준, 지석, 연우는 블록을 쌓고 있다. 영아의 키보다 더 높게 쌓은 블록 위에 다른 블록을 더 쌓으려고 경준, 지석, 연우는 각자의 블록을 들고 높게 뛰기 시작한다. 하지만 블록이 연우의 몸과 부딪히며 무너진다. 아쉬운 지석은 무너진 블록 위에 눕는다. 지석은 “우리 다시 해 보자!”라고 말하고 경준, 지석, 연우는 다시 블록을 쌓는다. 지석은 “블록을 두 개 쌓아서 올려 볼까?”라고 말하며 노란색 블록 두 개를 조심히 쌓는다. 이를 본 연우는 경준이에게 “블록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 봐!”라고 말한다. 옆에서 지켜보던 서현이는 작은 블록을 망치라고 생각하며,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쌓아 둔 블록을 작은 블록으로 두드리기 시작한다. 영아는 블록을 높게 쌓으려고 도전하며 블록의 모양과 높이, 블록의 개수, 몸의 움직임, 친구와 함께 놀이하는 법을 배운다.

- 영아는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더 넓은 세상과 만난다. 영아는 신체 조절과 움직임이 더 능숙해지고 정교해지며, 집과 교실 등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숲, 공원 등과 같은 새로운 공간에서 도전할 기회가 많아진다. 영아는 물리적 위험과 직면하지만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도 배워 간다. 사례에서 지민이는 비탈길을 내려가는 방법 중 미끄러지는 방법을 선택하여 몸의 균형과 속도를 조절하며 안전하게 내려가는 방법을 알아 간다.
- 영아의 도전은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아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도전에서 놀이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 가면서 영아의 도전은 계속 이어진다. 영아는 안전하게 자신을 돌보는 것과 놀이의 즐거움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가지만 영아의 도전에는 성인의 관심과 시선이 필요하다.

아슬아슬! 흙 미끄럼틀 타기



지민이는 매주 체험하는 숲의 높은 비탈길을 보고 흙 미끄럼틀이라며 미끄럼틀을 타듯이 내려온다. 처음에는 두 발로 아슬아슬 비틀거리며 미끄러지듯 반복해서 내려오다가, 이내 점차 균형을 잡으며 엉덩이로 내려온다. 반복되는 도전과 실험으로 지민이는 자신만의 흙 미끄럼틀 놀이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과 속도를 조절하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을 알아 간다.

3.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배움



- 영아는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가족, 교사, 또래뿐 아니라 동물, 식물, 놀잇감, 사물, 공간 등과 마주치고,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배움을 만들어 간다. 영아가 마주치는 세계는 영아와 일대일 대응 관계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아는 마주치는 모든 것이 만들어 내는 관계에서 세계를 이해해 간다.
- 영아는 다양한 존재와의 관계에서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놀이를 즐기며 풍성하게 배워 간다. 사례처럼 매미를 발견한 영아는 주변에서 나뭇잎을 가져와 매미 앞에 놓고, 나뭇잎으로 매미에게 그늘을 만들어 준다. 그러자 매미가 움직이고 영아는 그 움직임에 주목한다. 영아와 매미의 마주침은 나뭇잎, 그늘, 매미의 움직임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존재가 관계를 맺으며, 매미의 움직임에 대한 영아의 배움이 만들어진다.

매미다!



길 위에서 매미를 발견한 주원은 “매미다!”라고 외친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여 길 위에 있는 매미를 주의 깊게 바라본다. 매미가 움직이자 주원은 옆의 나뭇잎을 주워 매미 앞에 놓는다. 이를 본 혜영이는 “매미를 위해 나뭇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자!”라고 말한다. 그러자 주원은 나뭇잎으로 매미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매미는 다시 앞으로 움직였고 주원과 다른 영아는 오랫동안 매미를 관찰하였다.

- 영아는 놀이에서 사람, 공간, 사물 등과 마주치고, 마주침은 놀이와 영아의 배움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사례처럼 지훈이는 커튼으로 만들어진 공간에 숨고 자신이 들고 다니던 천으로 숨을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지훈이를 따라서 현서와 소울이는 커튼 뒤로 숨고, 커튼 뒤 창문을 마주하고 서면서 창문 밖 유아들을 보고 웃는다. 이처럼 영아는 사물, 사람과 마주치며 숨기도 하고, 숨는 공간을 만들며 몸과 공간의 관계를 알아가고, 창문 밖 유아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한다. 영아는 마주치는 모든 것과의 관계에서 배우고 있다.
- 영아는 세상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경험 속에서 스스로 배움을 만들어 간다. 영아는 세상과 풍부하고 다양하게 마주치면서 자신의 배움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다. 영아는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주변 세상과 관계를 맺는 주제이자, 다양한 관계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능동적인 학습자이다.

우리 숨바꼭질해요!



지훈이는 커튼을 발견하고 커튼 뒤로 가서 자신의 몸을 숨기는 공간을 만든다. 지훈이가 들고 다니던 천을 책상 위에 덮어 숨을 공간을 만들자 정우가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 숨는다. 그런데 정우는 천으로 덮이지 않은 사이로 교사와 눈이 마주치자 다른 곳으로 숨는다. 지훈이가 숨었던 커튼 뒤로 현서와 소울이가 창문을 바라보며 몸을 숨긴다. 현서와 소울이는 마침 창문 밖으로 지나가던 옆 반 유아들과 마주치고 소리 내어 웃으며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교사가 왜 웃는지 묻자 커튼을 걷어 창문 밖을 보여 준다.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 놀이와 배움

1.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의 내용	24
2.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배움 읽기	30
3. 영아를 이해하는 평가	66
4. 영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	80

1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의 내용



2세 영아는 5개 영역의 내용을 직접 경험하고
일상생활과 놀이의 모든 순간에서
자신만의 보육내용을 만들어 간다.

1. 영아는 5개 영역을 직접 경험하며 보육내용을 만들어 감



- 영아는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이 경험은 영아의 배움이다. 영아는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간다. 성인이 영아에게 제공하는 놀이와 활동에서조차도 영아는 많은 배움을 만들어 낸다. 영아의 놀이와 일상생활의 힘은 영아가 만들어 내는 풍부한 배움에 있다.
-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5개 영역 42개 내용은 영아가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간략화되어 있다. 5개 영역 범주와 내용의 묶음은 영아의 배움 내용을 범주화하고 체계화한 것이다. 따라서 영아가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또래, 교사, 사물 또는 물질과 마주치며 우연히 만드는 배움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 영아의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만드는 배움의 내용은 영역별 내용으로 분리되거나 내용 순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 영아는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5개 영역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배운다. 통합적으로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영아가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영역의 내용을 함께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지 놀이 경험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우기도 하고, 다양한 놀이 경험에서 한 가지 내용을 넓고 깊게 배우기도 한다. 영아의 놀이 경험에서 이 모든 배움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영아는 보육내용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영아는 보육과정의 내용을 직접 경험하면서 일상생활과 놀이의 맥락에 따라 42개 보육내용을 자신만의 배움으로 만들어 간다. 정우가 물감을 가지고 놀이하는 사례를 보면서, 정우가 만들어 가는 보육내용을 이해해 보자.

정우가 놀이 경험에서 만들어 가는 보육내용

- 정우는 물감의 미끄러움과 마르면서 꾸덕해지는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 발가락에 힘을 주어 자세를 유지하며 물감을 섞고, 붓과 손으로 몸에 색을 덧칠하며 놀이하고 있다. 정우는 '친숙한 물감을 손과 붓으로 발에 칠하고, 손으로 만지며 질감의 차이를 느끼고, 색이 변한다는 것을 알아 가며' 놀이에서 배움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정우는 놀이하며 배우고 있고, 그 배움을 읽어 보면 보육과정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결된다. 정우가 만드는 배움은 표준보육과정 5개 영역 중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다양한 미술재료와 도구로 표현한다',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의 내용에 해당한다. 정우는 놀이에서 보육과정의 내용을 직접 경험하며 보육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간다.
- 정우는 5개 영역의 내용을 영역별로 혹은 순차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놀이 맥락에 따라 42개 보육내용을 다양하게 경험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육내용을 만들어 가고 있다.

2. 영아는 일상생활과 놀이의 모든 순간에 보육내용을 만들어 감



- 영아는 등원하는 순간부터 간식, 놀이, 배변, 점심, 낮잠과 휴식, 하원하기까지의 모든 순간에 배운다. 영아가 생성하는 모든 순간의 배움은 5개 영역 42개 내용과 연결된다.
- 다음 사례에서 영아의 일과를 따라가며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내용을 간략히 알아보자. 영아는 등원하여 교사, 또래와 인사하며 소속감을 가지고 즐겁게 하루를 시작한다. 실내에서는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자유롭게 놀이하고, 바깥 놀이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주변 환경과 자연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기를 즐긴다. 교사, 또래와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점심을 먹고, 낮잠과 휴식을 취하면서 편안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낸다. 이처럼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자연스럽게 보육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일과에서 영아의 배움은 일과의 성격에 따른 배움뿐 아니라 일과 하나하나에서도 배움이 통합적으로 일어난다.



등원

영아는 교사, 또래와 인사하며 소속감을 가지고 즐겁게 일과를 시작한다.



간식

영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 스스로 먹는다.



놀이

영아는 흥미와 관심에 따라 자유롭게 놀이에 참여한다.



점심

영아는 교사, 또래와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음식을 먹는다.



바깥 놀이

영아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배변

영아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에 다녀온 후 옷을 스스로 입어 본다.



낮잠과 휴식

영아는 휴식을 취하며 몸과 마음이 편안한 시간을 보낸다.



하원

영아는 가족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일과를 이야기한다.

모든 순간에 배움을 생성하는 영아



3. 모든 영아와 교사가 함께 우리 반의 보육내용을 만들어 감



- 모든 영아는 자신만의 보육내용을 만들고, 개별 영아가 생성한 보육내용이 모여 우리 반의 고유한 보육내용이 된다. 영아는 개별적이고 고유한 경험으로 자신만의 보육내용을 만들어 간다. 영아는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자유롭게 놀이하고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고유한 배움을 생성한다. 영아는 자신만의 고유한 배움을 생성하므로, 각 반에는 영아의 수만큼 다양한 보육내용이 만들어진다. 개별 영아가 생성하는 다양한 보육내용이 모여서 우리 반의 보육내용이 된다.
- 모든 영아는 주변의 자연, 사물, 공간, 또래 등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경험한다. 우리 반 개별 영아의 경험은 단순히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또 다른 배움이 생성되어 우리 반의 보육내용이 만들어진다. 교사 역시 우리 반의 구성원으로서 교사의 눈빛, 표정, 움직임, 자료 제공, 일과 운영 등이 영아의 경험에 영향을 주면서 영아와 교사는 함께 우리 반의 보육내용을 만들어 간다.
- 영아가 각자 자신만의 보육내용을 만들고, 저마다 만들어가는 보육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반의 보육내용은 다채롭고 풍성해진다. 파랑반의 사례를 보면서, 모든 영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내용을 이해해 보자.

파랑반이 만들어 가는 보육내용



파랑반은 비가 오는 날이면 우비를 입고 밖으로 나간다.

지운이는 “톡톡.”이라고 소리 내며 우비를 입은 머리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를 흥내 낸다. 윤호는 얼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우비의 모자를 얼굴까지 내려 써 본다.

교사가 손을 위로 뻗고 손바닥으로 빗방울을 받으며 “와! 차갑다.”라고 말하자, 정아와 기찬이는 양팔을 앞으로 뻗어서 손바닥에 떨어지는 빗물의 차가움을 느낀다.



유진이는 장화를 벗고 맨발로 물이 고인 바닥을 걸어 본다. 교사는 맨발로 걸어도 안전한지 살핀 후 교사도 실내화를 벗고 맨발로 걸어 본다. 교사와 유진이의 모습을 본 기찬이와 서윤이, 소현이도 장화와 양말을 벗어 맨발로 물이 고인 바닥을 걸으면서, 물이 없을 때와 물이 고여 있을 때 바닥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 간다.

- 지윤이는 우비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윤호는 얼굴에 빗방울이 떨어지자 비를 맞지 않는 방법을 찾아 간다. 교사가 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빗방울을 느끼자, 정아와 기찬이도 양손바닥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의 차가움을 느낀다. 옆에 있던 유진이는 장화와 양말을 벗어 맨발로 빗물에 젖은 바닥의 촉감을 느끼고, 이를 본 교사, 기찬이, 서윤이, 소현이도 젖은 바닥을 맨발로 걸어 본다.
- 파랑반 영아는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교사와 또래의 말과 행동, 빗방울이 떨어지며 나는 소리, 우비와 장화, 비에 젖은 바닥 등과 관계를 맺으며 파랑반의 고유한 보육내용을 만들어 가고 있다.

2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배움 읽기



배움 읽기는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에서의 경험을 배움으로 연결하여
보육과정의 내용을 실행하는 것이다.

1. 배움 읽기의 의미



- 영아는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보육내용을 만들어 가므로 교사는 영아가 만들어 가는 배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자료집에서 ‘배움 읽기’는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배움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다. 영아는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5개 영역 42개 내용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며 배운다. 따라서 배움 읽기는 교사가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나타나는 통합적 경험을 42개 내용과 연결하여 영아의 배움을 읽는 것이다.
- 교사의 배움 읽기는 영아의 경험에 주목하여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내용을 이해하여 국가수준의 보육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을 실행하는 것이다. 교사는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내용을 이해하고 영아의 배움을 지원하도록 교육적으로 판단하며 보육과정 실행력을 강화해 간다.
- 배움 읽기는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와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 귀 기울이기는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경험과 배움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경험에 주목하여 기록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영아는 자신이 마주하는 세상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배움을 생성하고 있으므로, 교사는 기존의 고정된 생각이나 알고 있던 지식을 내려놓고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 경험에서 의미 있는 영아의 모습, 행동, 상황, 맥락에 주의를 기울인다. 즉, 귀 기울이기는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 경험에 주목하는 것이고, 영아의 배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의 시작이다. 기록하기는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배움에 주목하여 흔적을 남기면서 배움을 이해하는 것이다. 놀이 상황이나 맥락, 영아의 말 등을 기록한 메모, 사진, 그림, 구조물 같은 놀이 결과물이나 작품 수집, 비디오 녹화, 오디오 녹음 등과 같이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놀이 경험을 기록할 수 있다.
 -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는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에서의 경험을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결하여 읽는 것이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의 내용은 영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이면서 영아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다. 영아는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42개 내용을 자연스럽게 통합적으로 경험한다. 또한 한 가지 경험에 여러 가지 내용이 통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는 보육과정 42개 내용 중 두드러지는 것을 찾아 영아의 경험과 연결하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단순히 영아의 경험과 그 경험이 어떤 영역의 내용인지 일대일로 대응시키거나 체크하기 보다는, 보육과정의 내용을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맥락과 연결하여 영아의 경험을 배움으로 읽어야 한다.

일상생활의 사례에서 배움 읽기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낮잠 시간에 영아는 교사가 정해 준 자리에서 잠을 잔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은지와 서영이가 우연히 옆자리에 눕게 되었다. 교사는 은지와 서영이가 서로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면서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에서 5개 영역의 내용이 두 영아의 배움으로 생성되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



(영아의 경험)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은지와 서영이가 낮잠 시간에 우연히 옆자리에 눕게 되었다. 서영이는 마주 보며 누운 은지에게 손을 뺄고, 은지도 서영이의 손을 잡는다.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으며 편안하게 잠이 든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신체 활동 즐거기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	듣기와 말하기	표정, 몸짓,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나를 알고 존중 하기	나의 고유함을 알아간다.	아름 다움 찾아 보기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탐구 과정 즐거기	주변 환경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나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한다.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본다.				
	기본 운동을 즐긴다.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건강 하게 생활 하기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해 본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더불어 생활 하기	가족에게 관심을 가진다.	창의적 으로 표현 하기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한다.	생활 속에서 탐구 하기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
	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한다.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		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한다.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사물을 갖고 다룸에 따라 구분한다.
안전 하게 생활 하기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책과 이야기 즐거기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한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해해 본다.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안다.		상상놀이를 한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배움 읽기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은지와 서영이가 우연히 옆자리에 놓게 되었다. 서로 마주 보며 서영이는 손을 뻗어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사회관계-나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한다), 은지도 서영이의 손을 잡아 서영이의 마음을 알고 호응한다(의사소통-표정, 몸짓,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은지와 서영이는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 가고 있다(사회관계-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낮잠 시간을 심신의 휴식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또래와 함께 보내며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으로 만들고 있다(신체운동·건강-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한다).

2. 영아의 일상생활 경험에서 배움 읽기 실제



- 일상생활은 영아가 매일 경험하는 등원, 간식과 식사, 낮잠과 휴식, 배변 등과 같은 것이다. 일상생활은 영아가 매일 반복하는 활동이지만, 그 시간에 영아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그 경험은 영아의 배움이 된다.
- 영아는 다양한 일상생활 경험에서 자신만의 배움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등원 시간에 영아는 오랜만에 등원하는 또래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우리 반이라는 소속감을 느낀다. 간식 시간에는 친구와 함께 놀이하려고 친구가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함께 놀이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 가기도 한다. 화장실을 다녀온 영아는 스스로 옷을 입으면서 자신감을 얻어 자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점심시간에는 먹기 힘들던 음식을 먹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상생활의 경험은 배움으로 이어지고, 5개 영역의 42개 내용으로 배움을 읽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영아는 5개 영역의 42개 내용을 통합적으로 배우고 있다.
- 영아의 일상생활 경험에서 배움을 읽는다는 것은 영아의 반복되는 일상 경험에 주목하여 배움을 이해하는 것이고, 일과에서 생성되는 5개 영역의 통합적 배움에 주목하는 것이다. 또한 배움 읽기는 능동적 학습자인 영아를 배움의 주체로 바라보고 이를 지원하며, 영아가 일상생활에서도 배움을 풍부하게 만들어 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 영아는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배움을 생성하며 보육내용을 만들고 있으므로 교사는 영아의 일상생활에 귀 기울이며 영아의 배움을 읽을 수 있다.
- 배움 읽기는 영아의 일상생활 경험에 귀 기울이기, 일상생활 경험을 5개 영역의 42개 내용으로 읽기,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고 지원하기로 이루어진다. 이 모든 과정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각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 영아의 일상생활 경험에서 배움을 읽는 과정을 네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보고 싶었잖아!”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내가!”



김치를 먹는 방법

"보고 싶었잖아!"



귀 기울이기

로운이와 서희는 아파서 등원하지 않는 윤주를 아침마다 찾는다. “윤주는 언제 와요?”, “왜 오지 않아요?”라며 윤주가 언제 오는지와 등원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 드디어 윤주가 등원하자, 로운이와 서희는 하던 놀이를 중단하고 반가워하며 윤주에게 달려 나가는 모습에서 배움을 읽어 본다.



오랜만에 등원한 윤주는 쉽게 교실에 들어오지 못한다.

로운: 윤주야, 왜 이제 왔어. 보고 싶었잖아!

서희는 말없이 윤주를 안아 준다.

로운이와 서희는 등원하는 윤주에게 달려가 반갑게 맞이한다.



로운: 내가 사진 찍어줄게!

로운이와 서희는 좋아하는 윤주를 사진에 담아서 기쁘게 해 준다.



서희는 평소 윤주가 제일 좋아하던 강아지 인형을 찾아와 건네주며 같이 놀자고 제안한다.
서희는 윤주가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배움 읽기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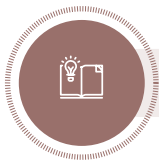
로운이와 서희는 좋아하는 친구 윤주가 언제 등원하는지에 계속 관심을 보인다. 로운이는 오랜만에 등원한 윤주가 교실에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의사소통-표정, 몸짓,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다가가서 “왜 이제 왔어. 보고 싶었잖아!”라며 윤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반가움을 표현한다(의사소통-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로운이는 “사진 찍어 줄게!”라고 말하며 오랜만에 등원한 윤주가 어색하지 않도록 놀이에 초대하여 함께 놀이 하자고 제안한다(사회관계-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서희는 오랜만에 등원한 윤주가 교실에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의사소통-표정, 몸짓,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윤주를 안아 주고 사진을 찍어 주며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고(사회관계-나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한다), 평소 윤주가 좋아하던 놀잇감을 기억해 찾아 주면서 윤주가 하던 놀이를 함께 하자고 제안한다(사회관계-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윤주는 자신을 반겨 주는 로운이와 서희의 제안을 주의 깊게 듣고(의사소통-표정, 몸짓,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로운이와 서희의 제안에 응하며 함께 놀이한다(사회관계-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오랜만에 등원한 윤주가 교실에 편안하게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로운이와 서희의 배려는 윤주가 한 반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 주며, 이 과정에서 세 친구는 우리 반의 구성원이 되어 가는 즐거움을 알아 가고 있다(사회관계-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배움 지원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고 지원하기(공간과 자료, 상호작용)

- 로운, 서희, 윤주의 배움을 읽어 보고 교사로서 영아의 배움을 위한 나의 지원을 돌아 본다. ‘나는 영아의 기다림을 지원하고 있는가? 그냥 출석만 확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영아가 우리 반이라는 소속감을 느끼도록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라고 질문해 본다.
- 우리 반 영아의 사진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붙여 주려고 한다. 등원하지 않은 영아가 있을 때는 그 영아의 사진을 보며 우리 반의 구성원에 관심을 가지도록 영아와 대화를 해 본다.



영아의 반복되는 일상 경험에 주목하여 배움을 이해한다.

- 기다리던 또래가 오랜만에 등원한 날의 등원 시간은 영아가 우리 반이라는 소속감을 느끼는 보육내용을 만들어 가는 순간이 된다.
- 등원은 영아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이지만, 그 시간에 영아의 배움은 다양하다. 매일 등원하지만 등원 시간에 친한 또래를 만나면 기쁘고, 비가 오는 등원 시간은 즐겁기도 한 것처럼 등원 시간의 경험은 같은 듯 다양하다.
- 교사는 배움 읽기를 함으로써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영아의 일상생활 경험에 더 주목할 수 있고, 영아의 배움을 이해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어요



귀 기울이기

간식을 먹으면서 예원이와 하윤이는 블록을 오빠와 동생으로 상상하여 이야기를 만
든다. 먼저 간식을 먹은 예원이가 하윤이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원의 배움에 귀
를 기울여 본다.



하윤이와 예원이는 간식을 함께 먹으면서 파란 블록과
빨간 블록을 오빠와 동생으로 상상하며 이야기를 짓고 있다.

하윤: (파란 블록을 보며) 동생아,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구
나. 우리 놀러 가자.

예원: (빨간 블록을 집어서 움직여 보며) 오빠, 오빠!

예원이는 다 먹은 간식 그릇을 정리하고 하윤이 옆에 선다.

잠시 후 예원이는 교실을 한 바퀴 돌아보고 다른 놀잇감을 챙겨서 돌아와 하윤이가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서 서성거리며 기다린다.



예원이는 하윤이가 간식을 다 먹은 것을 확인하고
하윤이에게 놀잇감을 건네며 함께 놀이하자는
의사를 몸짓으로 표현한다.



배움 읽기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

간식을 다 먹은 예원은 하윤이가 간식 먹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고 하윤이가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린다(사회관계-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예원은 하윤이와 함께 놀이하려고 하윤이가 간식을 다 먹기를 기다리며, 함께 놀이하고 싶은 의도를 비언어적 방식, 즉 하윤이 옆에서 서성이는 몸짓으로 표현한다(의사소통-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예원은 하윤이와 함께 오빠와 동생이 놀러 가는 상상 이야기를 짓거나 놀잇감을 건네는 등 또래와 함께 놀이하는 방법을 알아 간다(사회관계-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배움 지원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고 지원하기(일과 운영)

- 배움 읽기로 영아가 자신과 또래의 생활 리듬이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 갈 뿐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 가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 일과에서 영아가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편안하게 간식을 먹도록 간식 시간을 여유롭게 운영하려고 한다.



일과에서 생성되는 5개 영역의 통합적 배움을 이해한다.

- 교사는 간식 먹는 시간을 영아의 건강과 연결 지어 의미를 두거나, 간식을 먹기 전 손 씻기, 제자리에서 먹기, 스스로 정리하기 등의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는 시간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영아는 간식을 먹으며 자신의 고유성을 알아 가고 또래와의 차이를 존중하며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하는 보육내용을 만들고 있다.
- 영아의 경험은 일과의 성격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 교사는 일과의 성격에 한정하여 영아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서도 영아가 생성하는 다양한 배움을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내가!"



귀 기울이기

요즘 고은이는 산책이나 화장실을 다녀온 후 옷을 입을 때면 "내가! 내가!"라고 말하면서 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려고 한다. 그런데 고은이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할 때마다 하게 하면 일과 운영이 늦어지기 때문에, 교사로서 이를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고은이가 옷을 스스로 입어 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고은이의 경험을 기록하며 배움을 이해해 본다.



고은이는 먼저 옷을 바닥에 펴고, 양팔을 소매에 끼운다. 팔을 끼운 후 양팔을 들어 올려서 등 뒤로 옷을 넘긴다.



마지막으로 두 팔을 앞으로 쪽 뻗어 내며 옷매무새를 만진다. 고은이는 스스로 옷을 입을 방법을 알아 가고 있다.



바지를 갈아입으려고 화장실에 간 고은이는 "내가! 내가!"라고 말하며 바지를 혼자 입어 보려고 한다. 교사는 바지를 고은이에게 건네준다. 고은이는 화장실 바닥에 바지를 펼쳐 놓고 바닥에 앉아 바지에 다리를 하나씩 넣는다. 두 다리를 바지에 끼우고 일어나 허리춤을 위로 올린다. 고은이는 바지도 혼자서 입을 수 있다.



배움 읽기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

고은이는 소매를 양손에 끼워 양팔을 들어 올려 옷을 넘기고 팔을 뻗어 올리면 옷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가고 있다(신체운동·건강-대소근육을 조절한다). 고은이는 옷 매무새를 가지런히 하고 다듬어 보며 스스로 옷을 입고 자신을 돌보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고 있다(신체운동·건강-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해 본다). 고은이는 교사에게 혼자서 옷을 입고 싶다는 요구를 “내가! 내가!”라고 말하며(의사소통-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교사가 자신의 요구를 알 수 있도록 한다. 고은이는 스스로 옷을 입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 가고, 옷 입는 방법을 알아 가며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여기게 된다(사회관계-나의 고유함을 알아간다).



배움 지원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고 지원하기(일과 운영)

- 우리 반 영아가 바깥 놀이를 나가거나 하원할 때 스스로 옷을 입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사전 시간을 충분히 가지려고 한다.



능동적인 학습자의 배움을 이해하고 지원한다.

- 영아는 혼자 옷을 입어 보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 영아의 배움을 이해한 교사는 영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지원을 하게 된다.
- 영아는 주도적으로 해 보고 싶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혼자 해 보고 싶어 하는 능동적인 학습자이다.
- 영아의 일상생활 경험에 귀를 기울이고 42개 내용과 연결하여 배움으로 읽을 때, 교사는 영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교육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영아가 만들어 가는 배움을 이해하는 것이 영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교육적 선택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김치를 먹는 방법



귀 기울이기

교사는 평소 영아가 음식을 골고루 먹어 보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억지로 먹게 하면 음식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영아 스스로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할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마침 점심시간에 민율이 김치를 못 먹는다고 하여, 함께 식사하는 다른 또래들에게 김치 먹는 방법을 물어봄으로써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여 본다.



민율: 김치는 감자가 아니야.
이건 그냥 김치야. 나 이거 매워서 못 먹어.

교사: 민율이 매워서 먹기 힘들구나.
친구들에게 김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볼까?



진혁: 밥이랑 같이 먹으면 되지!
진혁이는 민율에게 김치를 먹는 모습을 보여 준다.



영우: 밥이랑 같이 먹어도 매우면,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되는데!
진혁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영우가 이야기하며 국물과 함께 김치를 먹는 모습을 보여 준다.



민율: 깍두기는 매워. 선생님도 먹어봐!
민율이의 이야기를 들은 교사는 깍두기를 하나 먹는다.
민율: 맛있어?
교사: 응! 맛있어!



잠시 후 민울이는
또래가 이야기하는 김치 먹는 방법을 유심히 듣고
용기를 내어 작은 김치를 먹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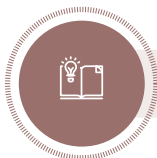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

교사는 김치를 못 먹는 민울이를 위해 진혁이와 영우에게 김치 먹는 방법을 물어본다. 진혁이와 영우는 교사가 하는 말을 알아차리고 민울이에게 김치를 먹는 자신들만의 방법을 알려 주며 김치를 먹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의사소통-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진혁이와 영우가 자신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김치를 먹는 모습을 민울이에게 보여 주자, 민울이는 이를 주의 깊게 바라본다(의사소통-표정, 몸짓,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친구들과 교사가 김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민울이도 작은 김치 조각을 먹어 보는 시도를 한다. 김치를 먹게 된 민울이, 진혁이, 영우 모두 음식을 골고루 먹으며 즐거운 식사 시간을 경험한다(신체운동-건강-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고 지원하기(상호작용)

- 영아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으려고 시도한 경험을 이야기 나누고, 영아가 먹기 힘들어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채소 기르기, 요리하기 등을 제안해 본다.



영아는 일상생활에서도 배움을 만들어 간다는 점을 이해한다.

- 영아는 또래나 교사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먹기 힘들었던 음식을 먹어 보기로 결정하고 용기를 내어 건강한 식사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영아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도 5개 영역의 배움을 만들어 가고, 배움이 더 풍부해지기도 한다.
- 영아의 표정, 몸짓, 말 등에 귀를 기울이면, 교사는 영아가 보여 주는 노력과 용기 등의 배움을 읽을 수 있다.

3. 영아의 놀이 경험에서 배움 읽기 실제



- 2세 영아는 놀이에서 상상하고, 도전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배운다. 영아는 놀이에서 일상 경험을 모방하며 경험을 확장하고, 상상하면서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도전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키워간다. 또한 영아는 또래와 교사뿐 아니라 자연, 놀잇감, 사물 등과 관계를 맺으며 배움을 넓혀 간다. 영아는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정교하게 몸을 사용하게 되면서,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기를 즐긴다. 영아는 놀이에서 다양한 배움을 만들어 간다.
- 영아는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새로운 놀이를 만들기도 하고, 주변의 작은 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하기도 한다. 영아는 놀이하며 좀 더 정교한 움직임으로 놀이 자료를 변형하기도 하고, 친구의 놀이 맥락을 알아차리고 함께 놀이하며 소통하는 즐거움을 알아 가기도 한다. 또 자신의 생활, 삶과 관계가 있는 사실이나 정보 등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배우고, 동물 모형을 가지고 이야기 짓기를 즐기기도 하고, 모래를 더 깊게 파거나 가파른 언덕을 오르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기도 한다. 놀이에서 영아의 배움은 다채롭다.
- 영아는 놀이에서 배움을 만들고, 배움은 풍부해진다. 교사는 영아의 놀이를 보며 ‘블록 놀이 하네’, ‘소꿉놀이 하는구나’, ‘책 읽고 있네’ 등과 같이 놀이 모습이나 흐름에 주목하거나 선명한 배움에만 주목하기 쉽다. 하지만 놀이 경험에 귀 기울여 영아의 배움을 읽으면 드러나지 않았던 영아의 통합적인 배움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다.
- 놀이는 영아가 세상을 배우는 방식이고 풍부한 배움이 일어나는 장이다. 놀이 경험에서 배움을 읽는다는 것은 영아가 능동적이고 유능한 학습자로서 배움을 만들어 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고, 영아의 축적된 경험에서 배움을 주목하는 것이다. 예측할 수 없이 변화하는 놀이에서 만들어지는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는 것이다.
- 배움 읽기는 영아의 놀이 경험에 귀 기울이기, 놀이 경험을 5개 영역의 42개 내용으로 읽기,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고 지원하기로 구성된다. 배움 읽기는 모든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각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 영아의 놀이 경험에서 배움을 읽는 과정을 일곱 가지 사례로 알아보고자 한다.

“아프지 마.
지렁이야.”



모래를
파자



경준이의
이야기 짓기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



“됐다!”

“빨간볼입니다.
가지 마세요!”



주름관 기차



"아프지 마, 지렁이야."



귀 기울이기

영아는 바깥 놀이를 하거나 산책을 나가면 지렁이처럼 작은 동물에 관심을 가지며 눈길을 준다. 오늘 아현이, 유하, 규빈이, 이찬이는 산책길에 우연히 지렁이를 발견하고 모여 이야기를 시작한다. 영아가 주변의 작은 동물을 보며 생성하는 배움에 주목해 본다.



규빈: 애들아! 지렁이야!

산책을 나갔다가 규빈이는 지렁이를 발견한다. 규빈이와 함께 있던 아현이, 유하, 이찬이는 길 위에 있는 지렁이를 보고 제자리에 앉아 유심히 바라본다.

이찬이는 지렁이에 관심을 가지고 몸 색깔이 빨간 것을 발견한다.

이찬: 지렁이가 빨간색이야! 어떡해. 아픈가 봐.

이찬이는 몸이 빨간 지렁이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지렁이의 상태를 탐색한다.

이찬이의 이야기를 듣고 유하는 "아프겠다."라고 말한다.





함께 지렁이를 바라보던 규빈이는 주변에 있던 풀을 주워 지렁이 위로 덮어 준다. 이를 본 유하와 아현이도 풀을 가져와 지렁이 위로 덮어 준다.

이찬: 아프지 마, 지렁이야.

이찬이는 지렁이를 걱정하며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풀과 나뭇잎을 가져와 덮어 주며 걱정스러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배움 읽기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

아현이, 유하, 규빈이, 이찬이는 바깥 놀이 중에 지렁이를 발견하고 쫓고려 앉아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며 주의 깊게 관찰한다(자연탐구-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이찬이는 지렁이가 빨간 것을 보고 아프다고 생각하여 지렁이의 상태에 관심을 가진다(자연탐구-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유하는 이찬이가 “아픈가 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아프겠다.”라고 말하며 자신도 이찬이의 생각과 같다고 말로 표현한다(의사소통-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아현이, 유하, 규빈이, 이찬이는 “아프지 마.”라고 말하거나 풀을 이불처럼 덮어 주면서 지렁이가 아프지 않을 방법을 찾아본다(자연탐구-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영아는 지렁이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래와 함께 공감한다(사회관계-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한다).



배움 지원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고 지원하기(자료)

• 지렁이에 관심이 많아진 영아를 위해 지렁이의 생김새와 움직임, 서식지 등을 알 수 있는 책을 제공해 주고자 한다. 또한 지렁이와 같은 주변 작은 동물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내용의 동화를 읽어 주고자 한다.



영아가 또래와 함께 배움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이해한다.

- 영아는 지렁이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또래와 공유하며 놀이를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든다.
- 또래는 놀이 경험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어 주는 존재로서 영아의 배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교사는 영아가 또래와 함께하며 풍성해지는 배움을 이해해야 한다.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



귀 기울이기

쌍둥이인 지호와 서은이는 다른 영아가 놀이하려고 다가오면 피하고, 둘이서만 놀이한다. 그런데 오늘은 우재, 미소, 효정이, 준우가 함께 놀이하려고 다가와도 피하지 않고 놀이를 계속 이어 가고 있다. 지호와 서은이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는 것을 배워간다고 생각되어 귀를 기울여 본다.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



서은: 하나, 둘, 셋.

서은이가 주름관을 들고 수를 말하며 제자리에서 뛴다. 지호도 서은이 옆으로 가서 수를 말하며 함께 뛴다. 서로 바라보며 주름관을 들고 뛰는 것을 즐거워한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놀이를 하던 우재도 서은이와 지호의 “하나, 둘.” 소리에 옆으로 다가와 신호에 맞춰 함께 뛰기 시작한다.



서은, 지호, 우재, 미소: 하나, 둘, 셋.

미소도 또래가 신나게 뛰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함께 뛴다.



며칠 후 감기에 걸려 오랜만에 등원한 서은이와 지호는 등원하자마자 초록 매트로 가서 예전에 놀이하던 방식으로 수를 외치고, 이를 신호 삼아 주름관을 흔들며 제자리에서 뛰기 시작한다. 서은이와 지호는 수를 말하고 주름관을 흔들며 뛰는 규칙을 만들어 간다.



서은이, 지호가 뛰는 모습을 보고 우주, 효정이, 미소도 다가와 규칙에 맞추어 수를 외치며 주름관을 흔들고 함께 뛴다. 다른 놀이를 하던 준우, 우재도 놀이를 멈추고 다가와 규칙에 따라 함께 뛰는 놀이에 참여한다. 서은이와 지호는 또래와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에 빠져든다.



배움 읽기

5개 영역의 내용으로 배움 읽기

평소 둘이서만 놀이하던 쌍둥이 지호와 서은이는 오늘도 둘이서 놀이를 한다. 손에 주름관을 쥐고 “하나, 둘, 셋.” 수를 말하고(자연탐구-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 두 발을 모아 뛰며(신체운동-건강-기본 운동을 즐긴다) 주름관을 흔든다. 수를 말하는 것과 제자리에 서 주름관을 들고 뛰며 동작을 만드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예술경험-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한다). 즐겁게 움직이는 지호와 서은이를 보고 미소, 효정이가 주름관을 들고 다가가 함께 뛰어 보며 동작을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사회관계-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지호와 서은이는 우재, 미소, 효정이와 수 말하기를 놀이의 신호로 알고(의사소통-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함께 뛰기를 반복하며 함께하는 놀이의 즐거움을 알아 간다(사회관계-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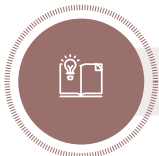
며칠 후 지호와 서은이는 또래와 함께 수를 말하고 주름관을 흔들며 뛰고, 이를 놀이 규칙으로 만들어 가며 이 순서로 놀이하는 것을 즐긴다(자연탐구-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둘이서만 놀이하던 지호와 서은이는 또래와 함께 수를 외치고, 주름관을 흔들며 뛰면서 함께하는 놀이를 즐긴다(사회관계-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또래와 함께하는 놀이가 즐겁다는 것을 알아 간다.



배움 지원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고 지원하기(공간과 자료)

- 영아가 춤을 추는 놀이 공간 벽면에 지호와 서은이가 또래와 함께 놀이하는 사진을 게시하여 놀이의 즐거움을 기억하고 또래와 지속적으로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설서의 내용 해설을 참고하여 영아의 배움을 좀 더 넓고 풍부하게 이해한다.

- 또래와 수를 세며 함께 뛰는 놀이는 사회관계 영역과 자연탐구 영역 내용의 배움이 두드러져 보이나, 영아의 놀이 경험에 귀 기울여 보면 5개 영역의 내용이 골고루 포함된 배움으로 읽을 수 있다.
- 해설서의 내용을 보면 경험의 범위가 넓게 진술되어 있어 영아의 경험을 넓게 이해하며 배움과 연결할 수 있다.
- 교사는 5개 영역의 42개 내용을 숙지하고 해설서의 내용 해설을 참고하여 영아 배움을 통합적으로 읽어야 한다.
- 배움 읽기는 영아의 다채롭고 통합적인 놀이 경험과 의미를 이해하는 교사의 교육적 실천이다.

"빨간불입니다. 가지 마세요!"



귀 기울이기

버스를 타고 과학관으로 현장학습을 가는 길에 지영이, 성은이, 은우, 주희는 신호등의 색이 초록불일 때는 자동차가 가고, 빨간불일 때는 멈추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 다음 날, 영아는 '자동차가 출발하고 멈추는 것은 신호등의 색에 따라 다르다'는 실제 경험을 놀이로 만들고 있다. 영아는 놀이하며 무엇을 배우는 걸까?

현장학습 가는 날이다. 현장학습 장소인 과학관으로 가려고 지영이, 성은이, 은우는 버스를 탄다. 지영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버스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그때 버스가 멈춘다.



버스가 멈춘 이유가 궁금한 지영이는 교사에게 물어본다.

지영: 선생님, 왜 차가 멈췄어요? 왜 안 가지?

교사: 저기앞에 봐봐! 신호등이 무슨 색이지?

지영: (몸을 쪽 빼고 보며) 빨간불!

성은: 빨간불이면 멈춰야 돼!

교사와 또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은우는 교사에게 이야기한다.

은우: 초록색 불에 건너야 해요.



이때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뀐다.

신호등을 주의 깊게 바라보던 지영이, 성은이, 은우가 다 함께 "출발!"이라고 외친다.

현장학습을 다녀온 다음 날, 친구들이 자동차 모형에 타자 주희가 빨간색과 초록색 블록을 가져와 친구들 앞에 선다.



주희는 현장학습 날에 버스에서 보았던 신호등처럼, 직접 신호등이 되어 빨간색 블록과 초록색 블록으로 신호를 알려 준다.

주희는 빨간색 블록을 보여 주다가 초록색 블록을 보여주며 들어 올린다.



주희가 신호등인 것을 알고 있었던 은우는 주희가 초록색 블록을 올리자 운전대를 잡고 돌리며 말한다.

은우: 빵빵, 빵빵, 비켜 주세요. 초록불입니다.

은우의 이야기를 들은 주희는 다시 빨간색 블록을 들어 올리며 “이제 빨간불입니다. 가지 마세요!”라고 말한다.



친구와 함께 자동차에 타고 있던 성은이가 갑자기 일어선다. 이를 본 지영이가 성은이에게 “서 있으면 안 돼! 넘어져!”라고 말한다.



배움 읽기

5개 영역의 내용으로 배움 읽기

지영, 성은, 은우는 안전벨트를 매고 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버스가 신호등에 따라 움직이는 안전한 상황을 경험한다(신체운동·건강-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지영이는 달리던 버스가 멈추는 이유를 교사에게 묻고 교사의 안내로 빨간불에 차가 멈추는 것을 알게 된다(자연탐구-주변환경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의사소통-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성은이와 주희는 신호등을 보며 빨간불에 차가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아 가고 있고, 은우는 초록불에 건너야 한다는 것을 알아 가고 있다(의사소통-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현장학습을 다녀온 후 놀이하는 영아의 경험을 5개 영역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배움을 읽어 본다.

주희는 블록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신호등이 되어서 놀이하며 몸으로 교통 신호등의 역할을 해 본다(의사소통-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신호등이 된 주희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은우에게 초록색일 때 움직이고, 빨간색일 때에는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신호등 색의 의미를 설명한다(의사소통-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영아는 자동차가 지켜야 할 교통 신호를 놀이하며 알아 가고 있다(사회관계-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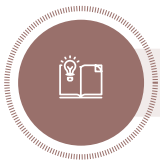
은우는 어제 버스 안에서 보았던 교통 신호를 기억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상상을 하며(예술경험-상상놀이를 한다) 신호등의 색에 따라 자동차가 움직이고 멈춘다는 것을 이해해 간다(사회관계-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안다). 성은이와 지영이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상황을 상상하며 놀이하고(예술경험-상상놀이를 한다), 자동차에서는 앉아 있어야 안전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신체운동·건강-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배움 지원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고 지원하기(공간과 자료)

• 영아는 스스로 신호등이 되어 신호등의 역할과 특징 등을 알아 간다. 영아가 자동차 또는 신호등이 되어 놀이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지원해 줄 예정이다.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거나 자동차가 주인공인 그림책을 비치하고 신호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목 색 블록 등을 제공하려고 한다.



영아의 축적된 경험에서 배움을 이해한다.

- 현장학습 가는 길에 신호등을 경험한 영아는 초록색, 빨간색 블록과 몸의 움직임으로 신호등을 표현하며 자신의 배움을 확장한다.
- 영아는 일상 경험을 모방하고 상상하며 자신만의 놀이로 재구성하면서 배움을 확장한다.
- 교사는 매일 영아의 경험과 배움을 읽을 수 있고, 이러한 매일의 경험이 축적되어 확장되는 영아 놀이에서의 배움 또한 읽을 수 있다.
- 배움 읽기는 영아의 축적된 놀이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풍부해지는 배움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주름관 기차



귀 기울이기

정우가 주름관으로 놀이했던 사진을 보며 관심을 보인다. 이를 본 교사가 정우에게 주름관을 더 길게 만들 수 있는지 질문한다. 정우는 주름관을 길게 연결해 보고 싶으며 주름관을 연결해 본다. 이에 교사는 정우가 어떤 배움을 얻는지 알아보고자 주의를 기울이며 기록한다.



정우는 교실에 게시된 자신의 놀이 사진을 유심히 보며 교사에게 말한다.

정우: (사진을 보며) 이거 내가 했지?

교사: 응, 이것보다 더 길게 만들 수 있어?

정우: 더 길게 해 볼까?



정우는 교실에 있던 주름관을 여러 개 가지고 와서 길게 늘어 가지런히 모은 후 하나씩 연결한다.



정우는 자신이 이은 주름관을 유심히 살펴보며 주름관을 더 잘 고정하려고 바닥에 놓고 연결한다.



정우: (벽에 붙은 사진처럼 목에 걸고) 이것 봐! 더 길지?

교사: 우아, 기차 같아.

정우는 교사에게 길게 연결한 주름관을 보여 준다.

이를 본 교사가 기차 같다고 이야기하자,

정우는 길게 연결한 주름관을 보며 뿌듯해한다.



정우를 지켜보고 있던 다율이, 아정이, 시연이가 정우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온다.

정우의 주름관으로 또래와 기차놀이를 하고 싶은 다율은 정우에게 물어본다.

다율: 기차 타도 돼?

정우: 응.

정우가 기차놀이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자

다율, 아정, 시연이는 정우가 길게 연결한 주름관의 공간으로 들어간다.

다율이, 아정이, 시연이, 정우는 주름관을
잡고 기차를 탄 것처럼 교실을
천천히 걷기 시작한다.

기차놀이를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태현이도 주름관 안으로 들어가
함께 기차놀이를 한다.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

정우는 주름관을 대어 보며 서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름관을 연결해 본다(자연탐구-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몸을 숙이면 양팔과 손에 힘을 주기가 쉽다는 것을 알고 주름관을 바닥에 늘어놓고 주름관을 길게 연결해 본다(신체운동·건강-대소근육을 조절한다). 정우는 기차처럼 길게 주름관을 연결하였다는 부딪힘과 성취감을 교사에게 알린다(사회관계-나의 고유함을 알아간다).

정우가 만든 긴 주름관을 보고 다울이, 아정이, 시연이가 다가와 함께 놀이하라고 하고, 정우는 또래의 요구에 따라 흔쾌히 함께 기차놀이를 시작한다(의사소통-표정, 몸짓,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사회관계-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정우, 다울이, 아정이, 시연이, 태훈이는 길게 연결된 주름관을 기차로 상상하며 주름관을 들고 교실을 돌며 기차가 되어 본다(예술경험-상상놀이를 한다). 영아들은 함께 주름관 기차를 잡고 움직이면서 걸음 속도와 보폭을 맞추어 기차놀이를 즐긴다(신체운동·건강-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사회관계-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고 지원하기(공간)

- 영아가 또래와 함께 주름관 기차를 타고 움직이기엔 교실 공간이 좁다. 교실보다 넓고 안전한 유희실에서 놀이하라고 제안하려 한다. 유희실에서 기차놀이를 하며 또래와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놀이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예측할 수 없이 변화하는 놀이에서 만들어지는 배움을 이해한다.

- 영아의 주름관 놀이는 놀이 사진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 긴 주름관을 만들고, 교사와 대화하면서 또래와 함께하는 기차놀이로 변화한다.
- 영아는 다양한 관계에서 놀이하며 배운다. 영아의 놀이는 교사, 또래, 자료, 공간 등의 관계의 영향을 받아 유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게 변화한다.
- 교사는 배움 읽기를 함으로써 우연적이고 즉흥적이며 다양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영아의 놀이와 배움을 이해할 수 있다.

경준이의 이야기 짓기



귀 기울이기

경준이는 평소 교실에서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며 혼잣말을 하곤 한다. 혼자 이야기하며 놀이하기를 즐기는 경준이는 자신만의 생활 리듬을 가지고 있다. 경준이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지으며 배움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혼자 하는 놀이에 주목해 본다.



경준이의 이야기 짓기



경준 선생님: 메뚜기야, 어린이집 가자!
어린이집 가서 재미있게 놀자!
바로 바로 키즈 카페 가자!
경준 메뚜기: (아이처럼 목소리 바꾸며) 네! 네! 네!
경준이는 자신이 선생님이 되고 메뚜기가 아이가 되는 상상을 하며 이야기를 짓는다.

경준 선생님: 이제 정리 시간이에요. 자리가 어디일까요?

경준 메뚜기: (메뚜기 인형으로 자동차를 집어서
바구니에 넣으며) 여기!

경준이는 기관의 정리 시간을 떠올리며
마치 메뚜기가 놀잇감을 정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경준이는 곤충 모형을 일렬로 늘어놓고 거미 모형을 움직이며 노래를 부른다.

경준 선생님: (노래) 비가 오는데 어디 가세요!

교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여기는 어린이집이야.”라고 말하며 교사에게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한다.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

경준이는 메뚜기 곤충 모형을 아이로 상상하여 기관에서 즐겁게 놀이하고, 정리하고, 키즈 카페에 가는 등의 이야기를 지으며 자신만의 상상놀이를 즐긴다. 경준이는 상상의 이야기를 지으며 다양한 일상 상황을 설정하고, 평소 선생님의 표정, 몸짓, 말을 기억하였다가 역할에 맞게 억양, 단어, 문장 등으로 다르게 표현한다(의사소통-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경준이는 자신의 이야기에 재미를 느끼며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의사소통-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경준이는 거미 모형을 선생님, 다른 곤충 모형을 아이로 상상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거미 모형을 리듬에 맞추어 움직이기도 한다(신체운동-건강-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경준이는 놀이를 통해 기관에서 즐겁게 지내고 정리를 하는 등의 정해진 일과에 약속이 있음을 알아 간다(자연탐구-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이야기를 이어 가는 중에 경준이는 선생님이 자신의 놀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고 지원하기(일과 운영)

• 경준이의 놀이 경험에서 배움을 읽으며 경준이가 정해진 일과를 이해하는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경준이를 포함한 모든 영아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여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려고 한다.



영아의 상상놀이에서 배움 읽기는 영아가 세상을 배우는 방식임을 이해한다.

- 생활 리듬이 다양한 영아는 놀이를 통해 기관의 정해진 일과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알아 가고 있다.
- 영아는 상상하는 놀이로 세상을 경험하고 배운다.
- 교사는 배움 읽기로 개별 영아의 일상을 이해하며 영아가 만들어 가는 고유한 보육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영아의 배움 읽기를 기록할 때에는 괄호 안에 5개 영역과 42개 내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경험과 보육내용을 배움과 연결하여 기록할 수 있다.

모래를 파자



귀 기울이기

준우, 도운이, 유이는 매일 모래 놀이터에서 긴 시간 놀이한다. 매일 모래를 파는 똑같은 놀이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준우, 도운, 유이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을까? 오랜 시간 모래를 파는 데 열중하고 몰입하는 영아의 놀이 경험과 배움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준우: 오늘도 깊은 구덩이를 만들자!

바깥 놀이 시간, 준우는 도운이, 유이와 같이 깊은 구덩이를 만들려고 모래를 파기 시작한다.



준우: 파자! 파자! 파자! 딱딱해!

준우는 더 깊이 모래를 파려고 두 발바닥에 힘을 주고, 왼손으로 땅을 짚어 균형을 잡으며 오른손으로 흙을 판다.

도운: 나는 삽으로 할 거야!

옆에 있던 도운이는 주변에 있는 모래놀이용 삽을 가지고 와서 삽으로 흙을 판다.



옆드려 모래를 파고 있는 준우를 보며 유이도 깊이 파려고 옆드려서 발끝에 힘을 주며 몸을 조절한다.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다른 손으로 흙을 파며 몸이 넘어지지 않도록 발끝과 발바닥에 힘을 주어 균형을 잡는다.



준우, 도운, 유이가 열심히 모래를 파다 보니 작은 구덩이가 만들어진다.

작은 구덩이를 발견한 준우, 도운이, 유이는 구덩이 가장자리에 앉아 발을 넣어 본다.

유이는 구덩이에 넣은 발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깊이를 가늠해 본다.

준우, 도운이, 유이는 모래를 팔수록 깊어지는 구덩이를 보며 삽과 손으로 계속 모래를 판다.
모래 구덩이가 더 깊어지자 도운이는 구덩이에 몸을 넣어 앉아 깊이를 탐색한다.

도운: 더 파자!

도운이는 더 깊은 구덩이를 만들려고 다시 모래를 판다.





배움 읽기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

구덩이 파기를 좋아하는 준우와 유이는 구덩이를 깊게 파려고 한 손으로 땅을 짚어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다른 손의 힘을 조절하면서 모래를 파낸다. 유이는 엎드려서 발 끝까지 힘을 주고 손에 힘이 들어가도록 하여 손으로 모래를 더 잘 팔 수 있도록 힘을 조절한다. 준우, 도운이, 유이는 모래를 파면서 온몸으로 모래를 탐색하고, 자신들이 만든 구덩이에 발이나 몸을 넣어 보면서 얼마나 깊은지 가늠해 본다. 도운이는 모래를 더 깊게 파려고 삽을 사용하면서 삽의 기능 등을 알아 간다. 또래와 함께 구덩이를 파면서 또래의 몸짓,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을 알아 간다.



배움 지원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고 지원하기(일과 운영)

- 준우, 유이, 도운이가 계속해서 모래 구덩이를 팔 수 있도록 바깥 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려고 한다.



놀이에서 영아는 능동적이고 유능한 학습자가 되어 배움을 생성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 매일 모래 놀이터에서 모래를 파는 세 영아는 능동적인 탐색과 도전으로 자신들만의 배움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영아는 스스로 배움을 생성하고 확장하는, 능동적이고 유능한 학습자이다. 영아는 놀이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험하며 자신의 배움 과정에 몰입한다.
- 교사의 배움 읽기는 능동적이고 유능한 학습자인 영아가 놀이에 몰입하며 배움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됐다!"



귀 기울이기

평소 영아는 체육 매트 위에 올라가는 것을 즐기고, 놀이터에서 울퉁불퉁한 길을 오르는 것을 좋아한다. 오늘은 언덕이 있는 중앙 놀이터로 바깥 놀이를 나가 언덕을 오르려는 영아의 모습에서 배움이 생성되는 것에 주목한다. 높은 곳에 오르려고 신체를 조절하는 영아의 배움이 이어지도록 조금 더 가파른 언덕이 있는 중앙 놀이터로 바깥 놀이를 나간다.



선우는 놀이터 언덕을 보고
바로 달려가 오른다.
자신의 발 앞쪽에
힘을 주고 손바닥을 경사면에
딱 붙여 미끄러지지 않고
언덕 끝까지 오른다.

채영이는 선우가 언덕을 올라간 모습을 보고
자신도 할 수 있을지 망설인다.
그리고 채영이도 용기를 내 선우처럼
언덕 오르기를 시도한다.

언덕에서 떨어지지 않게 채영이는
발끝과 손가락 끝에 힘을 주고,
손바닥으로 까끌까끌한 언덕의 표면을 매만지며
천천히 언덕을 올라간다.





가은이도 놀이터에 있는 작은 언덕을 오르려고 한다.
가은이는 언덕에 오를 때마다 계속 미끄러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오른다.
언덕을 오르다 자신의 발이 미끄러지자
가은이는 교사에게 다급히 손을 내민다.

가은: 으, 선생님!

교사가 가은이의 엉덩이를 받쳐 주자,
언덕 위까지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는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도윤이도 언덕 오르기에 도전한다.
처음엔 손과 발을 경사에 딱 붙이고 오르다가 손을 살며시 들어 본다.
미끄러지자 도윤이는 다시 손을 경사에 딱 붙이고 발 앞 끝에 힘을 주어 조심하 움직인다.
하지만 도윤이는 언덕을 오르다가 계속해서 미끄러진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언덕을 오른다.
언덕 중간쯤 경사가 심해지자 “으으!”라고 말하며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버틴다.

도윤이는 손과 발을 조심조심 옮기며
언덕 끝까지 올라간다.
도윤이는 가은이 옆에 앉으며 “됐다!”라고
말하고, 높은 언덕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해한다.





배움 읽기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

선우는 발 앞 끝에 힘을 주고 손바닥을 경사면에 붙여 가파른 언덕을 빠르게 오른다. 경사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손바닥과 발끝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을 익히며 자신의 손과 발의 힘을 조절하는 것에 능숙해진다.

채영이는 선우가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어 언덕 오르기를 시도한다. 채영이는 언덕을 오르며 발끝에 힘을 주고 손바닥을 경사면에 붙여 손과 발, 온몸의 힘을 조절한다.

가은이는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 계속해서 미끄러지지만 언덕 오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교사와 같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다. 가은이는 교사의 도움으로 언덕을 오르면서 미끄러지지 않게 자신의 팔과 다리를 조절하여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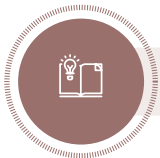
도윤이도 언덕을 오르며 발바닥을 언덕에 붙이고 손을 떼어 보거나, 발의 앞 끝에 힘을 주고 손바닥을 언덕에 밀착하여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려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언덕을 오른 후 뿌듯함을 느낀다.



배움 지원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고 지원하기(일과 운영, 공간)

- 선우, 채영, 가은, 도윤이가 각자의 풍부한 배움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가파른 언덕이 있는 놀이터로 바깥 놀이를 자주 나갈 예정이다.
- 가파른 언덕 이외에 영아가 신체를 세밀히 조절하며 새롭게 도전하고, 끈기 있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이나 놀이 등을 더 찾아 지원하려고 한다.



놀이 경험에서 영아 배움의 의미를 이해한다.

- 영아는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 전 긴장과 두려움을 느끼지만, 또래가 시도하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내고 적극적으로 도전한다. 또한 영아는 언덕을 오르며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결국 언덕을 오르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형성해 나간다.
- 또래와 언덕을 오르는 영아의 놀이에서 배움을 읽을 수 있으며, 열린 관점으로 영아의 놀이 과정에 주목하다 보면 교사는 영아의 놀라운 경험과 배움을 이해하게 된다.
- 많은 시간을 영아와 함께하는 교사는 놓치고 싶지 않은 영아의 놀라운 성장과 배움을 마주하고, 그 의미를 읽어 줄 수 있다.

3

영아를 이해하는 평가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에서 평가는
배움 읽기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특성과 의미 있는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다.

1. 영아 평가의 의미



-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에서 배움 읽기는 평가로 이어진다. 고시문과 해설서에는 표준보육과정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고자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고 평가하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평가 대상은 ‘영아’와 ‘보육과정 운영’이다.
- 보육과정 고시문과 해설서에 따르면, 영아 평가는 배움이 나타나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서 ‘영아의 고유한 특성과 의미 있는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며, 영아의 배움과 성장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보육과정 실행과 관련된다.
- 영아 평가는 배움 읽기와 관련되어 있다. 배움 읽기는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 경험을 2세 보육과정 5개 영역의 42개 내용으로 연결하여 영아의 배움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배움 읽기에서 영아가 어떤 배움에 이르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영아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배움 읽기는 영아 평가의 원천이 된다.
- 영아 평가는 영아의 특성과 변화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며, 영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보육과정 실행으로 이어진다. 이를 보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을 개별 영아의 성취 기준으로 삼아 배움의 결과를 확인하거나, 개별 영아의 배움에서 영역별 내용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한다.

2. 영아를 이해하는 평가: 목적, 내용, 방법, 활용



- 영아를 이해하는 평가의 '목적'은 영아의 고유한 특성과 의미 있는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영아의 행복과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데 있다. 교사는 배움 읽기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고유한 특성이나 의미 있는 변화에 주목하여 영아를 이해한다. 영아 평가는 영아의 고유한 특성과 의미 있는 변화를 지원하도록 영아중심 보육 과정을 실행하여 보육과정 운영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 영아를 이해하는 평가의 '내용'에는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고유한 특성이나 의미 있는 변화를 담는다. 영아의 고유한 특성이나 의미 있는 변화는 배움 읽기 과정에서 나타난다. 영아의 고유한 특성은 일상생활과 놀이 경험을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결하여 배움을 읽으며 드러나는 영아의 관심과 호기심, 놀이 방식 등에 나타나는 개별 영아의 고유한 성향이다. 여기에는 영아가 즐겁게 놀이하며 배우려는 성향,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는 성향, 인내하며 끝까지 해 보려는 성향, 자신감을 가지고 해 보려는 성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성향, 책임지고 해 보려는 성향, 다른 사람과 함께 배우려는 성향 등이 포함된다.
- 영아를 이해하는 평가의 '내용'에는 영아의 의미 있는 변화도 포함된다. 의미 있는 변화는 영아의 경험과 배움이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성장과 변화를 의미한다. 영아의 배움이 축적되면서 배움 방식이 다양해지고 성향도 달라지므로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배움 읽기 과정에서 영아의 의미 있는 성장과 변화에도 주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아가 또래와 놀이하는 것을 즐기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관심과 호기심이 많아지고, 친구를 도와주는 것을 알아 가며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평가의 원천으로 삼아 영아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해하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배움 읽기는 영아의 고유한 특성이나 의미 있는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평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 또한 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역시 영아를 이해하는 평가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영아는 일상생활과 놀이 경험에서 5개 영역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배우며 추구하는 인간상을 향해 성장하게 된다. 추구하는 인간상에는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해설서에서 '건강한 사람'은 몸과 마음이 고루 발달하고 스스로 건강함을 유지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사는 배움 읽기를 누적해 갈 때 추구하는 인간상에 비추어 영아의 성장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평가를 할 수 있다.

- 영아를 이해하는 평가 '방법'은 일상생활과 놀이 경험에서 배움을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결하는 배움 읽기 기록을 모으는 것에 있다. 교사는 배움 읽기의 기록을 모아 영아의 고유한 특성이나 의미 있는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미리 정해진 평가 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나 어느 한순간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방법으로는 영아의 성장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의 놀이와 일상생활 경험에서 배움을 읽은 기록을 활용해야 한다. 메모나 사진 등을 활용한 놀이 경험 기록이나 관찰기록, 보육일지 등에 남긴 영아의 배움을 읽은 자료, 영아의 놀이 결과물과 작품 등을 일상적으로 수집하여 영아의 발달 상황, 특성,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평가의 시기와 방법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 영아 평가 결과는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고, 영아의 배움과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 교사는 영아의 배움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성과 의미 있는 변화를 파악하여 배움을 지원하는 보육과정 실행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전을 좋아하지 않는 영아에게 교사와 함께 시도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놀이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보육과정 실행 계획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영아 평가는 부모와 함께 영아에 대한 이해를 나누는 부모 면담 자료로도 활용하여 부모와 협력하는 보육과정 운영을 추구할 수 있다.
- 다음에서 제시하는 평가 사례는 배움 읽기를 기반으로 영아의 고유한 특성이나 의미 있는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추구하는 인간상에 비추어 영아를 이해하는 과정과 평가 결과를 보여 준다.



3. 영아를 이해하는 평가의 실제



영아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는 평가



영아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는 평가

- 영아의 고유한 특성은 일상생활과 놀이 경험을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결하여 배움을 읽으며 드러나는 영아의 관심과 호기심, 놀이 방식 등에서 나타나는 성향이다. 영아의 고유한 특성을 알아 가는 평가는 영아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영아의 특성이 짧은 시간에 선명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
- ‘한 학기’ 동안 성준이의 그림과 작품, 놀이 경험과 배움이 기록된 보육일지와 놀이기록을 모아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성준이의 배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준이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는 평가를 하고자 성준이의 배움 성향이 나타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한 예시이다. 이 예시에서 성준이의 다양한 관심과 호기심, 놀이 방식이 고유한 특성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 예시는 영역별 내용 배움이 포함되어 있는 배움 읽기 기록이다.



24. 4. 10.

집에서 가져온 물고기 인형에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려고 투명한 상자에 꽃 스티로폼을 넣고 “물고기 집.”이라 상상하여 말한다. 물고기 집을 들어 올려 물고기가 보이는지 살펴본다.

24. 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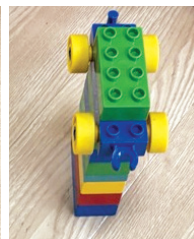
천사 점토에 초록색, 파란색 사인펜으로 색을 입히고 눈 스티커를 붙여 얼굴을 만들고, “이건 악어예요!”라고 상상하며 이야기한다.



24. 5. 2.

창밖에서 소금쟁이를 발견하고, 소금쟁이의 몸통과 다리를 그림으로 끼적이며 소금쟁이의 생김새를 알아 간다.

날짜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반	빨간반
놀이	<p>빨간반 영아들과 함께 바깥 놀이에서 소금쟁이를 찾아보기로 한다. 성준이는 연못에 가면 소금쟁이를 찾을 수 있다며 안내한다. 연못에서 물 위에 떠 있는 소금쟁이를 발견하고, 소금쟁이를 채집하여 교실로 돌아온다. 가람이, 지유, 성준이는 채집통에 든 소금쟁이에 시선을 맞춰 엎드린 후 움직임을 관찰한다.</p>		
영아의 배움	<p>또래에게 연못에 소금쟁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물 위에 떠 있는 소금쟁이를 함께 찾아본다. 바닥에 엎드려 채집통에 눈높이를 맞추어 소금쟁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소금쟁이가 움직인다고 말한다. 소금쟁이처럼 팔다리를 쭉 뻗어 저으며 움직임을 표현하고 소금쟁이가 되어 본다.</p>		



성준: 움직여요! 헤엄쳐!
지유: 쪽쪽! 하면서 움직여!
가람: 쪽쪽!



24. 5. 31.



24. 5. 13.

플레이콘을 길게 연결하고,
긴 형태에서 지렁이를 떠올리며 상상한다.

지점토를 두 손으로 둥글게 말아 길쭉하게
만들며 올챙이의 생김새를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24. 6. 4.

개구리 그림을 얼굴에 붙이고,
개구리가 되어 보는 상상을 하며
즐거워한다.

무당벌레 사진을 자세히 보고
따라 그리면서 빨간색으로 몸을
칠하고 눈을 붙여 무당벌레의
모습을 표현한다. 무당벌레에
점이 많은 것도 알아 간다.



24. 6. 17.

검은색 점토에서 거미를 떠올리고
점토를 종이 접시에 붙여 거미의
몸을 만들고, 눈 스티커로는 눈을,
막대로는 다리를 표현한다. 끈적이는
점토를 종이 접시에 붙여 표현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알아 간다.

24. 7. 2.



24. 6. 17.



달팽이를 찾으려고 몸을 숙여
화단 안쪽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손가락으로 흙을 살살 파면서
촉촉한 흙을 탐색한다.

24. 7. 3.



등원하는 길에 잡은 공벌레를 손바닥에 놓자
동그랗게 몸을 마는 모습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통에 든 공벌레의 모습을 보려고,
돋보기를 사용하여 자세히 관찰한다.

24. 8. 22.



빨대로 몸, 다리, 날개를 배열하고 붙여
잠자리를 표현하며 잠자리의
생김새를 알아 간다.

24. 8. 23.



빨대로 만든 잠자리는 몸 앞에 붙이고,
종이로 만든 날개는 몸 뒤에 붙이고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며 잠자리가 되어 본다.

- 배움 읽기 기록 예시에서 나타났듯이 동물에 대한 관심이 성준이의 고유한 배움 특성이다. 성준이는 관심 있는 동물을 상상놀이로, 점토로, 그림으로, 레고로, 다양한 놀이 자료로 표현하고, 주변 환경을 탐구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 다양한 놀이 방식으로 동물을 탐색하고 배움을 확장해 가는 성준이만의 고유한 배움 특성이 나타난다. 이로써 성준이의 배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다음은 1학기 동안 성준이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는 평가 예시이다.

1학기 성준이 평가 예시

성준이는 작은 동물이나 곤충의 사는 곳, 생김새, 움직임 등에 호기심이 많다. 작은 동물에 호기심이 많은 성준이는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놀이하며 즐겁게 배운다. 좋아하는 동물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다양한 재료로 동물을 만드는 것을 즐기고, 동물의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기며 작은 동물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간다. 성준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을 알아 가는 것을 즐기고, 다양한 놀이 방식으로 관심과 호기심을 확장해 가는 특성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영아를 이해하는 평가는 영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보육과정 실행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성준이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평가는 성준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보육과정 실행에 활용된다.

성준이 평가 활용의 예시

- 2학기에는 작은 동물에 관심이 많은 성준이의 배움을 지원하고자 성준이가 작은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성준이가 관찰에 활용한 도구를 한곳에 모아 주는 계획을 세워 본다.
- 보육과정을 부모와 협력하여 운영하도록 성준이의 평가를 부모와 공유한다.
다음 편지는 성준이 부모가 교사에게 보낸 평가에 대한 의견이다. 부모는 성준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놀이를 지원한 교사에게 성준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보육과정 실행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평소 자연 관찰을 좋아하는 성준이가 어린이집 주변에서도 곤충을
관찰하면서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그부엉이를 잘 발견하고 언제든 불이나 집에서 하게 함도
놀이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관찰만 하는 활동이 아니어서 성준이의 놀이가 아이의
관심이나 사회화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아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해하는 평가

- 영아의 의미 있는 변화 역시 일상생활과 놀이 경험을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결한 배움 읽기와 관련된다. 영아는 경험과 배움이 축적되면서 점진적으로 성장과 변화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좀 더 긴 호흡으로 영아의 의미 있는 성장과 변화를 이해하는 평가도 필요하다.
- 지안이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해하려는 평가의 과정을 따라가 보자. 교사가 지안이의 평가를 시행한 목적은 상상놀이를 즐기는 지안이에게 어떠한 성장과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먼저, 교사는 2개월에 걸쳐 지안이의 상상놀이와 관련한 배움 읽기가 담긴 보육일지를 모아 시간순으로 배열해 본다.

지안이의 배움 읽기 기록 예시

2024년 4월 25일 보육일지 일부



지안이는 ‘아기 돼지 삼 형제’,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 양’ 그림책 두 권을 읽고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되어 이야기 짓는 것을 즐긴다. 아기 양 또는 돼지가 되어 또래와 함께 놀이하며 즐겁게 지낸다.



2024년 5월 9일 놀이기록 일부

그물망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보고

시아는 감옥이라 말하고,

지안이는 집이라고 말하면서 시아의 표정을 살핀다.

지안이는 시아를 살피며

시아의 놀이 맥락으로 함께 놀이한다.



2024년 6월 7일 보육일지 일부

시아가 “늑대 할까?”라고 제안하자 지안이는 “좋아.”라며

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여 늑대가 되어 본다.

오늘 지안이는 처음으로 늑대가 되어 양팔을 올리고

입을 벌려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친구와 함께 새로운 역할을 하며 놀이를 즐긴다.



2024년 6월 11일 놀이기록 일부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맥락에서 놀이하던 지안이가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맥락을 만들어 놀이를 시작한다. 지안이는 끼우기 블록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아이스크림 사세요.”라고 말하자 친구들이 모여든다.

- 2개월에 걸친 지안이의 배움 읽기를 모아 보니, 좋아하는 그림책과 관련하여 상상놀이를 만들어 즐기던 지안이의 놀이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지안이가 점차 또래와 함께 상상놀이를 해 가는 것으로 놀이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고, 지안이는 또래와 함께 놀이하려고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며 함께 놀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지안이의 의미 있는 변화를 평가하며 지안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지안이의 의미 있는 변화를 평가로 작성해 본다.

지안이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해하는 평가 예시

상상놀이를 좋아하는 지안이는 또래의 반응을 살피고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여 말하며 친구들의 상상놀이에 참여하여 함께 놀이하는 방법을 알아 간다. 친구들과 상상놀이를 즐기던 지안이는 자신이 원하는 상상놀이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친구를 초대하여 함께 놀이할 수 있게 된다. 상상놀이를 좋아하는 지안이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이하며 배운다.

- 지안이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해하는 평가는 지안이의 놀이 지원 계획에 활용된다. 다음은 평가 활용의 예시이다.

지안이 평가 활용 예시

지안이의 놀이기록을 책으로 만들어 주어 지안이가 친구들과 함께 놀이할 줄 아는 자신을 뿌듯하게 느끼도록 한다. 상상놀이를 좋아하는 지안이가 풍부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놀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림책을 제공하고 읽어 준다. 더는 사용할 수 없게 파손된 그림책 등을 제공하여 이야기를 다양하게 꾸며 상상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구하는 인간상에 비추어 영아를 이해하는 평가

- 영아는 일상생활과 놀이 경험에서 5개 영역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배우며 추구하는 인간상을 향해 성장하게 된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5개 영역의 통합적 배움의 결과로 나타나는 풍부한 배움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해설서에 제시된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에 해당하는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추구하는 인간상에 비추어 영아를 이해하는 평가는 긴 호흡으로 이루어진다.
- 이준이의 사례에서 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추구하는 인간상에 비추어 영아를 이해해 가는 평가를 따라가 보자. 이준이의 꽃 돌봄이 특별한 성향으로 보여 이 성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고자 4개월에 걸친 이준이의 배움 읽기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본다.

이준이의 배움 읽기 기록 예시

이준이는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에서의 기관 경험이 없던 영아이다. 그렇다 보니 교실에서 주로 혼자 놀이를 하며 친구들과 놀이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런 이준이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대상은 산책길에서 만난 '꽃'이다. 그래서 교사는 이준이가 교실에서도 꽃을 볼 수 있도록 작은 화병에 꽃을 꽂는다.

5월 31일



이준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꽃에게 뽀로로 책을 보여주며, 꽃을 보살피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꽃의 상태, 모양 등에 관심을 가지며,
꽃이 시든 상태를 아프다고 표현한다.
또한 꽃이 시들어 걱정되는 마음을
“고쳐 줄게.” 등의 말로 표현하며
식물을 보살피는 것을 좋아한다.

6월 3일



6월 7일

꽃이 더 시들었는지를 세심히 관찰하고, 시든 꽃송이를 하나씩 떼어 투명한 컵에 담아 병원에 데려가는 것으로 꽃을 보살핀다.
이준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보살피며 자신의 감정을 고유하게 느끼고, 돌보는 행위에 만족해하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주로 혼자 꽃을 돌보며 놀던 이준이는 블록 상자를 힘들게 옮기는 친구를 보고 달려가 친구를 도와 함께 상자를 옮기기도 한다.



9월 25일

- 학기 초부터 이준이를 관찰하고 배움 읽기를 기록한 내용에 따르면, 이준이는 꽃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준이의 식물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폭넓은 배움이 보이고, 꽃에 대한 관심이 또래에 대한 배려로 변화해 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인간상으로 성장해 가는 이준이의 모습에 주목하게 된다. 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추구하는 인간상에 비추어 이준이를 이해하는 평가를 해 본다.

추구하는 인간상에 비추어 이준이를 이해하는 평가 예시

꽃을 좋아하는 이준이는 지속적으로 꽃을 보살핀다. 자연을 탐색하는 과정을 즐기고, 작은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돌보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존중해 간다. 이준이의 꽃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또래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또래를 배려하는 행동으로 변화하며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 영아 평가 자료는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작은 생명을 아끼고 돌보면서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준이의 배움을 지원하고자 교실에 꽃과 같은 작은 생명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또한 이준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 이준이와 반 영아와 공유한다.
- 4개월에 걸쳐 추구하는 인간상에 비추어 이준이를 이해하는 평가 사례는 일 년 동안의 발달과 성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생활기록부 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하며 쉬어 갈까요?



놀이에 영아의 배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영아가 다양한 배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2세 영아를
유능하고 능동적인 학습자라고 하나 봐요.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배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배움을 5개 영역 42개 내용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무얼 가르쳐야 배운다고 생각해서 활동을 꼭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영아가 스스로 배움을 만들어 내니 배움이 더 풍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배움을 읽고 나니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 생각이 잘 떠올랐어요.



이전에는 영아 평가가 발달 기준에 맞춰 평가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또 영역별 내용과 연결 지어서 성취했는지만을 평가했는데,
영아의 배움 읽기와 영아 평가로 영아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영아마다 만들어 내는 배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7명의 영아가 있으면 7개의 보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네요!



음, 그렇다면 7명 영아 각각의 배움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7개 보육과정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7개 보육과정을 다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보육과정 실행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잘 보이지 않아요.



7개 보육과정이 생성된다고 해도, 영아는 함께 놀기도 하는데
꼭 7개 보육과정을 모두 따라가야 할까요?
나는 어디서 무얼 해야 하는 걸까요?

7개 보육과정이 생성되고 운영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사례를 한번 보고 싶어요.
사례를 보면서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을 알아봐요.



4

영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



영아는 자신만의 보육내용을 만들어 가고,
교사는 영아가 생성하는 보육내용에 귀 기울이고,
배움을 읽어 지원하며
영아와 함께 보육과정을 만들어 간다.

-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에 교사가 ‘함께’한다는 것은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영아가 생성하는 배움을 이해하여 읽고, 배움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영아가 생성하는 배움에 주목하며 귀 기울이고, 영아의 배움을 5개 영역의 내용으로 연결하여 읽고,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교사가 영아와 ‘함께’ 보육과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는 영아가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배움을 생성하고 자신만의 보육과정을 만들어 가는 유능하고 능동적인 학습자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영아가 생성하는 배움에 주목하고, 국가수준 보육과정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결해서 배움을 읽는다. 영아의 배움을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결하여 읽는 것은 영아가 만들어 가는 배움에 이미 5개 영역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영아의 배움을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결하여 읽음으로써 국가수준 보육과정을 실행하게 된다.
- 교사가 영아와 ‘함께’ 보육과정을 만든다는 것은 교사가 영아의 배움을 따라가며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동반자가 되려면 교사는 영아가 만드는 보육과정을 지켜보기만 하거나 혹은 교사의 계획으로 영아의 배움을 끌어가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영아의 보육과정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영아가 배움을 풍성하게 생성할 기회를 놓칠 수 있고, 교사의 계획으로 영아의 배움을 끌어간다면 영아가 배움을 스스로 생성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가 배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유능하고 능동적인 학습자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며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해야 한다.
- 영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의 의미를 하늬반과 보라반의 사례에서 살펴보자.



1. 하늘반 영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 사례



- 하늘반 영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 사례에서 교사는 영아에게 놀이 자료를 제공하고 영아가 자유롭게 놀이하며 생성하는 배움에 귀를 기울인다. 하늘반 교사는 영아에게 동일한 자료를 제공하고 영아가 주도적으로 놀이하도록 기다리는 것으로 함께하는 보육과정을 시작한다. 그리고 교사는 영아가 각기 다르게 생성하는 배움에 주목하고, 이를 5개 영역으로 연결하여 배움을 읽으며 영아의 배움 확장을 지원하면서 영아와 함께 하늘반 보육과정을 만들어 간다.
- 하늘반 영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 사례에는 이 자료집의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에서 다루는 배움 읽기의 과정에 포함되는 '귀 기울이기', '배움 읽기', '지원하기'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사례에서 귀 기울이기는 교사가 영아에게 놀이 자료를 제공하면서 시작된다.

교사가 제공한 자료로 놀이하는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 귀 기울이기는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생성되는 영아의 경험에 주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영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놀이 경험에 대한 교사의 배움 해석이 포함된다.
- 하늘반 교사의 귀 기울이기는 교사의 지원 계획과 관련된다. 하늘반 영아는 1세 때 유토로 놀이한 경험이 있어, 교사는 유토보다 질감이 단단한 찰흙을 지원하는 계획을 학기 초부터 수립한다. 하늘반 영아에게 동일한 찰흙을 제공하고, 영아가 주도적으로 놀이하며 경험과 배움을 만들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며 귀 기울인다.
- 하늘반 교사는 영아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찰흙과 놀이하는 경험에 주목한다. 하늘반 교사는 영아가 찰흙을 만지는 방식, 예를 들어 찰흙을 스스럼없이 만지고, 손가락으로 찍어 보고, 손바닥에 힘을 주어 만지는 것 등에 주목하며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인다. 또한 영아가 힘을 주어 변형되는 찰흙에 주목하고, 다른 친구의 놀이 경험에 영향을 받아 놀이가 변화하는 모습 등에 귀 기울이며 영아의 배움을 이해한다.
- 하늘반 교사의 '귀 기울이기'의 일환인 놀이기록을 바탕으로 영아가 만드는 보육과정을 따라가 보자.

학기 초에 유토를 경험했던 영아가 질감이 다른 점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찰흙을 큰 덩어리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영아들은 덩어리를 어떻게 만져야 할지 몰라 다가가지 못한다. 그래서 영아가 각자 찰흙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잘라서 제공하자 영아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찰흙을 만지며 놀이하기 시작한다.



현우는 쉽게 찰흙을 손으로 잡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찰흙을 살살 쓸어 보고, 찰흙 위에 손을 살짝 올려 보며 찰흙 표면의 질감을 느낀다.



은서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찰흙을 누른 후 자국을 남겨 살펴보기를 반복한다. 손가락이 만든 자국을 보는 것에 관심이 있다.



지우는 찰흙을 손끝으로 꼬집듯이 잡아 작은 조각으로 떼어 낸다.



은율이 손과 팔로 찰흙을 접으며, 찰흙이 반으로 구부러지도록 힘을 주고 있다. 찰흙의 강도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



은율은 찰흙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두 발을 올려 몸의 무게로 찰흙을 눌러 본다. 발로 찰흙의 강도를 느끼고 있다.



은율을 따라 이산이도 찰흙을 반으로 접어 팔, 어깨, 몸으로 힘을 주어 찰흙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한다.



지서는 이산이가 힘들게 찰흙을 누르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산이의 등을 팔로 눌러 힘을 보탠다. 찰흙을 접으려면 힘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

- 하늘반 교사는 영아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며 영아의 배움이 생성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영아의 경험을 5개 영역의 내용으로 연결하여 읽음으로써 국가수준의 보육내용을 실행한다.
- 다음은 하늘반 교사의 배움 읽기 예시이다.

하늘반 영아의 배움 읽기

현우는 손바닥으로 찰흙을 만지며 찰흙의 매끄러운 표면을 느끼고 있다(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

지우는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세밀히 움직여서 찰흙을 떼어 내는 것을 알아 가고 있다(대소근육을 조절한다).

은서는 손가락으로 찰흙을 누를 때마다 다르게 생기는 움푹 파이는 모양의 변화를 살핀다(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은울이는 손과 팔의 힘으로 찰흙을 누르면서 찰흙이 반으로 접히도록 힘을 가한다(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또 찰흙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몸의 무게로 찰흙이 뭉쳐지는 모양에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본다(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이산이는 은울이가 놀이하는 모습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이를 따라 하며, 찰흙을 팔, 어깨, 몸의 힘으로 놀러 변화를 살핀다(함께 놀이한다,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지서는 힘들어하는 이산이의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팔에 힘을 주어 이산이의 등을 누르며 이산이를 도와준다(대소근육을 조절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배움 이해하며 지원하기

- 하늘반 교사의 배움 읽기는 영아의 배움 지원으로 이어진다. 교사는 영아가 찰흙을 조금씩 떼어 내며 배움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이해하고, 찰흙을 작게 조각 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또한 교사는 영아가 손, 팔, 어깨, 발, 몸 등으로 단단한 찰흙을 변형시켜 보려는 배움을 읽고 바닥에 큰 찰흙 덩어리를 놓아 준다.
- 하늘반 교사는 영아의 경험에 다시 귀 기울인다. 영아는 교사가 제공한 수저와 칼로 찰흙을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 컵에 담고, 요리를 하고, 인형에게 먹여 주는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한다. 또한 책상 위에서 상체의 힘으로만 찰흙을 변형시키던 영아는 찰흙을 발로 밟으며 몸의 무게로 찰흙이 평평해지고 펼쳐지는 것을 경험한다. 교사의 지원으로 영아의 놀이는 바뀌기도 한다. 찰흙을 발로 밟던 영아가 찰흙을 조각 내고 담는 놀이에 참여하고, 찰흙 만지기를 주저하던 영아가 도구로 찰흙을 조각 내는 시도를 한다.
- 다음은 하늘반 교사의 지원으로 달라지는 영아의 경험에 주목하며 작성한 놀이 경험 기록의 예시이다.

하늘반 교사의 지원 후 놀이 경험 기록

찰흙을 조금씩 떼어 내며 배움을 만들어 가고 있기에 찰흙을 작게 조각 낼 수 있도록 소꿉놀이 수저와 칼을 제공하고, 영아의 경험에 다시 귀 기울인다.



찰흙을 처음 주었을 때 놀이지지 않던 서준이는 가위로 찰흙을 작은 조각으로 떼어 내기도 하고 잘라 보기도 하며 찰흙을 경험한다.

은서는 소꿉놀이 수저와 칼을 번갈아 가며 찰흙을 다른 형태로 떼어 내며 이전보다 더 다양한 흔적과 자국을 만들며 그 차이를 살핀다.



찰흙을 발로 밟던 은울이는 포크와 칼로 작게 조각 낸 찰흙을 종이컵에 담고, 가득 찬 종이컵을 바라본다. 찰흙이 한 덩어리가 되어 가는 모습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



찰흙 만지기를 주저하던 현우는 작게 잘린 찰흙을 종이컵에서 아이스크림 콘으로 모두 옮겨 담으며 조금씩 찰흙을 만지고 있다.



서준이는 작게 자른 찰흙을 종이컵에 담고 요리하는 상상을 하며 경험이 확장된다.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지서는 찰흙에 관심을 가지며 음식을 만들고, 인형에게 먹여 주는 시늉을 한다.

영아가 손, 팔, 어깨, 발, 몸 등으로 찰흙을 누르거나 밟으며 배움을 만들어 가는 모습이 보여 바닥에 매트를 깔고 큰 찰흙 덩어리를 제공한다.



책상 위에서 찰흙을 한 덩어리로 합치려고 신체를 조절하던 이산이는 바닥의 찰흙 덩어리에 올라가 발로 계속해서 찰흙을 눌러 단단한 찰흙의 강도를 낮추려고 한다. 이산이는 쉽게 찰흙의 강도가 변하지 않는 것을 느끼지만 놀이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한다.

하늘반 교사가 제공한 찰흙으로 영아는 각자의 보육내용을 생성한다.

교사는 영아의 놀이 경험에 귀 기울이며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결하여 영아의 배움을 읽고

배움을 확장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한다.

교사의 지원으로 영아의 놀이 경험이 풍부해지며,

교사는 영아의 배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영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하늘반**의 보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다.

2. 보라반 영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 사례



- 영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은 영아의 우연한 관심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교사는 영아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자연, 사물, 사람 등을 만나고 세상과 교감하며 만들어지는 흥미와 관심에 귀 기울인다.
- 보라반 영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 사례는 영아가 놀이에서 배움을 만들어 가고 교사가 그 배움을 5개 영역 내용과 연결하여 읽으면서 영아가 다채로운 보육과정을 만들어 가도록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특징이 있다. 보라반 교사가 즉각적이고 풍부하게 배움을 지원한 덕분에 영아의 배움이 생성되는 여정이 생생하고 분명하게 나타난다. 한 달 동안 보라반 영아와 또래, 교사, 공간, 자료 등이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을 볼 수 있다.
- 보라반의 영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에는 ‘귀 기울이기’, ‘배움 읽기’, ‘지원’과 ‘영아 평가’가 나타난다. 이 사례에서 교사는 ‘귀 기울이기’와 ‘배움 읽기’를 ‘영아의 놀이 경험에 귀 기울이며 배움 읽기’로 기록한다. 또한 ‘배움 읽기’와 ‘교사의 배움 지원’을 나란히 제시하여 영아의 배움과 교사의 지원이 동시에 얹히며 보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 준다.
 - ‘영아의 놀이 경험에 귀 기울이며 배움 읽기’는 영아의 놀이 경험에 귀 기울이며 배움을 읽는 것이다. 놀이 경험과 보육내용을 연결하여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례의 배움 읽기에서는 놀이 경험과 배움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 ‘교사의 배움 지원’에는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고 배움을 더 풍부하게 지원하는 공간, 자료, 상호작용 등이 포함된다.

영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보라반



- 5월 첫째 주, 보라반 영아는 산책길에서 만난 나비에 대한 관심을 교실에서도 이어 가며 몸짓과 악기 소리로 나비를 표현한다. 교사는 영아의 놀이 경험에 귀 기울이며 배움을 5개 영역의 내용으로 연결하여 읽고, 배움을 지원한다. 아래는 5월 첫째 주 기록의 예시이다.

5월 첫째 주 영아의 놀이 경험에 귀 기울이며 배움 읽기



보라반 영아는 산책길에서 우연히 본 나비에 관심을 보이고 따라간다.



하민이와 채연이는 양손으로 탬버린을 잡고 팔을 흔들어 나비처럼 움직여 보고, 탬버린 소리의 리듬에 몸을 움직여 즐겁게 춤을 춘다.



호연이는 나비의 날갯짓을 팔을 옆으로 쭉 뻗고 위아래로 움직여 표현한다. 뒤편의 영아들은 탬버린을 흔들고 천을 들어 움직이며 나비의 날갯짓을 표현한다.

교사의 배움 지원(상호작용, 공간과 자료)

- 교사는 우연히 시작된 놀이에서 영아의 배움을 확장시키려면 교사의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놀이에서 영아의 배움을 읽고 어떤 지원을 해야 좋을지 고민한다.



- 나비의 움직임이 있는 그림책을 읽어 주고 싶었으나 나비 그림책이 없자 동물의 움직임이 있는 '내가 고양이라면' 그림책을 영아에게 읽어 준다. 그림책을 읽은 후 도서 공간에 비치해 준다.

- 5월 둘째 주, 보라반 교사는 고양이의 움직임과 소리를 몸짓과 목소리로 표현하는 영아의 놀이 경험에 귀 기울이고,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결하여 배움을 읽고 지원한다. 다음은 교사의 기록 예시이다.

5월 둘째 주 영아의 놀이 경험에 귀 기울이며 배움 읽기

- ‘내가 고양이이라면’ 그림책을 읽은 후 영아의 관심은 나비에서 고양이로 바로 전환되어 고양이의 움직임과 소리를 모방하며 놀이한다.



형우는 네발로 움직이며 울음소리를 내어 고양이를 표현하면서 고양이가 된 것처럼 즐거워하고, 지서는 한 손을 고양이의 앞발처럼 만들어 얼굴을 핥는 흉내를 내며 고양이의 행동을 표현한다.



영호는 손바닥을 입에 대고 핥으며 고양이가 되어 보고, 채연이는 책에서 본 고양이 움직임을 흉내 내 본다.

교사의 배움 지원 (공간과 자료)

- 배움을 읽고 더 풍성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미 지원한 그림책 외에 다른 자료를 고민하고 지원한다.

- ‘내가 고양이이라면’ 그림책은 영아가 고양이가 되어 몸으로 움직임을 상상하며 표현하는 배움을 생성하게 한다. 영아의 배움을 읽고 이해하여 영아가 다양한 동물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동물 머리띠와 꼬리 등 소품을 제공하고, 동물 사진을 벽에 게시해 준다.

- 5월 셋째 주, 보라반 영아는 교사가 제공한 동물 소품과 교실에 있는 천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동물의 움직임을 표현하며 놀이한다. 교사가 지원한 자료에 따라 펭귄, 여우, 뱀과 같은 동물을 표현하며 영아의 배움이 다채로워진다. 또한 영아는 골판지로 만든 길에서 자동차 놀이도 즐긴다. 다음은 교사의 기록 예시이다.

5월 셋째 주 영아의 놀이 경험에 귀 기울이며 배움 읽기

교사의 배움 지원 (공간과 자료)



채연이는 펭귄 가면을 쓰고 꼬리를 달아 펭귄처럼 뒤뉘뒤뉘 걸으면서 “펭귄은 이렇게 걸어요.”라고 말한다. 채연이는 팔을 벌리고 발의 보폭을 작게 하며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조절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펭귄의 움직임을 즐겁게 표현한다.



지서는 여우 꼬리를 달고 엉덩이를 좌우로 움직여 꼬리를 흔들면서 여우가 된 것처럼 걸어 본다.



호연이는 천을 몸에 감싸고 바닥에 엎드려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하며 뱀의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한다.



윤한, 호연, 영호는 골판지 자동차 길을 따라서 자동차를 굴리며, 자동차를 잡은 손으로 골판지의 울퉁불퉁한 특성을 느껴며 알아간다.

채연이는 골판지 길 위에 반원 모양 나무 블록을 올려놓고 자동차가 다리를 건너가면서 달리는 상상을 하며 즐긴다.

지서, 형우는 또래가 자동차를 굴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 가는 거야?”라고 말하며 또래와 함께 놀이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다.

- 영아가 동물이 되어 움직일 때, 영아의 동작을 따라서 움직이며 함께 놀이한다.

- 골판지 길에서 놀이하는 영아의 배움을 읽으면서, 뜯어진 골판지 길을 바꾸어 주고자 영아가 원하는 크기로 자를 수 있는 큰 골판지를 제공한다.

- 5월 넷째 주, 교사가 골판지를 자르려고 펼치자, 영아는 커다란 골판지로 만들어진 공간에 관심을 보인다. 다 음은 영아의 놀이 경험에 귀 기울이며 배움을 읽은 교사의 기록 예시이다.

5월 넷째 주 영아의 놀이 경험에 귀 기울이며 배움 읽기



여우가 되어 놀이하던 지서는 골판지 놀이 공간으로 들어가 “어흥!” 하고 자동차 놀이를 하는 형우와 하민이를 놀래키며 함께 즐거워한다. 형우는 하민이의 등 뒤에 숨어 여우가 된 지서를 피하여 도망가는 상상을 하고, 하민이는 웃으면서 지서처럼 “어흥!” 소리를 내며 사자가 되어 본다.



호연이는 초록색 습자지를 동그랑 게 말아 음식을 만드는 상상을 하며 놀 이하고, 채연이는 모래를 담은 주전자 를 기울이며 흘러내리는 모래를 유심 히 바라본다. 영호는 모래를 손가락으 로 퍼서 컵에 담아 가득 채워 간다.

각기 다른 놀이를 하던 호연, 채연, 영호가 여우가 된 지서를 보고 골판지 놀이 공간으로 들어온다.



호연, 채연, 영호, 형우는 골판지 놀이 공간에 앉아 함께 “췌!” 하는 손동작으로 조용히 몸을 숨기는 상상을 즐긴 다. 지서는 여우 가면 을 벗고 친구들 옆에 앉아 함께 숨는 놀이에 참여한다.

영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에서 영아 평가

- 영아는 보라반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배움을 만들어 간다. 교사는 놀이 경험에서 배움을 읽고 영아의 놀이가 풍부해지도록 지원하면서 영아와 함께 보라반의 보육과정을 만들어 간다. 보라반 교사는 영아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에서 개별 영아의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 한 학기에 걸친 호연이의 배움 읽기에서, 동물을 표현하며 몸 움직이기를 즐기는 호연이가 놀이 경험이 쌓이면서 몸의 움직임이 더 정교해지고 표현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호연이의 의미 있는 변화를 평가로 작성해 본다.

호연이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해하는 평가 예시

몸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호연이는 나비처럼 자신의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뱀처럼 바닥에 엎드려 몸을 구부리고 퍼며 동물을 모방하는 움직임을 즐긴다. 호연이는 점차 움직임을 조절하여 다양한 자세를 만들어 보는 시도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몸의 균형을 잡아 가는 방법을 배우며 자신감을 키워 간다.

보라반의 영아는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나비의 움직임에서 시작하여

각자의 보육내용을 생성한다.

교사는 영아의 놀이 경험에 귀 기울이며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결하여 영아의 배움을 읽고

배움을 확장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한다.

교사의 배움 읽기는 영아의 배움을 더 잘 이해하여

배움을 풍부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교사와 영아는 함께 **보라반**의 보육과정을 만들어 간다.



능동적인 학습자인 2세 영아는 배움을 만들어 가며 보육과정을 만든다.

교사는 영아의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배움을 읽는다.

배움 읽기는 교사의 배움 지원으로 이어지고, 영아의 배움은 더 풍요롭게 생성된다.

교사는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는 평가를 한다.

교사는 영아와 함께 우리 반 보육과정을 만들어 가고
보육과정의 내용을 실행하게 된다.





영아중심 보육과정 실행

1. 보육과정 실행자로서 영아 교사	98
2. 영아와 교사가 함께하는 일과 운영	104
3.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상호작용	138
4.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공간과 자료	154
5. 영아중심 보육과정 실행 평가	180

1

보육과정 실행자로서 영아 교사



보육과정 실행자로서 영아 교사는
영아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토대로 영아가 놀이와 일상에서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배우며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이다.

1. 영아가 더 큰 발걸음을 내딛도록 조력하는 교사



걸음마와 함께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던 0~1세 영아는
2세가 되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한층 큰 발걸음을 내디딘다.

2세 영아는 1세까지 발달한 기본적인 대근육 능력을 바탕으로
더욱 도전적으로 신체활동을 하며 스스로의 능력을 확인하고,
친밀한 성인과의 관계에서 얻은 세상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을 기반으로
주변을 탐색하고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과 자아가 발달함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독립적으로 하려고 시도한다.

교육적 전문성과 따뜻한 애정을 갖춘 영아반 교사는
이처럼 더 큰 발걸음을 내디디려는 영아에게 가장 큰 조력자이다.
마음껏 도전하고 탐구할 환경을 준비해 주는 것,
영아의 생각에 귀 기울이며 독립성을 발휘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때로 주저하거나 실패할 때 힘을 북돋아 주고,
성취하는 순간에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
모두 영아가 새로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도록 돕는 교사의 지원이다.

영아반 교사가 조력한 이 발걸음은,
영아를 독립된 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며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는
평생의 걸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2. 영아의 행복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교사



모든 영아는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영아의 건강한 몸과 마음, 배움과 성장은 행복한 일상에 뿌리내리고 있다.

행복한 일상은 영아가 배우고 성장할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자,
영아의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맥락이기도 하다.
영아는 일상에서 만족감을 느낄 때 활발히 움직이고 탐색하고 주변과 소통하며,
즐거움 일상에서 발견한 흥미와 관심사에서 배운다.

그러므로 영아의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것은
영아반 교사에게 중요한 역할이다.
영아반 교사는 영아에게 만족과 안정을 주는 따뜻한 상호작용,
영아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발휘되는 놀이중심 일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성취의 기쁨을 누리며
영아가 행복한 일상을 보내도록 격려한다.



영아는 놀이하고 성장하며
스스로 자기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 갈 능력을 지닌 존재이며,
영아의 매일은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다른 기쁨, 성취, 배움으로 자라나는 하루이다.
영아반 교사는 이처럼 영아가 매일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가며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한 삶을
가꿔 가도록 지원한다.



3. 영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교사



영아는 놀이와 일상에서 자발적, 주도적으로 배우며 성장한다.

영아반 교사는 영아가 놀이하며 배우는 것을 이해하고
영아의 흥미와 요구에 반응하며 **놀이에서 배우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아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과 성취 경험이
중요한 교육의 일환임을 이해하고 **일상에서도 배우도록** 지원한다.

영아기의 배움은 '현재의 배움'인 동시에
'유아기의 배움'과 '평생 학습자로서의 배움'으로 이어진다.
영아반 교사는 주요한 영아기의 배움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영아의 놀이와 일상에서 다양한 **교육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유연하게 수정하고 **반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영아의 자발성과 주도성이 꽃피는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문가이다.



4. 영아와 함께 성장해 가는 교사



영아반 교사는 영아와 상호 ‘작용’하고 상호 ‘성장’하는 존재이다.

영아는 자신을 둘러싼 경이로운 세상에 대한 탐구와 도전을 하면서
날마다 자라난다.

영아반 교사는 영아가 매일 성장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돕는 존재로서
영아와 함께 성장해 나간다.

영아반 교사는 영아를 교육적으로 지원하도록
끊임없는 고민과 실행,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전문적으로 성장한다.
또한 영아의 삶 속 중요한 위치에 자리매김하여 책임감과 영향력을 발휘하며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교사 자신의 삶도 더 깊고 풍부하게 성숙시켜 나간다.

교사와 영아가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교사와 영아가 서로를 향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뜻한다.
영아는 교사의 교육적 지원 속에서 성장하고,
교사는 영아를 위한 교육적 지원을 모색하면서 성장한다.
또한 교사와 영아가 모두 소중한 인격체로서 사랑과 신뢰를
주고받고, 성장하는 기쁨을 공유하는 가운데 성숙한다.





2

영아와 교사가 함께하는 일과 운영



영아 교사는 영아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일과와 놀이,
일상생활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1. 편안하고 즐거운 일과



교사는 영아가 기관에서 하루를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도록 일과 구성과 운영 평가를 반복적으로 지속해야 하며, 이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

일관성 있는 일과

영아가 일관성 있는 일과의 흐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안정적인 생활 리듬을 갖게 되어 일과에 더 잘 적응하게 되고 신체적·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된다. 교사는 일과의 순서를 일관되게 유지하되, 당일의 날씨, 개별 영아의 기분이나 신체 컨디션, 예상하지 못한 일 등을 고려하여 일과별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절한다.

영아의 일관된 일과

“시간 흐름에 따른
일과의 순서를 이해하는 영아”

[등원하기]

- 도착 후 손 씻기, 양말 벗기, 소지품 넣기

[놀이]

- 놀다가 간식 먹기
- 놀다가 씻거나 기저귀 갈기/화장실 다녀오기

[점심 먹기]

- 놀이하면서 양치하기

[낮잠]

- 놀이하다가 정리하고 낮잠 매트 펴기

[놀이]

- 놀다가 간식 먹기
- 놀다가 씻거나 기저귀 갈기/화장실 다녀오기

[하원하기]

교사의 일관된 일과

“반 운영이 원활하도록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 교사”

[일과 시작]

- 교실 환경 정비 및 공동 담임 교사 간 일과 운영 협의/역할 분담하기
- 스마트 알림장 파악/활용하기
(가정에서 전달하는 일과 중 고려 사항 확인/스마트 알림장은 등원 전, 낮잠 시간대, 등원 이후 교사가 활용 가능)

[일과 진행]

- 각 일과 소요시간 가능하기
- 각 영아의 컨디션 살피기
(예 아프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영아)
- 각 영아의 특성 살피기
(예 급식에 새로운 메뉴가 나오면 먹는 데 시간이 걸리는 영아)
- 그날의 특별한 상황 고려하기
(예 맑거나 비가 오는 날씨, 평소보다 늦어지는 급식 조리, 오전 신체활동으로 특별히 피곤한 영아들)

[일과 마무리]

- 가정으로 전달할 사항 정리하기(공동 담임 교사 간 공유)
- 내일 일과에 반영할 사항 확인하기

다음 일과를 안내받고 기대하는 영아



실외 놀이에서 사용할 자동차 놀잇감을 소개받고 기뻐하는 영아

일과 흐름의 리듬을 형성해 나가는 영아



교사가 알려 주지 않아도 식사 전 손 씻기를 하는 영아



식사 후 교사에게 양치하러 간다고 알리는 영아

영아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일과

영아가 일과 중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놀이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다양한 순간에 영아에게 선택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아가 선택한 놀이를 하면서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영아가 경험할 수 있는 선택 예시

[급·간식]

- 놀이 중 언제 간식을 먹을지
- 어떤 자리에서 먹을지
- 얼마만큼 먹을지 등

[낮잠]

- 어디에 누워서 낮잠을 잘지
- 낮잠에서 먼저 깰 때 휴식을 더 할지, 조용한 놀이를 할지
- 매트 정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지 등

[옷 입고 벗기]

- 개인장의 위치를 어디로 할지
- 이름 대신 어떤 표시를 붙일지(학기 내내 가능한 선택)
- 실외 놀이 후 바로 옷을 벗을지, 조금 더 있다가 벗을지, 어떤 여벌 옷으로 갈아입을지 등

[놀이]

- 누구와 놀이할지
- 어떤 놀이를 할지
- 얼마나 할지
- 같은 놀잇감으로 놀이 방법을 어떻게 바꿀지 등

[손 씻기 및 이 닦기]

- 식사 후 바로 이를 닦을지 또는 놀이 후 조금 뒤에 닦을지(이 닦는 인원이 겹쳐서 순서를 정해야 할 때)
- 손 씻는 시간이나 순서를 어떻게 할지
-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면 무엇을 하며 기다릴지 등

[정리정돈]

- 함께 정리할지, 혼자 정리할지
- 얼마만큼 정리할지, 어디를 정리할지 등

낮잠



자고 싶은 자리를 선택하여
매트를 펴는 영아



더 자고 싶어
늦게 일어나는 영아



일찍 잤을 때 선생님과 그림책을 보기
또는 조용한 놀이하기 중 선택한 영아



식사
이 닦기
전이



원하는 식사 자리를
선택하는 영아



스스로 치약을 짜 보겠다는
영아를 기다려 주는 교사



실외 놀이 나가기 전에 놀이하고 싶은
놀잇감을 가지고 온 영아

영아의 선택이 존중되는 일상생활



영아의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한 일과

일과의 순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영아의 발달 특성과 기질 등을 고려하여 영아의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된 융통성 있는 일과가 운영되어야 한다. 영아가 등원하여 하원할 때까지 대략 9~12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놀이와 일상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교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영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게 된다. 교사는 일과의 전반적인 상황과 영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영아가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

전이 시간에 영아의 기다림을 최소화하려면

[전이 시간을 사전에 안내하기]

- 정리 시간이 되기 전에 정리 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기
- 전이를 어려워하는 영아에게는 개별적으로 먼저 알려 주기

[전이 시간을 전체 집단으로 운영하는 데 얽매이지 말고 융통성 발휘하기]

- 교사가 2명이면 먼저 준비한 인원부터 이동하기

[영아의 성향과 기질 반영하기]

- 특히 손 씻는 데 오래 걸리는 영아는 먼저 손 씻기를 시작하도록 조정하기
- 전이가 어려운 영아의 요구를 반영한 대안 찾기(예 실외 놀이에 원하는 놀잇감 가져가기)

[완벽하게 정리하지 말고 적절하게 정리하기]

- 실외 놀이 후 실내 놀이를 다시 하는 경우, 최소한만 정리하기

영아별
일과 진행
속도 고려



먼저 준비된 영아부터 유嬉실로 보내고
개별 지원이 필요한 영아는 나중에 이동시키는 교사



신발을 먼저 신은 영아부터 실외로 가게 하고
시간이 더 필요한 영아를 지원하는 교사



식사를 먼저 마치고
그림책을 보는 영아



간식을 천천히 먹은 후
놀이를 시작하는 영아

실외 놀이터로 나가기 전 전이가 어려운 영아에게
놀잇감을 선택하여 실외로 나가게 제안하는 교사



실외 놀이터로 이동하기 전 정리 시간을 안내하려고
모래시계를 보여 주는 교사

영아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일과

일과 중 영아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은 영아중심의 일과를 운영하는 데 주요한 고려 사항이다. 예를 들어, 개별 영아의 다양한 발달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을 지도하거나 기질을 고려하여 영아마다 적절하게 상호작용하고, 놀이 선호와 성향을 반영하여 놀이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또한 교사는 영아가 보내는 신호를 잘 파악하도록 민감성을 발휘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아의 행동이나 표정에 빠르게 반응하고, 개별 영아의 흥미 및 놀이 지속 시간을 이해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영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반응하며, 휴식이 필요해 보이는 영아에게 휴식하도록 돕는 것 등이 해당된다.



스스로 양말을 신는 영아와
교사에게 신겨 달라는 영아

부모에게 영아 스스로 신기에
적합한 양말 준비를 안내하는 교사



개별
흥미와
성향을
고려한
배변 훈련

변기에 친숙해지는 단계에서
부착된 스티커를 살펴보는 영아



변기를 사용하는 단계이지만 교사에게 먼저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영아/화장실에 가고
싫어 하는 영아의 의사를 알아차리고 물어보는 교사

개별
성향을
고려한
교사의
지원

도움을 청하지 않는 성향을 지닌 영아가 공놀이 중
옷소매가 불편함을 발견하고 도움을 주는 교사



일과 중 컨디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아가
피곤해 보이자 휴식을 제안하는 교사



일상생활 지도가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일과

영아의 개별적인 발달을 고려한 일상생활 지도가 일과 중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운영되도록 한다. 교사는 영아가 손을 씻으려고 옷소매를 내리거나 올릴 때, 소지품을 개별 서랍장에 정리할 때, 배변 시 하의를 올리거나 내릴 때 등의 상황에서 영아의 특성과 발달 정도에 맞춰 일상생활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교사는 영아의 현재 발달을 관찰한 후 조금 더 확장된 경험을 해 보도록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교사가 해 주기 보다는 영아가 직접 해 보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기다려 주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또한 영아가 일과 중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을 놀이에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옷 입기에 관심이 많은 영아에게 단추 끼우기 놀이를 제공하거나, 음식의 선호와 비선호의 구분이 명확한 영아에게 식물 야채류 탐색 놀이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놀이를 하며 비선호 음식과 친숙해지기



평소 먹기 힘들어하는 채소이지만
놀이로 채소의 이름과 색,
식감 등을 즐겁게 경험하는 영아

놀이를 하며 자조 기술 함양하기

소근육 발달을 돕는 놀이 중 좋아하는 놀이를
선택하여 집중하는 영아



일과 중 개별 영아의 일상생활 지도 계획 예시 [양말 신기]

영아명	영아 특성	현재	계획
		양말 신기	일과 중 놀이 연계 지원 계획
나달님	스스로 양말 신기를 시도하나, 양말의 방향을 구별하기 어려움	양말 입구에 엄지손가락을 넣어 스스로 양말을 신을 수 있으나, 양말의 방향을 구별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과 연계하여, 발등에 그림이 있거나 뒤꿈치 색이 구분되어 있는 양말 준비하기 - 놀이로 공간 지각 능력 발달 지원하기 (예: 같은 그림 찾기하기, 퍼즐 맞춰 보기 등)
유하늘	소근육 조절은 능숙하나, 대근육 움직임이 불안정한 편임	양말 입구를 벌려 양말을 신기를 시도하나, 한 무릎을 세워서 균형 잡기를 어려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으로 양말을 신을 수 있는 공간 지원하기 (예: 벽이나 방의 코너, 등받이가 있는 낮은 의자에 앉아서 양말 신어 보기 등) - 안정적인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는 대근육 조절 놀이 지원하기(예: 징검다리 건너 보기 등)

영아의 안전을 고려하는 일과

영아가 주도적으로 즐겁게 놀면서도 안전한 하루를 보내도록 안전과 관련된 교사의 지원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영아의 동선에 방해되거나 놀잇감이 바닥에 많으면 안전을 고려하여 공간을 정비하고, 블록 던지기 놀이를 하는 영아에게 골대를 제시하여 안전한 놀이로 전환하게 하고, 또래 간 갈등 시 교사가 적절히 개입하여 해당 상황에 필요한 사회적 언어를 영아가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영아에게는 일상과 놀이 중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경험하며 안전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놀이와 일상의 맥락에서 영아의 말과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영아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방향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시간, 공간, 자료의 활용 측면에서 지원하고 상호 작용한다.

놀이
육구를
존중



교실에서 뛰어다니며 신체를 움직이는 영아에게
안전하게 신체를 움직이도록 매트를 제공



바닥에 공을 던져서 지나가는 영아들의 안전이 우려되자,
교사가 시트지를 벽면에 부착하여
벽으로 공을 던질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으로 재구성

영아의
안전을
고려해
이동
시간
조정



실외로 나가려고 이동하다가 다른 반과 동선이 겹쳐
현관이 복잡해지자, 혼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잠시 손유희로 이동 시간을 조정



예방접종 후 팔을 가리키며 주사 맞은 경험을
표현하는 영아에게 반응해 주는 교사



환절기 감기에 걸리거나 예방접종을 한 영아가 늘어나면서
병원에서의 경험을 표현해 보도록 소품을 제공하자
자연스럽게 병원 놀이를 하는 영아

2. 즐거운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는 등원

등원은 기관에서 보내는 하루의 시작이자 관계가 시작되는 시간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예: 날씨, 영아의 컨디션). 따라서 교사는 영아를 반갑게 맞이하며 영아의 건강 상태를 민감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 부모와 필요한 소통을 나눠야 하지만 부모와 소통하는 데만 치중되지 않도록 스마트 알림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컴퓨터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등원 전이나 낮잠 시간대, 하원 이후에 교사가 사용

등원 시간을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 반갑게 인사 나누기
- 교사가 2명 이상이라면 놀이 시작 지원과 등원 지도로 역할을 분담하되, 오는 영아가 없어도 등원 지도를 위해 교실 입구에서 대기하도록 함
- 정서 지지하기(영아의 적응 고려하기)
 - 영아의 적응은 신학기 외에도 컨디션이나 가정 상황에 따라 일 년 내내 진행될 수 있음(예: 장기간 부모의 출장이 나 동생 출생 이후 등원 시 분리의 어려움 등)
 - 특정한 상황으로 부모와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교사의 판단에 따라 부모가 교실에 들어와 영아가 안정적인 하루를 시작하도록 할 수 있음
- 부모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 반 운영 및 영아에게 집중하도록 최대한 스마트 알림장(예: 컨디션, 투약 여부, 준비물)으로 부모와 소통함
 - 부모는 영아의 컨디션이나 투약 여부를 스마트 알림장에 남기고, 교사가 주요하게 알아야 하는 내용은 간단히 전달함
 - 기관으로 가져와야 할 준비물이나 주요한 전달 사항 중 긴 시간 안내가 필요한 내용은 스마트 알림장을 활용하거나 일과 중 유선으로 전달함(낮잠 시간대 이용)
- 주요 발달과업과 일상생활 지도를 가정과 연계하기
 - 배변 훈련을 하는 영아라면 가정에서 진행된 사항을 확인하여 소통함
- 자연스럽게 교실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 마련하기
-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기
 - 소지품 정리, 손 씻기, 양말 벗기 등



배변 훈련 과정에서
팬티를 자랑하며 가지고 오는
영아를 반갑게 맞이함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소지품을 개별 서랍장에
정리하도록 격려함



전날 만들었던 블록 구성물을
보이는 곳에 두고 전날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교실로 들어오도록 함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하는 하원

하원 시간은 영아가 내일을 기대하면서 즐겁게 귀가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둔다(예 “오늘 못다 만든 것은 여기에 두고 내일 와서 또 하자! 내일도 물고기가 기다릴 테니 와서 밥을 주자!”). 등원 때와 마찬가지로 귀가 시에도 부모에게 말로 직접 전달해야 하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스마트 알림장으로 전달한다. 알림장에는 영아의 의미 있는 대화나 즐겁게 했던 오늘의 놀이, 배변 훈련 진행 상황, 가정에서 연계가 필요한 사항, 또래 간 갈등 사항, 필요한 여벌 옷 등의 준비물을 안내할 수 있다.

즐거운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가 되는 등·하원



하원 시간을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 영아가 한 놀이를 전달하기보다는 놀이의 의미를 전달하기
- 귀가 전에 차분하게 앉아서 조용한 놀이만 하게 하는 것보다는 귀가 전까지 놀게 하기
- 영아와 놀던 것을 모두 치우기보다는 내일의 기대를 갖도록 놀던 것 중 일부를 남겨 두기
- 부모를 만족시키려고 씻기고 머리 빗기기보다는 영아 스스로 거울을 보며 씻어 보도록 하기
- 전달 사항을 모두 부모에게 말로 전달하기보다는 스마트 알림장을 적절히 활용하고 주요한 사항만 직접 전달하기

3. 영아가 주도하고 교사가 지원하는 놀이



영아는 놀이에서 즐겁게 배움을 경험한다. 영아에게 배움이 일어나는 의미 있는 놀이를 하게 하려면 교사는 영아의 놀이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반영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놀이

영아가 자연스럽게 또는 자발적으로 놀이를 시작하려면 교사가 영아의 흥미에 민감성과 반응성을 갖고 놀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별 영아의 관찰기록을 토대로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 현재 영아의 시선과 반응에 집중하는 것, 놀이 공간 구성 시 개별 영아의 흥미를 반영하여 놀이 시작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영아의 경험과 연계된 매력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영아가 놀이를 자연스럽게 또는 자발적으로 시작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뭇잎으로 만든 길



전날 주워 온 나뭇잎 길 위를 지나며
자연스럽게 놀이를 시작하는 영아



나뭇잎 돛자리 위에서
자연물로 놀이하는 영아

영아가 실외에서 주워 온 나뭇잎과 시트지로 실내에 새롭게 길을 만들고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놀이를 심화해 나감

영아들이 끼적인 모양
종이 모빌을 교실에 게시



내가 만든 또는 내가 좋아하는 모양
종이 모빌을 탐색하는 영아



종이 모빌을 손으로 치며
움직임을 탐색하는 영아



영아가 끼적이거나 자른 모양 종이를 모아 모빌 형태로 교실에 매달아 주자,
자신이 만든 모양 종이를 찾으며 다양한 탐색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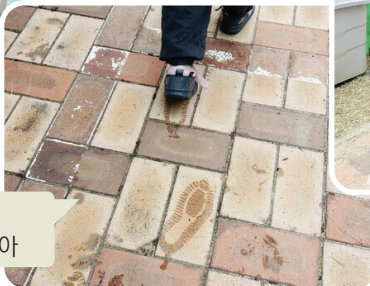
우연한 기회로 시작되어 발전하는 놀이

영아에게 우연한 기회로 시작되어 발전하는 놀이는 영아의 흥미와 관심이 바탕이 되기에 그 놀이는 영아의 내
적 동기가 극대화된 의미 있는 놀이일 수 있다. 영아가 경험한 우연한 사건에서 영아가 즐겁게 놀면서 배울 수 있
도록 교사는 영아가 흥미를 보이며 다가서는 순간이나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의미 있는 지원 방향을 모색한다.

물웅덩이를 우연히 발견한 영아



물웅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온 영아



발자국이 생긴 것을
발견한 영아와 교사





점프하며 발자국을 만들어 보는 영아



모래 놀이터에서도 물웅덩이를 찾은 영아



선생님과 자기 발자국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 영아



물웅덩이에 발을 넣어 보는 영아

우연한 기회에 발견한 물웅덩이에 영아의 관심이 시작되어
발자국 찍기, 찍힌 모양 보기, 찍힌 모양의 크기 비교하기 등이 포함된 놀이로 발전

물웅덩이 발견으로 시작된 놀이에서의 배움 읽기

비가 온 후 산책을 나갔다가 물웅덩이를 우연히 발견(자연탐구-주변 환경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하고 신나게 다니다가 한수는 친구들과 함께 물웅덩이를 성큼성큼 밟고 지나갔다(신체운동-건강-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한수는 물웅덩이에서 나와 지나가는 자리에 발자국이 찍히자 신기해하며 한참 동안 탐색과 측정을 이어 나갔다(자연탐구-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한수는 물웅덩이에서 발자국 찍기를 반복하고 충분히 살펴봄, 발자국의 크기나 신발 바닥의 모양에 따라 다른 무늬를 발견하고(자연탐구-사물을 갖고 다룸에 따라 구분한다) 선생님과 또래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다(의사소통-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한수는 다른 영아가 찍어 놓은 발자국을 살펴보다가 직접 자신의 발자국을 찍어 보기도 하고, 걸어서 물웅덩이를 지나가 보기도 하고, 점프하여 지나가며 발자국을 여러 개 만들어 보는 놀이를 하며 또래와 함께 웃는다(자연탐구-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신체운동-건강-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사회관계-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우연한 기회로 시작되어 발전하는 놀이



주도적으로 하는 놀이

영아의 주도적인 놀이는 특별히 정해진 방식이나 놀이 지속 시간에 제약 없이 영아의 선택과 방법으로 놀이하는 것이다. 놀이가 영아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사는 영아가 원하는 놀이의 유형, 주제, 흥미, 자료 등을 관찰해 우선 파악하고, 이에 반응적인 태도로 놀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교사는 놀이 과정에서 영아의 주도성을 존중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영아 주도 놀이

[영아가 컵 두 개를 가지고 노는 의도]

- 컵 두 개로 소리 탐색 놀이
- 컵 모아 쌓기 놀이

[영아가 옆드려 미니카를 바닥에 밀고 노는 의도]

- 자동차의 바퀴 모양과 움직임을 탐색하는 놀이

[영아가 색 사인펜으로 흰 점토에 물들이고 노는 의도]

- 흰 점토의 색 변화가 신기하여 반복하여 물들이기
- 색이 손가락에 묻어 변화되는 손가락 탐색 놀이

교사 주도 놀이

- 주스 가게 놀이 제안하기
- 무슨 맛 주스인지 질문하기

- 어디 가는지 질문하기(자동차 기능을 중심으로 질문)
- 선생님과 경주 제안하기

- 밀대와 도구를 추가로 제시하며 떡 가게 놀이 제안하기
- 점토로 과일 모양 만들기 시범을 보이며 과일 만들기 제안하기



높이 쌓고 싶을 때 주도적으로
화장실에서 발판을 가지고 와서
안전하게 높이 쌓는 영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종이
조각을 탐색하는 영아



종이 조각을
덤프트럭에 담는 영아





종이 조각과 그릇을 활용한
놀이를 시작한 영아



종이 조각을 물통에 담아
색깔 음료를 만드는 영아



교사의 제언 없이 종이로
비 내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영아

탐색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는 놀이

발달 특성상 사람이나 환경에 적응하고 탐색하는 등 놀이 시작 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영아에게 탐색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탐색함으로써 영아는 다양한 의미를 찾거나 스스로 놀이를 발전시켜 나간다.



다양한 방법으로 상자를 충분히 탐색해 나가는 영아
(상자에 놀잇감 넣기, 상자에 들어가 보기, 상자에 뚫린 모양대로 신체 통과하는 방법 찾아내기)



상자를 탐색하다가 위치를 바꿔 보고, 자동차를 굴리면서 상자뿐 아니라 책상으로
경사로를 만드는 영아 → 충분히 탐색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놀이로 발전되어 감

실외 놀이가 실내로 연결되면서
탐색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한 놀이



집단 활동처럼 진행되지 않는 놀이

영아기는 각 개인 영아의 경험, 흥미, 관심사, 성향, 기질, 발달 속도 등이 모두 다르며 개인차가 특히 큰 시기이므로 교사는 일상과 놀이의 구분 없이 필요한 순간에 개별적으로 영아를 지원해야 한다. 때로 교사가 준비한 놀이(예 풍선 날려 보기, 유니바 뛰어넘기, 바구니에 공 던져 넣기)를 할 때도 모든 영아를 참여하게 하는 집단 활동처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집단 활동 형태로 놀이가 진행되지 않게 하려면 교사는 영아의 개별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해야 한다.



신체 표현 음악을 들려주면 자연스럽게 여러
영아가 모여 집단 활동처럼 되기도 하지만,
원하지 않는 영아는 다른 놀이를 할 수 있음



유희실에서 교사가 준비한 유니바 넘기 신체 놀이
외에도 영아는 자신이 원하는 놀이
(징검다리 건너기, 매트에서 뛰어놀기 등)를 선택할 수 있음

4. 즐겁게 변화되어 가는 일상생활 지원 및 운영



즐겁게 변화되어 가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

영아가 일상생활을 즐겁게 경험하려면 일과 중 도전하고 성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능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는 영아의 자조 기술 발달을 적절히 지원하여 주도성을 갖도록 돕고, 개별성을 존중하여 영아가 자연스럽게 배우고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영아가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2세 영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의 경험

- 급·간식
- 낮잠 및 휴식
- 손 씻기와 이 닦기
- 옷 입고 벗기
- 배변 훈련 및 화장실 다녀오기
- 정리·정돈



교사의 지원

- 개별성을 존중하여 충분히 기다려 주기
- 스스로 하도록 더 많은 기회 제공하기
- 새로운 시도 격려하기
- 자연스러운 배움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기
-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하기



성장하는 영아

- | 추구하는 인간상 |**
- 건강한 사람
 - 자주적인 사람
 - 창의적인 사람
 - 감성이 풍부한 사람
 - 더불어 사는 사람



교사의 지원: 개별성을 존중하여 충분히 기다려 주기

일상생활에 포함되는 급·간식, 낮잠과 휴식, 손 씻기와 이 닦기, 배변 훈련 및 화장실 다녀오기를 영아의 신체 리듬, 기질과 기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운영함으로써 영아들이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도록 한다. 교사는 사전에 계획된 일과에 영아의 리듬을 맞추거나, 빨리 마쳐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관습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개별 영아의 요구를 반영하여 영아가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경험하도록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인정해 주고 충분히 기다려 주며 지원한다.

신체 리듬



컨디션을 고려하여 놀이 중 휴식하도록 지원하는 교사

잠이 깰 때까지
영아를 안고 기다려 주는 교사



기질

기관에서 낮잠 자기를 낫설어하는 영아를 위해 애착 인형을 가지고 잠들도록 지원하는 교사



촉감이 예민한 영아를 위해
손을 소독하는 또래를 관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사



교사의 지원: 스스로 하도록 더 많은 기회제공하기

영아는 일상의 전 과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과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교사는 영아가 일상생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역량이 있음을 신뢰하고, 영아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도움을 주되, 점진적으로 지원을 감소시켜 스스로 경험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돕는다.

언어적·비언어적 모델링



낮잠 매트 정리를 시도하는 영아에게
말과 행동으로 시범 보이는 교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이 닦는 방법을 안내하는 교사



발달을 고려한 도전 기회 제공



지퍼 끝부분을 채워 주고
스스로 올려 볼 기회를 제공하는 교사

이불 가방의 지퍼를 잠가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사





교사의 지원: 새로운 시도 격려하기

영아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탐색하는 새로운 시도와 스스로를 조절하여 성공하는 경험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영아가 즐거우면 일상의 다양한 순간이 놀이처럼 느껴질 수 있으므로 교사는 영아의 새로운 시도와 탐색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언어적·비언어적으로 격려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놀이로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새로운
시도와
탐색
격려



간단한 그림이나 표시를 보고
치약과 칫솔, 컵을 찾아보는 영아



자신의 양치 컵을 찾아내어
기뻐하는 영아를 격려하는 교사



간식으로 껌을 먹은 후
껌의 향기, 껌질 등을 탐색하는 영아



스스로 옷 입고 벗기를
시도하는 영아를 격려하는 교사

교사의
새로운
시도
모델링



다양한 방식으로 먹는 경험(식탁보나 1인용 매트 깔고 먹기, 우연히 생긴 꽃바구니를 가운데 두고 먹기 등)을 하는 영아



일상
생활과
흥미가
반영된
놀이
연계



[옷 입고 벗기가 인형 돌보기 놀이로 연계]
'인형 돌보기(옷 입고 벗기 등)'
놀이를 즐기는 영아

[물놀이 후 씻기가 목욕탕 놀이로 연계]
'목욕탕에서 씻기' 놀이를 즐기는 영아





교사의 지원: 자연스러운 배움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기

영아가 일상에서 하는 먹기, 자기, 씻기, 옷 입고 벗기, 배변 훈련과 같은 일련의 경험은 모두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배움은 '영아의 다양한 욕구에 바람직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한 결과'로 일어난다. 교사는 영아가 일상생활의 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변의 사물이나 사람과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고 즐기는 영아

적절한 도구로 적당량의
음식을 스스로 먹는 영아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교사, 또래와 이야기 나누는 영아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 예시]

점심시간에 도현이는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해 스스로 음식을 먹는다(신체운동·건강-대소근육을 조절한다).



포크로 음식을 찍어(신체운동·건강-대소근육을 조절한다) 향을 맡으며(신체운동·건강-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 “좋은 냄새가 나.”라고 말하고(의사소통-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입에 넣어 천천히 씹어 본다(신체운동·건강-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

도현이는 음식을 씹으며 “소리가 나는 것 같아.”라고 윤서를 쳐다보고 이야기한다(의사소통-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주먹밥에 들어 있는 알록달록한 색깔과 동그랗고 기다란 채소에 관심을 갖고(자연탐구-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참기름의 향을 반복하여 맡는 것을 즐긴다(신체운동·건강-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



교사의 지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하기

영아의 일상생활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진다. 신체,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이 이루어져야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조 기술이 발달하므로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두르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린 시기에 장시간 기관에 머무는 영아에게는, 일상생활이 학기 초 적응 기간에 빨리 마무리되어야 하는 과업이 아니라, 양질의 경험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기 초에 영아와 함께 놀잇감을 정리하는 교사



영아가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교사



영아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격려하는 교사

즐겁게 변화되어 가는 일상생활 운영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영아가 일상생활을 즐겁게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을 보여 주는 운영 예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급·간식

교사는 영아가 또래와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하는 경험을 하게 해 주어 자신이 먹을 양을 조절하거나 새로운 음식 먹는 것을 시도하는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때 교사는 서두르지 않고 영아의 식습관, 식사 속도, 식사량을 고려하여 즐겁게 먹도록 돕고, 식사 준비부터 정리하는 모든 과정에 영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식습관,
식사 속도,
식사량이
다양한 영아



또래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음식 먹기를
시도해 보는 영아



교사 지원

리듬을
존중하면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교사

식사 준비와
정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영아



떨어진 음식을 정리하는 영아

식기 도구를 정리하는 영아



교사 지원

스스로 하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교사

식사 시간을
새롭게
경험하는 영아



동생 반에서 함께 먹으며
즐거운 경험을 하는 영아



음식점에서 서빙하듯이
놀이하면서 먹는 영아

교사 지원

새로운 방법으로
즐겁게 먹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사

사회적 관계와
약속을
경험하는 영아



또래와 함께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영아



조리사님께 감사 인사를
하는 영아

교사 지원

자연스러운
배움을 지원하는
교사



손 씻기와 이 닦기

교사는 영아가 하루 일과 중 몇 차례 손 씻기 시간(화장실 다녀온 후, 바깥 놀이 후, 미술 놀이 등 놀이 특성에 따라)과 점심 먹은 후 이 닦기 시간이 있음을 이해하도록 지원한다. 교사는 영아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움의 정도를 점차 줄여 나감으로써 영아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늘려 가도록 돕는다.

스스로
청결함을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영아



간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영아



영아가 스스로 이 닦기를 한 후
마무리 양치만 도와주는 교사

교사 지원

개별 영아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교사

탐색을 즐기며
손을 씻는 영아

손에 묻은 물감을 탐색하며
씻는 경험을 하는 영아



비누 거품의 향과 촉감을 느끼며
탐색하는 영아

교사 지원

새로운 시도와
탐색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교사

놀이와
탐색 시간을
충분히 경험하는
영아



공동 담임인 경우,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할 때
역할을 분담하여 영아가 기다리는 시간 최소화하기

교사 지원

더 많은 배움이
일어나도록
융통성 있게
일과를
운영하는 교사



옷 입고 벗기

교사는 개인의 발달을 고려하여 영아가 자기 옷을 찾거나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하여 스스로 적절한 옷을 입고 벗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하며 지원한다. 입기보다 벗기가 쉬우므로 벗기를 먼저 지도한 후(예 신발 → 양말 → 겹옷 등), 영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옷을 입고 벗는 과정 일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영아



실내에서 외투를 입고
놀이하고 싶어 하는 영아

교사 지원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주며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지원하는 교사

또래에 비해 겹옷을 입는
속도가 느린 영아



옷 입고 벗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영아



개인장에서 스스로
양말을 꺼내는 영아

교사 지원

또래 간
상호작용을
격려하는 교사

또래의 도움으로
옷을 벗는 영아



옷 입고 벗는
놀이를 경험하는
영아



놀이용 옷(의상)
입고 벗기를 즐기는 영아



일상생활 교구(단추, 끈 끼우기)
놀이를 하는 영아

교사 지원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배움이
일어나도록
지원하는 교사

스스로 하는
비중을 점차
늘려 가는 영아



스스로 옷걸이에
옷을 걸어 정리하는 영아



교사와 함께 옷걸이에
옷을 걸어 보는 영아

교사 지원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하는 교사



배변 훈련 및 화장실 다녀오기

교사는 영아의 월령과 준비 정도, 개인차를 고려하여 배변 경험이 스트레스가 아닌 일상의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행위가 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스스로 배변을 조절하여 성공하는 경험이 영아가 건강한 배변 습관을 형성하고 자율성과 성취감을 느끼는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지원한다.

배변 훈련
경험을 통해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영아



변기와 친해지려고
앉아 보는 경험을 하는 영아

교사의 어깨를 잡고 서서
팬티형 기저귀를 가는 영아



교사 지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주는
교사

배변 신호를
느끼고 변기에
소변 보기를
시도하는 영아



화장실 변기 사용에 점차
익숙해지는 영아

교사 지원

영아의 월령,
준비 정도,
개인차를
고려하여
지원하는 교사

배변 훈련과
관련된 놀이를
즐기는 영아



배변 훈련에 관한 그림책과
놀이를 경험하는 영아



교사 지원

즐거운
배변 훈련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사





낮잠 및 휴식

교사는 영아의 개별적 특성에 맞춰 편안하게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해 주고, 영아의 낮잠 습관을 고려하여 지원한다(예 애착물 필요 여부, 자기 전에 울거나 깨서 울기, 잠들기까지의 시간, 특정 자세 등). 또한 낮잠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전 과정에 영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낮잠과
휴식 시간을
즐기는 영아



영아가 잠들 때까지 곁에서
토닥여 주는 교사

잠들기 어려워하는 영아에게
그림책을 읽어 주는 교사



교사 지원

영아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지원 하는 교사

스스로
침구 정리를
시도하는
영아



이불 매트를 개어 정리하는
영아를 격려하는 교사



교사 지원

도움 정도를
조절하여
지원하는 교사

즐거운
낮잠 시간을
경험하는 영아



매트에 누워 블라인드에
쏘여진 빔을 가리키며
낮잠 잘 준비를 하는 영아

교사 지원

놀이처럼 즐거운
낮잠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교사

즐겁게 변화되어 가는 일상_낮잠 및 휴식





정리·정돈

교사는 영아가 일과 중 몇 차례 정리·정돈하는 시간이 있고, 놀잇감을 놓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정리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이때 교사는 다음에 이어지는 일과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리·정돈이 꼭 필요한지 판단하여 정리·정돈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아의 수준에 적절하게 신속히 치울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여 영아가 성취감을 느끼도록 지원할 수 있다.

융통성 있는
정리·정돈을
경험하는 영아



놀잇감을 모두 정리하지 않고 놀이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최소한만 정리한 교실

교사 지원

정리·정돈
횟수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는 교사

자신이 놀이한
놀잇감을
정리하는 영아



사용과 정리가 용이하도록 구비되어 있는 놀이 자료

교사 지원

영아가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자료를
지원하는 교사

새로운
정리·정돈 방식을
즐기는 영아



탐색하며 놀이하던 나뭇잎을
큰 바구니에 담으며
정리·정돈을 즐기는 영아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놀이를 하며
놀잇감을 정리하는 영아



교사 지원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처럼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교사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상호작용



영아 교사는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가장 적절한 순간과
지원 방법을 선택하여 상호작용한다.

1. 관찰



관찰은 영아의 배움에 대한 교사의 지원 여부와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교사는 관찰한 영아의 경험을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 내용 범위와 내용, 지향하는 인간상 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고, 지원할 만한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경험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2세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를 지원하고자 관찰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관찰할 때 특히 '이런 점'을 고려해 주세요.



의미 있는 관찰이란

-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배움이 일어나는 맥락을 포착하여 지원하도록 '가능성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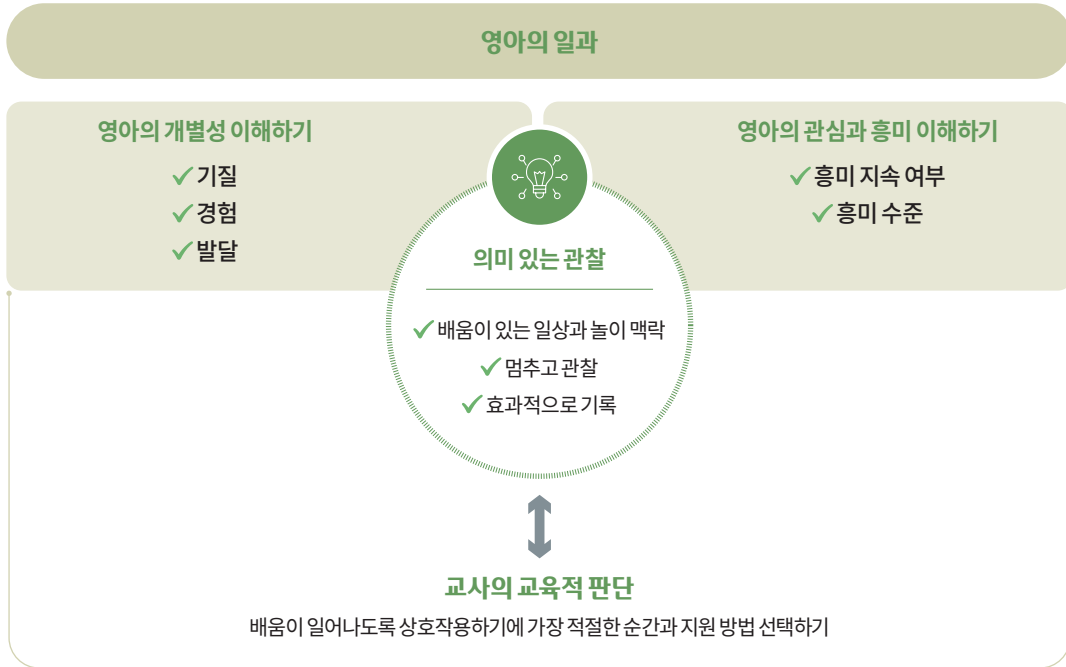
의미 있는 관찰을 하려면

- 일단 멈추고 관찰하기
 - 즉각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기
 - 무조건적으로 개입하여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를 방해하지 않기
- 일과 전반의 맥락에서 관찰하기
- 특정한 경우(상황/영아)만 관찰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 관찰한 내용(영아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기록하기
- 영아의 개별적 특성과 흥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하기



관찰을 토대로 교육적 판단

- '의미 있는 관찰'을 토대로 교육적 판단 하기
 - 자연스러운 배움이 일어나도록 적절하게 지원할 순간 포착하기
 - 관찰한 영아의 경험을 표준보육과정의 영역과 내용 범위(내용), 추구하는 인간상 등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해석하기
 - 관찰한 상황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의사결정 하기
 - 다양한 지원 방향과 내용, 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 선택하기



교사가 관찰을 토대로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영아는 주체성을 가지고 보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즉 교사의 관찰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배움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게 하고, 영아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의 시작이자 변화의 계기가 되므로 영아의 놀이와 성장(학습)을 연결해 주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가 모든 영아의 일과를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황에서 ‘의미 있는 상황’을 선택하여 관찰해야 한다.

놀이에서 관찰되는 ‘영아의 개별성과 흥미’ 예시

기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놀이 자료
접근 방식



새로운 놀이 자료에
별다른 관심과 흥미를 보이지 않는 영아



새로운 놀이 자료에 관심을 보이며
즉각적으로 탐색하는 영아



새로운 놀이 자료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해소되는 영아
(새로운 자료에 거부감이 있어 놀잇감 주위를 돌면서 탐색하다가
한참 지켜본 후 탐색을 시작하는 영아)

사전 경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놀이 행동



캠핑 다녀온 경험을 회상하며
마시멜로와 고기를 굽는 영아



(캠핑에 관한 사전 경험 없음)
자동차 굴리는 놀이를 하는 영아

기질과
발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놀이 유형

혼자 놀이
혼자 놀이하는 영아



병행 놀이
같은 공간에서 놀이하지만 각자의 놀이에
몰입하여 상호작용하지 않는 영아



연합 놀이
각자 놀이하다가 짧은 시간이지만
관심이 공유되면서 함께 놀이하는 영아



관심과
흥미에 따른
다양한
탐색 방법

삼각 블록 위에서 자동차
굴리기에 흥미를 보이는 영아



삼각 블록에 숨 공을 담아
탐색하는 영아



삼각 블록 위에 올라서서 대소근육 움직임
(건기, 균형 잡기 등)에 흥미를 갖는 영아



1. 상호작용



질문부터 하기보다는 영아의 행동 읽어 주기

영아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교사는 영아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려고 다가가서 질문부터 하는 경향이 있다. 교사가 관찰해서 영아의 흥미와 관심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영아에게 직접 들어서 알아내려는 것이다. 그러나 영아는 다양한 이유로 교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 계속 질문하기보다는 영아의 행동을 말로 표현해 준다면 영아의 대답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영아의 배움 또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럴 때 ‘영아의 행동 읽어 주기’를 해 보세요.

영아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고 싶을 때

영아를 관찰하는 방법의 하나로 쓰고 싶을 때

영아가 자신의 놀이를 생각해 보도록 지원하고 싶을 때

영아가 자신이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언어적 표현 능력이 부족할 때



‘영아의 행동 읽어 주기’를 토대로 한 교사 지원 예시

과다한 질문부터 하는 교사

교사: 사랑이 뭐해?

사랑: ...

교사: 뭐 하는데~ 선생님한테 말해 줄래?

사랑: 몰라요.

교사: 선생님은 사랑이가 무슨 놀이 하는지 궁금한데.

사랑: (고개를 흔들며 싫다는 듯) 아, 이아...



영아의 행동을 읽어 주는 교사

교사: 인형이 누워 있네.

사랑: ... (고개만 끄덕임)

교사: 포대기도 있네!

사랑: 인형 (끈을 가리키며) 이거로 ...

교사: 아! 포대기 끈으로?

사랑: (작은 목소리로) 포대기 끈 ...

교사: 인형을 포대기에 눕혔고 끈으로 ...

사랑: (인형과 포대기 끈을 가리키며) 덮어.

교사: 인형을 포대기 끈으로 덮는 거구나!

사랑: (잠시 생각 후 새로운 생각이 난 듯 자신의 등을 치며) 여기에, 등에 올려줘.

교사: 인형을 포대기로 싸서 업고 싶구나!

함께 놀이기

교사는 영아들과 함께 놀이한다. 영아들이 참여를 요청하기도 하고, 교사가 영아의 놀이에 스스로 참여하여 함께 놀이하기도 한다. 영아와 함께 놀이하는 것은 영아의 배움을 지원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으로써, 언제나 시도할 수 있으며 이로써 영아에게 다양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알려 줄 수 있다. 그러나 교사가 함께 놀이하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교사의 뜻대로 이끌어 가는 사람으로 참여한다면 영아의 놀이를 방해할 수 있다. 교사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영아의 놀이에 참여하여 함께 놀이한다면 영아는 교사와 즐겁게 놀이하는 기쁨과 놀이하면서 배우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럴 때 ‘함께 놀이하기’를 해 보세요.

영아가 놀이에 참여하기를 요청할 때(예 "선생님, 우리랑 기차 타고.")

영아들이 대부분 잘 놀고 있어서 급히 도와줘야 할 일이 없을 때

같이 놀면서 영아의 배움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예 배달 놀이 중 큰 물건을 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배달하는 영아와 배달을 받는 영아 간에 갈등이 생길 때)

‘함께 놀이하기’를 할 때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영아의 놀이를 교사 마음대로 이끌어 가지 않도록 조심하기

- 예 영아가 물건을 늘어놓고 있는데 가게 놀이로 전환시키지 않기
- 예 (영아가 각자 그리는 데 집중하는데)
"선생님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 예 (영아가 한 손가락으로 그리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00는 한 손가락으로 했는데 이것 봐! 선생님은 두 손가락으로 하고 있어!"*
- 예 (영아는 목적지에 관심도 없고 부산이 먼 곳이란 것도 모르는데)
"우리 기차 타고 더 멀리 더 멀리 부산에 갈까?"
- 예 (영아가 블록으로 지은 오두막에 같이 들어가 앉아 놓고 있다가)
"우리 이 집에서 식당 할까?"
- 예 (영아와 산책에서 주운 돌로 사물을 두드려 보다가)
"이거 봐! 선생님이 길을 치니 이런 소리가 나고, 나무를 치니 이런 소리가 나네. 다 다른 소리가 나지!"**

* 교사가 두 손가락으로 그릴 수 있으나 영아의 주의를 끌며 말할 필요는 없음. 영아는 놀면서 때때로 교사의 놀이를 자연스레 관찰함

** 교사는 여러 사물을 두드리면서(모델링) 혼잣말로 말할 수 있으나 영아의 주의를 환기시켜 놀이를 방해할 필요는 없음. 영아는 교사가 치는 것을 따라 치게 될 수 있음

영아에게 간접적으로 알려 줄 때 영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조심하기

- 예 가게 놀이를 하면서 영아는 관심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돈 단위, 생산지 표시, 판매자와 구매자의 구체적인 역할을 강조하지 않기
- 예 영아 간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세 영아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갈등 중재가 길게 이어져 놀이의 맥을 끊지 않기
- 예 영아의 관심은 기차놀이를 하다 중간에 내리고 타는 역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교사는 철도 노선도를 같이 찾아보거나 역 이름 짓기에 초점을 두지 않기*
- 예 영아는 대부분 의사를 하고 싶어하는 데, 교사는 환자와 간호사도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기

* 역에 해당하는 장소를 표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떻게 표시(예 의자로)할지 결정



‘함께 놀이하기’를 토대로 한 교사 지원 예시

함께 놀이하는 교사



교사의 영향력이 최소화된 가운데 자신의 놀이를 하고 있는 영아

함께 놀면서 지원도 하는 교사



교사가 놀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가 영아 간 갈등 중재나 영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교사가 교육적 순간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만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교사

정서적 지원 제공하기

영아들은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탐색과 시도를 한다. 이때 교사의 정서적 지지는 영아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신의 시도가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여 이를 지속할 수 있게 돕는다. 교사는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것, 영아의 행동을 인정하며 묘사해 주는 것, 영아가 한 행동이나 그 결과에 감탄하는 것, 영아가 웃을 때 함께 웃는 것 등으로 영아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영아들은 자신들만의 재밌는 놀이와 놀라운 발견을 계속 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사례 3 ‘정서적 지원 제공하기’에는 영아의 배움과 교사의 지원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교사 지원 예시와 영아의 배움 읽어 주기를 함께 서술하였다.

특히 이럴 때 ‘정서적 지원 제공하기’를 해 보세요.

영아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영아를 관찰할 때

영아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놀잇감을 탐색하려 할 때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한 영아가 무엇인가 시도하려 할 때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는데도 계속 흥미를 가지고 노력할 때

일반적인 예상이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놀이할 때
(예) 맞춤 의도 없이 퍼즐 조각을 다 꺼낼 때, 책을 모아 위로 쌓아 올릴 때)



‘정서적 지원 제공하기’를 토대로 한 교사 지원 예시와 배움 읽기



모든 그릇을 꺼낸 이준이는 다시 그릇의 뚜껑을 맞추고, 같은 종류끼리 모으며 장 안에 정리하는 것에 몰두한다(자연탐구-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이준이가 그릇을 꺼내고 있다. 역할놀이를 하지는 않고 꺼내기만 반복한다. 안 되는 행위이라고 생각했는지 교사를 쳐다보았지만(사회관계-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안다) 교사는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다.

이준이는 양손을 이리저리 움직여 마침내 장에 있는 크고 작은 그릇을 모두 꺼내 바닥에 한가득 펼쳐 놓았다(신체운동-건강-대소근육을 조절한다).

교사: 우리반 그릇을 모두 꺼냈구나. 정말 많다!



장 안에 자리가 부족해지자, 이준이는 그릇을 옮기거나 돌려서 배치해 보기도 하고, 따로 놓여 있던 그릇을 포개기도 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다(자연탐구-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교사는 곁에 있으면서 이따금 교사를 바라보는 이준이와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한다.



드디어 모든 그릇을 다시 장 안에 넣는 것에 성공하자, 이준이는 원하는 것을 해냄을 기뻐하며 팔을 흔든다(사회관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 본다).

교사: (함께 기뻐하고 박수 치면서) 와! 다 넣었다.

이준이는 그릇의 크기를 고려하여 겹치는 것, 그릇 크기에 맞는 뚜껑을 찾아 맞추는 것, 장의 공간에 맞게 그릇을 정리하는 것 등을 스스로 해냈다.



제안하기

때때로 영아들은 놀이하다가 난관을 만나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영아가 도전하고 탐구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시도하였는데도 의도나 목적이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되면 영아는 좌절하게 되고, 결국 흥미를 잃어 놀이를 그만두기도 한다. 따라서 영아가 놀이하다가 거듭해서 좌절감을 느낀다고 판단된다면, 새로운 방법이나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등 ‘제안하기’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로써 영아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한 단계 도약하여 놀이를 지속할 수 있다.

특히 이럴 때 ‘제안하기’를 해 보세요.

영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반복해서 실패하고 있을 때
(예 블록으로 다리 형태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균형을 못 맞춰 계속 무너질 때)

영아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영아의 수준보다 약간 높아서 영아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영아가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지 못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때
(예 만들기를 하는데 풀로 붙인 재료가 자주 떨어져서 속상해할 때)

‘제안하기’를 할 때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영아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여 지원하거나 교사 의도대로 놀이를 바꾸지 않도록
(예 영아의 의도는 블록 탑을 높이 쌓는 것인데, 교사가 탑이 무너지지 않을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물의 모양을 바꾸는 제안을 함)

영아가 아직 스스로 시도해 볼 여지가 남아 있는데 선불리 개입하지 않도록
(예 영아가 퍼즐을 맞추려고 퍼즐 조각의 방향을 돌려보거나 조각을 바꿔 보는 등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교사가 먼저 맞는 조각을 찾아서 제시함)

제안의 수준을 넘어 교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도록



‘제안하기’를 토대로 한 교사 지원 예시

서준이는 듀플로 레고로 2층 집을 만들어 인형 놀이를 하고 있다. 2층 집을 만들려고 작은 레고 조각을 겹겹이 쌓아 기둥을 만든 후 1층 레고 판과 2층 레고 판 사이에 기둥을 세웠다.

그렇지만 구조가 견고하지 않아서, 2층에서 레고 인형을 움직이니 2층 집이 금방 무너지고 말았다.



서준이는 놀이하며 반복해서 기둥을 다시 세웠고, 기둥을 더 길게 혹은 짧게 만들어 보거나 기둥의 위치를 조금씩 조절해 보기도 했다. 기둥의 위치를 조절하며 기둥이 중앙에 오게 한 것은 좋은 시도이기도 했지만, 넓은 2층 레고 판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기에는 부족했다. 계속 집이 무너지자 서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 모습을 계속 관찰한 교사는, 2층 레고 판을 좀 더 견고하게 지지해 그 위에서 인형 놀이를 하고 싶은 서준이의 의도를 파악했다. 또한 서준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떠올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사는 서준이에게 “기둥을 하나 더 세워 보면 어떨까?”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교사의 제안을 들은 서준이는 똑같은 기둥을 하나 더 만들어서 기둥 두 개로 2층 레고 판을 지지하도록 했다. 집은 훨씬 견고해졌고, 서준이는 2층에서 레고 인형을 움직이며 즐겁게 놀이를 이어 갔다.

교사의 제안을 들은 서준이는 똑같은 기둥을 하나 더 만들어서 기둥 두 개로 2층 레고 판을 지지하도록 했다. 집은 훨씬 견고해졌고, 서준이는 2층에서 레고 인형을 움직이며 즐겁게 놀이를 이어 갔다.

겉에서 놀이하기

영아들은 발달 특성상, 함께 놀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에서 비슷한 놀이를 하며 관심을 가질 뿐 별다른 상호작용 없이 각자 자신의 놀이를 하고 있을 때가 많다. 교사도 영아를 지원하는 전략의 하나로 의도적인 병행 놀이를 할 수 있다. 영아의 놀이에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그저 겉에서 놀이하는 것(때로는 필요에 따른 간단한 대화나 눈맞춤을 하면서)만으로도, 자연스러운 모델링을 제공하고 함께하는 느낌을 주며 영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로써 교사는 영아의 놀이 속 주도성과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잠깐씩 함께 놀이하는 경험도 줄 수 있다.

특히 이럴 때 ‘겉에서 놀이하기’를 해 보세요.

영아의 놀이나 탐색을 격려하거나 자연스럽게 확장시켜 주고자 할 때

영아가 하고 있는 놀이 방향을 다소 전환할 필요가 있을 때

(예 영아의 놀이 방식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때, 놀잇감 파손이 우려될 때)

놀이를 사회적 상호작용을 격려하고자 할 때

(예 타인과 함께 노는 것에 아직 관심이 없는 영아에게 같이 노는 경험을 주기 위해)

영아에게 위안을 주고자 할 때

(예 속상해서 혼자 있는 영아가 있을 때 직접적으로 말을 걸지는 않지만 겉에서 같은 놀이를 하며 마음의 안정을 도움)

교사와의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영아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할 때

(예 새 학기 적응 기간)

영아의 놀이를 지원하되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으며 교실 전체를 살피고자 할 때



‘결에서 놀이하기’를 토대로 한 교사 지원 예시

영아의 놀이나 탐색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 주고자 할 때



교실 바닥에 점토와 점토 놀이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준비되어 있다. 유진이는 점토 덩어리를 손바닥으로 두드리거나 손가락으로 눌러 변형시키는 놀이를 오랫동안 반복한다.

교사도 결에서 점토 놀이를 하면서, 손과 더불어 준비된 다른 도구를 사용해 점토 모양을 변형시킨다. 유진이는 놀이를 하면서 중간중간 교사가 놀이하는 모습을 본다. 잠시 후 유진이도 다른 도구를 사용해 본다.

영아가 하고 있는 놀이 방향을 다소 전환할 필요가 있을 때



교실에 오버헤드프로젝터(OHP)를 제시하자 아윤이가 흥미를 보이며 탐색하기 시작했다. 아윤이는 빛이 나오는 유리판에 손바닥을 올리고 벽에 투사된 그림자를 보기가 싫더니, 곧 손바닥으로 유리판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고 벽에 투사된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주변의 영아들이 시끄러운 소리에 돌아보았다.

교사는 옆에서 놀이하며 판 위에 올린 손 모양을 바꿔 보기도 하고 주변에 있던 물건을 올리기도 하며 다양한 그림자가 생기게 했다. 이 모습을 본 아윤이는 두드리는 놀이를 멈추고 교실에 있던 여러 가지 놀잇감을 가져와서 판에 올려 보기 시작했다.

놀이를 사회적 상호작용을 격려하고자 할 때



평소 혼자 놀이하기를 즐기는 도현이가 책상 위에 블록을 늘어놓으며 오늘도 혼자 놀고 있다. 교사도 도현이가 놀이하는 책상 곁에 앉아 블록을 늘어놓는 놀이를 시작한다. 도현이와 교사는 대화를 하지는 않지만, 서로가 놓은 블록을 피해 자신의 블록을 늘어놓으며 자연스럽게 책상을 공유한다.

잠시 후 도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교사가 사용 중인 블록이 필요한지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다.

교사가 먼저 도현이에게 “도현아, 선생님이 그 동그란 블록 필요한데 줄 수 있니?” 하고 물어본다. 도현이가 동그란 블록을 건네자, 교사가 “고마워.” 하고 답하며 받는다. 그러자 도현이도 자신에게 필요한 블록을 가리키며 “나는 저 블록 필요한데.” 하고 말한다. 교사가 도현이가 말한 블록을 건네주자 받아서 다시 놀이를 이어 간다.

질문하기

교사는 영아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질문을 활용할 수 있다. 사려 깊은 질문으로 교사는 영아의 흥미와 관심, 이해의 수준, 영아의 의도 등을 좀 더 깊이 파악하고 적절히 지원할 수 있으며, 영아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성급한 질문은 영아에게서 의미 있는 답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찾고 불필요한 질문은 영아의 놀이를 끊고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아에게 질문할 때 교사는 먼저 영아를 충분히 관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질문해야 하며, 대답하는 영아가 의미 있는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인지 고려한 뒤에 질문해야 한다.

특히 이럴 때 ‘질문하기’를 해 보세요.

영아의 특성과 발달 변화를 파악하려 할 때

- (예) 구멍에 크기가 다양한 공을 넣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영아를 지원하고자 공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함)

영아의 흥미를 파악하거나, 영아가 흥미를 발견하도록 도울 때

- (예) 다양한 역할 놀이감 앞에서 머뭇거리는 영아에게 “무슨 음식을 만들어 볼까?”, “우리 뭐 먹을까?” 하고 질문함)

(관찰만으로는 알 수 없는) 영아의 구체적인 의도를 파악하고자 할 때

교사의 도움이나 지원이 적절한지(영아가 만족하는지) 판단하고자 할 때

- (예) 영아가 원하는 색 크레용을 친구가 쓰고 있어서 오래 기다리며 힘들어하는 것으로 보이자, 교사가 같은 색 크레용을 찾아준 후 “잘 기다리고 있구나, 이 색으로 그려 보고 싶었던 거니?” 하고 확인함)

영아의 놀이를 지원하되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으며 교실 전체를 살피고자 할 때

‘질문하기’를 할 때 이런 점을 조심하세요.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질문 먼저 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질문이나 너무 많은 질문으로 놀이의 진행을 끊지 않도록

- (예) 별다른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뭐 하는 거야?”라고 물어 봄, 아기 인형으로 놀고 있는 영아에게 “이 아기는 누구야?”, “OO이가 아기 엄마야?”, “아기는 뭐하는 중이야?” 등 연속해서 질문을 던져 답하느라 놀이가 끊김)

영아도 잘 모르는 것, 영아 수준에서 답하기 어렵거나 답할 말이 없는 것을 묻지 않도록

- (예) 블록을 쌓고 있는 영아에게 “와! 높다. 이게 몇 층일까?”, 특별한 목적 없이 모래를 모으며 탐색하고 있는 영아에게 “지금 뭐 만드는 거야?”)



‘질문하기’를 토대로 한 교사의 지원 예시



지호가 마스킹 테이프를 뜯다가 뭉쳐서 내려놓기를 반복하고 있다. 관찰해 보니 뭉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대강 뭉쳐 손에서 떼어 내고 다시 새롭게 테이프를 뜯는 것에 목적이 있는 듯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교사는 관찰한 행동 속 지호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알고자 질문 했다.

교사: 지호야, 왜 테이프를 계속 뭉치고 다시 뜯는 거야?

지호: 구겨졌어.

교사: 아! 구겨지지 않고 짹 퍼진 테이프가 필요했구나.

지호: (끄덕끄덕)

교사: 얼마나 긴 테이프가 필요해?

지호: 아주 긴 거.

교사는 테이프가 접히지 않고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가 유지되도록 팔을 벌리면서 테이프를 늘이도록 안내했다.

구겨지지 않게 원하는 길이만큼 테이프를 잘 늘인 지호는 이번에는 테이프를 끊어 내는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교사는 어떤 지원을 할지 판단하고자 질문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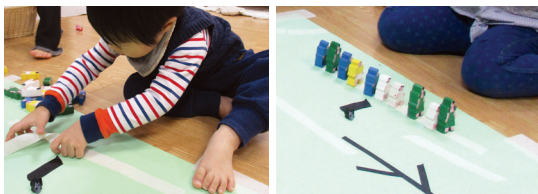


교사: (테이프 롤을 잡아 주며) 이제 어디를 잘라 내야 할까?

지호: (테이프 롤과 풀어진 테이프의 경계점을 가리키며) 요기!

교사는 지호가 어디를 끊어야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한 지점을 끊어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의도했던 대로 ‘구겨지지 않은 긴 테이프’를 끊어 낼 수 있게 된 지호는, 종이 위에 테이프를 붙이며 길을 만들고, 길 위에서 사람과 자동차를 움직이며 놀이를 이어 갔다.



4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공간과 자료



영아 교사는 영아의 흥미와 관심, 발달, 기질이나 경험 등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여
영아 중심으로 공간과 자료를 구성하여 지원한다.

1.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공간



영아의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공간을 구성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영아의 공통적 특성과 개별적 다양성을 고려한 공간

영아를 위한 공간을 구성할 때는 영아의 일반적 발달 특성에 적합한 환경으로 구성한다. 연령의 공통적 특성을 반영한 환경은 학급에 비치된 가구나 기구 등의 크기가 영아의 신체 크기에 적합한 것에 더하여 환경이 구성된 방식도 영아 발달의 적합함을 의미한다. 연령에 따른 공통된 발달 특성에 더하여 영아의 개별적 발달 특성과 경험, 흥미와 기질 등을 고려하여 다양성을 반영한 공간으로 구성한다. 영아는 발달 수준, 경험과 흥미 등에서 개인차를 보이므로, 공통적 특성에 더하여 개별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놀잇감이나 자료를 다양한 종류와 수준으로 공간 내에 배치한다.

영아의 공통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

영아가 이동하기 어려운 비좁은 공간,
몸을 움직여 놀이할 공간이 없는 교실,
모든 책상과 교구장이 벽을 향해 놓여 있는 교실,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자료 없이 실물 자료 위주로만 구성된 놀이 공간

보다는

신체 발달을
지원하는 공간

영아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

몸을 움직여 대근육을 이용한 놀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



또래 관계와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지원하는
공간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도록 가구와 놀이 자료를 배치한 공간

상상놀이를
지원하는 공간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자료로 채워진 놀이 공간

영아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정서적 공통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에서,
영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영아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

한 가지 주제, 예를 들어 동물과 관련된 놀이 자료로만 가득 찬 공간,
크기와 재질이 똑같은 책만 꽂혀 있는 책장,
주방 가구에 음식 모형으로만 채워진 역할놀이 영역,
크기가 똑같은 가구만 놓인 공간

보다는

영아의
개별적 흥미와
경험을 반영한
자료가 제공된
공간



영아의 다양한 흥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놀이 자료가 제공된 공간



영아의 흥미와 경험을 고려하여 캠핑 놀이,
병원 놀이 등 다양한 주제의 놀이 자료가 놓여 있는 공간

영아의
발달의 개인차를
고려한 공간



다양한 내용과 관련된, 크기와
재질이 다양한 책으로 채워진 공간

신체 발달의 개별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크고 작은,
높고 낮은 가구를 배치한 공간



영아의 개별성을 고려한 공간에서
영아의 경험과 흥미가 반영된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놀이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과 자료가 있으나 구획되지 않는 공간

영아에게 교실은 가장 친숙하고 편안한 놀이 공간이다. 놀이 환경을 구성할 때 영역을 과거의 흥미 영역처럼 명확히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특성이 유사한 놀이(예, 쌓기, 역할)를 할 수 있는 자료는 서로 가까이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아를 위해서는 쌓기, 역할, 표현, 언어, 감각·탐색 등의 놀이 영역을 구성할 수 있으나 영역의 명칭을 정하고 교구장으로 구분한 정형화된 영역이 아닌, 영아들이 자발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하여 구성할 수 있는 열린(개방적) 영역으로 구성한다. 영아들이 놀이하면서 자유롭게 놀이 영역을 넘나들고 놀잇감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여 자신만의 놀이를 하도록 지원하는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융통성 있는 공간은 영아의 다양한 개인차를 수용하는 측면과 구성된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을 의미한다. 공간의 융통성과 개방성이 보장되면 영아는 스스로 공간을 활용하고 재구성하며, 진짜 놀이를 하며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놀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영아가 놀이할 때 영역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자유롭게 주도적으로 놀이 영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사는 허용성과 개방성이 높은 환경을 구성해 주어야 한다. 놀이 자료를 유형별로 한 공간에 모두 모아 두는 방식이 아니라 영아가 놀이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필요한 것을 찾아 쓰기 쉽게 교실 공간을 구성한다.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공간

놀이 영역의 이름을 알아야 하고 영역 이름으로 교사와 소통해야 하는 교실,
비슷한 놀이 자료만 모아 획일화된 방식으로 정리된 놀이 공간,
놀이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된 교실 공간,
특정 놀이 영역에서는 해당 영역의 놀이만 해야 하는 공간

보다는

영역 간
구분이 없고
융통성이 허용되는
공간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열린 놀이 공간

영역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놀이하는
공간



영역의 제한 없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



과일 퍼즐 조각을 요리 놀이에 사용하고,
미술 자료를 쌓기 놀이에 사용하는 등
놀이 자료 사용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놀이하는 공간



다양한
놀이 자료가 함께
제시된 공간



탐색 놀이 자료, 악기 등 다양한
놀이 자료가 함께 제시된 공간

놀이할 수 있는 공간과 놀이할 수 없는 공간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열린 공간에서
영아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다.

놀이 자료가 다양한 공간

책만 모아 놓은 언어 영역,
네모난 종이와 색연필만 놓여 있는 미술 영역,
퍼즐만 놓여 있는 감각·탐색 영역

보다는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영역



다양한 책과 함께 끼적이기를 할 수 있는 필기류,
다양한 인형과 화보가 제공된 공간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영역



종이와 고체 물감, 점토 등 다양한 미술 자료를
활용하여 놀이할 수 있는 공간



영아의 시각 발달을 지원하도록 색과 모양이 다양한 놀이
자료와 라이트 테이블이 놓여 있는 공간

다양한 자료가 비치된 공간에서 영아는
자유롭고 의미 있는 놀이를 할 수 있다.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배움이 풍부하게 일어나는 공간

교육 기관은 가정과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지만, 영아가 교육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양한 놀이 자료를 포함하여 영아의 놀이와 활동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다양하고 충분히 구비하되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신중히 고려하여 교재·교구를 제공한다.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놀이 자료는 영아가 놀이에 자유롭게 활용하며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말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할 수 있는 개방적 놀이 자료가 풍부한 공간에서 영아는 주도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교육적 가치가 있는 놀이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더하여 놀이 자료에 영아가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시한다. 동일한 놀이 자료라도 교사가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영아의 흥미와 관심 정도, 추후 놀이 방향이 달라진다. 또한 조금 긴 호흡으로 놀이하도록 영아가 만든 놀이 자료를 보관하고 전시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배움이 풍부하게 일어나는 공간

영아의 조작 없이도 혼자 움직이는 전자 놀이 자료,
정해진 방법대로만 놀이해야 하는 놀이 자료,
획일화된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교구장,
집에 가기 전에 놀던 모든 놀이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교실

보다는

창의적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



블록과 리듬 스카프 등 영아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놀이 자료가 풍부한 공간



음식 그림이 그려진 나무 조각과 다양한 끈 등
구체적 놀이 자료와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할 수 있는
개방적 놀이 자료가 풍성한 공간



놀이 자료를
매력적으로 제시한
공간



투명 바구니에 자연물을 담아 놓고,
라탄 바구니에 책을 꽂아 창가에 배치하는 등
정형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놀이 자료를 제공한 공간



긴 호흡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



긴 호흡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놀이에
사용하던 블록 구성물을 보관하거나
그리던 그림을 붙여 놓을 수 있는 공간



개방적 놀이 자료를 융통적으로 사용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공간에서
놀이하며 영아의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

영아가 공간에서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교사가 편리하도록 환경을 구성하기 보다는 학기가 진행됨에 따라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를 점차 줄여 나가며 교사의 도움이나 지시 없이 영아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놀이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화장실, 개인장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공간에서 영아가 주도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한다. 영아가 스스로 자신의 옷을 찾아 입고, 벗어 정리하기 편안하도록 개인장의 위치와 표시 방법을 결정하고, 놀이 자료를 찾아 쓰고 정리하기 용이한 구조장으로 교실 공간을 구성하도록 한다. 화장실도 영아의 사생활이 보장되면서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시설 설비를 갖추고, 영아의 손이 잘 닿는 곳에 타월과 자동 또는 눌러서 사용하는 비누를 놓아 혼자서 손 씻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놀이 자료 정리를 위한 표시가 모두 붙어 있는 교구장,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인 개인 용품: 가방, 옷, 기저귀, 갈아입을 속옷 등,
교사의 도움 없이 혼자 사용하기 어려운 비누와 수건: 높은 곳에 걸린 타월이나 짜서 쓰는 비누 등,
교사의 지도하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와 변기,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가림막 없는 화장실

보다는

영아 주도적으로
놀이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공간



영아의 눈높이에 놀이 자료가 잘 보이게
전시하는 등 사용하고 정리하기 쉬운 공간

교사의 도움 없이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품



영아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진과 이름이 붙어 있는 개인장



영아 혼자서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



영아 혼자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신체 사이즈에
적절한 세면대가 놓여 있는 화장실

영아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화장실



영아의 신체 사이즈에 적절한 변기와
영아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낮은 문이 설치된 화장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사의 도움을 점차 줄여 나가며 주도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서
영아는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

가정 밖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영아를 위한 공간은 영아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정서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면 영아는 배움이나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아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 교실 공간 전체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사물, 자료와 소재를 사용하고 교실 안에 있는 교구와 정리함 등은 따뜻한 감촉과 색을 가지고 있는 나무 등으로 놓아 준다. 천으로 된 매트나 쿠션을 사용하여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영아가 가정에서 잘 가지고 노는 놀이감, 인형, 책 등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영아가 더욱 친숙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또한 공간의 활용 목적이나 일과 시간을 고려하여 자연의 빛, 조명의 조도와 종류를 활용하여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공간

가정에도 잘 없는 캐노피와 일부 영역에만 놓여 있는 쿠션과 체크무늬 비닐로 된 깔개,
도처에 있는 플라스틱 정리 바구니,
학기 초에만 있는 가족사진,
영아의 놀이와 활동 유형에 따라 조절할 수 없는 차가운 느낌의 천장 형광등 조명

보다는

가정과 같은
따뜻한 재질의
자료로 가득한
공간



천으로 된 바닥 매트와 테이블보 등 가정과 같은
따뜻한 재질의 자료로 채워진 공간



놀이 자료와 정리함 등을
따뜻한 감촉과 색을 가진 소재로 구성한 공간

가정에서 가져온
놀잇감과 인형,
책을 놓아 둔 공간



가정에서 기증받아 개별 영아에게 친숙한
놀잇감, 책, 인형 등이 있는 공간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공간



영아의 활동에 적절하게 빛을 조절할 수 있는
간접조명이 놓인 공간

가정과 같이 따뜻한 공간에서 영아들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며 놀이할 수 있다.

영아의 미적 감수성을 길러 줄 수 있는 공간

미적 감수성은 생활 속 경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영아기부터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하고,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하면서 미적 감수성이 길러질 수 있다. 교사는 공간에 색, 자연, 가구, 작품 등을 전시함으로써 영아에게 미적인 영감을 제공하고 감수성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사용된 색감은 그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공간 속의 색을 접하며 영아는 미적 감수성을 형성해 나간다.

교실 안에 자연을 들여놓으면 영아는 자연에서 미적 영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원형이나 타원형,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과 같이 다양한 가구로 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구를 배치하여 영아가 공간에서 패턴, 대비, 조화 등의 감각을 기르도록 도울 수 있다. 미적 감수성은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경험으로도 기를 수 있다. 기관 내에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전시하여 영아가 감상하며 미적 영감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영아가 직접 만들고 그린 결과물을 가치 있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하여 미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도록 한다.

미적 영감을 주는 공간

총천연색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교실,
안에서 바깥을 즐길 수 없게 차단하는 스티커 붙여진 창문,
빨강, 파랑, 초록의 플라스틱 정리 바구니,
일관성 없이 색과 무늬가 모두 다른 바닥 매트 또는 책상 덮개,
벽면에 나란히 붙여 놓는 등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시된 영아의 미술 놀이 결과물

보다는

심미적인
색과 자료를
활용하여
구성한 공간



차분하면서 통일감 있는
색으로 구성된 공간



천장에 자연물 모빌을 설치하고,
영아의 놀이 자료로 자연물을 제공한 공간



정형화되지 않은
가구 배치



다양한 가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배치하여 패턴, 대비, 조화 등의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공간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전시한 공간



산책에서 영아가 발견한 나뭇가지에 영아의 그림을 매달아 전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전시한 공간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에서 놀이하면서
영아의 미적 감수성이 길러질 수 있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영아는 자연과 함께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영아는 실외 놀이나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영아가 실외에서 자연을 느끼는 것 외에 실내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실을 포함한 기관 곳곳에서 자연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환경을 구성한다.

창문으로 바깥의 자연환경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실내에 꼭 큰 창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영아가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과 나뭇가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등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화분을 비치하거나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자연물(도토리, 솔방울 등)을 놀잇감으로 구비하여 실내에서도 자연을 느낄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영아가 특정 화초나 꽃 등 자연물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여 공간 구성 시 반영하도록 한다. 교사는 실내에 화분을 비치할 때 쉽게 넘어지지 않고, 깨질 위험성이 낮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영아가 화분의 흙이나 돌멩이를 입으로 가져갈까 걱정하지만, 안전을 고려하여 구성된 공간에서 교사의 지도하에 영아도 안전하게 화분을 가꾸며 자연을 경험할 수 있다. 만약 영아에게 실내에 비치된 자연물과 관련하여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모두 모여 집단으로 지도하기보다는 상황 발생 시 해당 영아만 개별적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실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햇빛을 가린다는 명목으로 스티커를 붙여 놓은 창문,
자연물 없이 질감이 차가운 놀이 자료가 가득 찬 공간,
조화 등 인위적인 자연물이 많은 교실

보다는

창문으로
만나는 자연



깨끗하게 닦여 있는 창문을 통해 맑은 하늘과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



교실 여기저기서
만날 수 있는
화분과 자연물



실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창틀, 책상, 벽면 등에 화분을 놓아 둔 공간

나무 조각, 솔방울, 나뭇잎 등
자연물 놀이 자료가 충분한 공간



영아가
직접 자연을 만나고
가꿀 수 있는
공간



영아가 직접 화분에 물을 주고
가꾸며 실내에서
자연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실내 공간에서 영아는 자연을
바라보고, 만지고, 느끼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마음껏 놀이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

영아들이 마음껏 놀이할 수 있도록 안전이 보장된 환경을 구성해 주어야 한다. 발달 특성상 영아는 환경을 탐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예상하는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내에서 영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시설과 설비, 전자기기, 놀이자료 등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것과 관련된 안전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공간을 구성한다. 또한 모든 영아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이 교실 전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한다.

위험한 물건을 무조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영아의 능력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영아는 스스로 안전에 주의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서서히 갖게 될 것이다. 마음껏 놀이할 수 있도록 안전과 더불어 청결한 환경으로 구성한다. 안전이 보장된 청결한 공간에서 영아는 마음껏 놀이하고 발달할 수 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

손이 끼일 위험이 있는 문과 창문 틈, 나사가 풀려 있는 가구나 위태롭게 세워져 있는 가구장,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가구와 놀이 자료, 문을 여닫기가 힘들어 환기하기 어려운 창문, 언제 닦았는지 모르는 놀이 자료와 교구장

보다는

안전한
교실 공간



교실 문 끼임 방지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교구장 등 가구의 모서리에 안전장치가 부착된 교실



쾌적하게
관리되는 공간



교사가 일과 중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공기청정기를 비치하여 실내 공기 질이 관리되는 교실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공간



교사가 영아 하원 이후에 놀이 자료를 소독하고,
칫솔과 개인 양치 컵을 소독함에 정리하여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환경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영아는 마음껏 놀이하며 성장할 수 있다.

2.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자료



놀이 환경은 영유아의 놀이가 다양하게 일어나도록 지원하는 교육적 자원이므로 교사는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놀이 자료를 제공하여 풍부한 놀이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놀이감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동기가 유발되도록 영아의 월령과 반응, 일과 시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과 수준으로 놀이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영아는 또래가 가진 놀이감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 교사는 동일한 놀이감을 여러 개 구비해 두어야 하겠지만, 영아가 서로 다른 놀이감을 가지고 함께 놀이하는 경험을 점차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소재가 다양한 놀이 자료

영아용 교재교구로 판매되는 천편일률적인 놀이 자료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품부터 자연물 등 소재가 다양한 놀이 자료를 제공한다. 영아는 구조적 놀이 자료도 선호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놀이 자료도 선호한다. 상자, 물컵, 액자 틀, 단추, 리본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자료나 솔방울, 돌멩이 등 자연에서 수집한 자료로 창의적인 놀이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장소에서 영아가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영아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 자료를 선택하여 제공하고, 놀이 중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알려 주도록 한다. 플라스틱이나 나무 등 천편일률적인 재료로 만든 놀이 자료보다는 소재가 다양한 놀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연근, 다양한 물컵과 물통, 자연물 등을 가지고 놀이하는 영아



수준이 다양한 놀이 자료

영아의 개별적 성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놀이 자료로는 2세 평균 발달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과 조금 더 쉬운 수준의 자료를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이때 인지 발달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 발달 수준, 언어 발달 수준, 신체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으로 놀이 자료를 제시한다. 3조각 퍼즐, 손잡이가 달린 퍼즐, 교통기관 그림만 그려 있는 퍼즐만 제공하기보다는 그림과 조각 수, 조각을 잡는 방법 등이 다양한 퍼즐을 제공할 수 있다.

조각 수, 배경 그림, 손잡이 모양이 다양한 퍼즐들



성별에 따른 선호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놀이 자료

흔히 쌓기 놀이는 남아가 선호하고 역할놀이나 음악, 미술과 같은 표현 놀이는 여아가 선호한다고 생각하여 영역별 놀이 자료에 성별 특성이 반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쌓기 놀이 영역에는 자동차 소품을, 역할놀이 영역에는 드레스와 구두 등을 놓아 주지만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선호 없이 남아와 여아 모두 즐겁게 놀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다양한 역할놀이 소품, 쌓기 놀이와 역할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자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 자료

놀이 자료는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제공해야 한다. 영아가 놀이 자료 사용의 주도권(섞어 쓰기, 이동해서 쓰기, 다른 용도로 쓰기 등)을 가지고 놀이하도록 개방적인 놀이 자료를 제공한다.

나무 조각, 솜 등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어서 다양하게 놀이할 수 있게 하는 자료



긴 호흡 놀이 자료와 짧은 호흡 놀이 자료

어떤 놀이 자료는 영아가 일 년 동안 계속 놀이에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놀이 자료는 특정 시기에만 사용하기도 한다. 쌓기 놀이를 위한 블록, 역할놀이를 위한 교구장, 미술 놀이를 위한 종이와 그리기 도구 등 영아의 놀이에 사용되는 자료는 긴 호흡으로 1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제공한다. 그러나 일부 놀이 자료는 영아의 놀이 주제나 계절 등에 따라 짧은 호흡으로 활용되기에 필요할 때마다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좋다. 일년 내내 놀이 자료를 변경하지 않거나 영아의 흥미에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변경하기보다는 영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교체하거나 추가한다.

일년내내제공되는 벽돌 블록과
영아의 흥미를 반영하여 추가로 제공한 자동차길 매트와 자동차 모형, 캠핑 놀이자료



자료 없이 이루어지는 놀이를 지원하기

교실 환경을 놀이 자료로 가득 채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영아는 때로 자료 없이도 놀이를 한다. 불필요하게 과도한 놀이 자료는 오히려 주어진 자료에만 집중하게 하여 영아의 자기 주도적 탐색을 방해하거나, 너무 많은 자극이 되어 자료 선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너무 많은 놀이 자료가 제공된 환경보다 놀이 자료가 적당히 제한된 환경에서 영아는 도래 상호작용이나 교사와의 관계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놀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놀이 자료 없이도 영아가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래와 공유하는 생각과 경험도 의미 있는 놀이 자료



교사의 의도가 반영된 환경적 지원: 공간과 자료

교사는 공간과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면서 영아의 놀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환경적 지원으로서 공간과 자료



상황이 허락된다면 특정 놀이(예: 쌓기)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예: 책 읽는 영역, 복도, 실외 놀이터, 강당)에서도 관련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상황이 허락된다면 특정 목적(예: 블록)으로 사용되는 자료를 영아가 자신의 놀이에 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공간, 자료'를 제공하여 날씨에 흥미를 갖는 영아를 지원한 예시

재미있는 가을비 놀이	
영아의 흥미	환경적 지원
비와 우산	<p>공간</p> <p>영아가 긴 시간 머무르며 놀이가 심화되는 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상놀이를 하며 움직이는 실내  <p>비가 오지 않아도 책, 담요, 인형 등으로 우산처럼 놀이하는 영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가 내리는 것처럼 스크린과 오디오를 제공한 유희실 공간  <p>녹음한 빗소리와 비 오는 풍경을 배경으로 비를 표현하는 영아</p>

재미있는 가을비 놀이

영아의 흥미

환경적 지원

비와 우산

공간

- 손 씻으며 물소리와 빗소리를 탐색하는 화장실

비 내리는 날, 손을 씻으며 물소리와
빗소리를 탐색하는 영아



- 신문을 찢거나 길이가 다양한 신문지 조각을 이어 비처럼 매달아 둔 교실



길이가 다양한 신문지 조각을 비가 내리는 것
처럼 매달아 둔 공간에서 놀이하는 영아

자료



빗소리와 우산을 표현하는 레인메이커, 스카프,
다양한 종이, 녹음한 빗소리, 비가 내리는 숲길 영상,
빔프로젝터, 버튼 녹음기, 우산 꾸미기 자료 등

* 공간과 자료 지원에 더하여 시간적 지원도 실시할 수 있다. 상황이 허락된다면 놀이 시간 같은 특정 시간대뿐만 아니라 일과의 다양한 시간대(예: 손 씻는 시간)에 관련된 놀이를 하도록 배움을 지원할 수 있다.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공간과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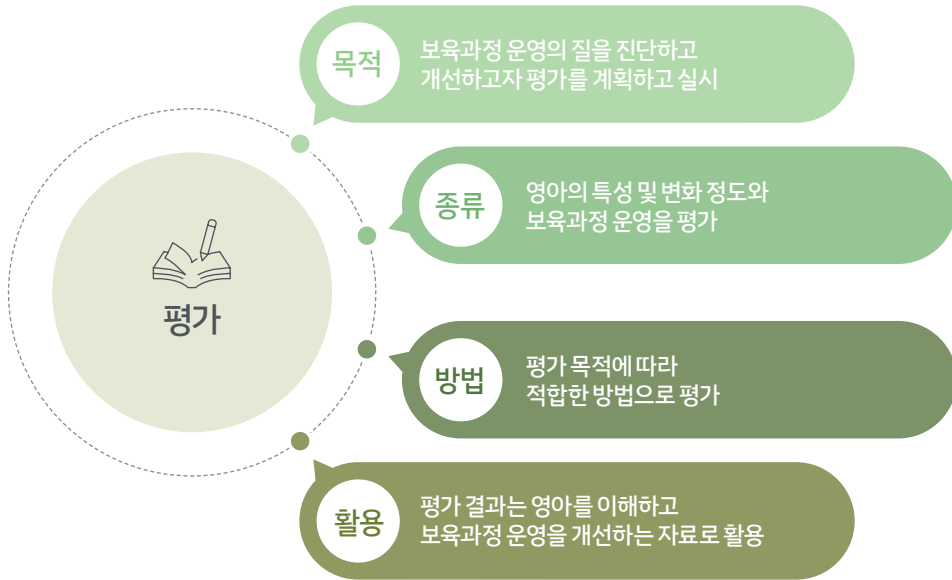
5

영아중심 보육과정 실행 평가



영아 교사는 영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보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여
영아를 이해하고 보육과정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영아중심 보육과정 실행 평가를 하려면 보육과정 고시문의 평가 관련 서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시문에서 평가 중점 사항과 핵심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 목적은 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여 개선하려는 것이며, 이는 평가의 활용과 관련된다. 평가의 종류는 영아 평가와 보육과정 운영 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영아 평가와 하루의 보육과정 운영 평가를 다음 날 영아 지원과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찰일지, 놀이기록, 보육일지 등의 기록물과 영아의 말을 기록 또는 녹음한 자료, 메모, 사진, 동영상, 구성물이나 그림 같은 놀이 또는 활동의 결과물 중 일부를 수집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영아 평가에 대해 축적된 단기적 자료를 종합하여 반년 또는 일 년 동안의 영아 성장과 변화를 평가하여 부모와 면담하거나 다음 해 영아를 지도하는 교사와 의사소통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보육과정 운영 평가 역시 축적되면 중장기적 평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교사의 보육과정 실행을 반성하고 다음 해 보육과정 운영을 개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영아 평가의 내용은 교사가 제공하는 놀이와 일상생활 지원의 바탕을 이루고, 보육과정 운영 평가의 내용은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각 영아의 반응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아 평가와 보육과정 운영 평가는 상호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영아 평가	보육과정 운영 평가
내용	영아의 경험 영아의 특성과 변화 이해 (5개 영역, 42개 내용)	전문가로서 교사 역할 일과 운영(영아중심 일과, 등·하원, 놀이, 일상생활) 상호작용 공간과 자료
방법	[기록] 관찰일지, 놀이기록과 보육일지(배움 읽기) [수집] 녹음, 메모, 사진, 동영상, 구성물 등	관찰일지, 놀이기록과 보육일지 연간, 월간, 주간 계획 및 평가 교사 학습공동체(동료장학, 연구수업, 참관수업)의 활동 기록 부모 만족도 조사 등
활용	영아의 놀이와 배움 지원 부모와의 소통(스마트 알림장) 부모 상담 자료 차년도 보육 계획 반영	부모와 소통 자료(가정통신문 등) 보육과정 계획 수립과 운영 개선

영아의 경험은 근본적으로 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 날이나 여러 달에 걸쳐 영아의 변화를 파악하려고 반드시 영역과 범주, 내용별로 구분해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영아의 경험과 관련된 여러 영역 및 범주, 내용을 복합적으로 함께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의 목적이 특정적이라면 단일 영역이나 내용에만 주목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Q&A 참조).



Q 하루 동안의 영아 평가를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해서 매일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교사가 의미 있게 파악한 영아의 배움 읽기를 중심으로 일부 영아에 대해 사진이나 동영상, 짧막한 메모 등을 자유롭게 활용해 교사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Q 여러 날과 여러 달에 걸친 영아 평가는 왜 해야 하나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나요?

- △ 짧게는 1~2주부터 길게는 1년에 걸친 장기적 영아 평가는 특정 영아의 놀이 선호나 학습 성향, 발달 등에서 변화와 특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 그러나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사가 특정 목적에 따라 그 필요성을 인식할 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특정 행동이나 성향, 발달 측면에서 부모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거나, 영아 삶에서 일어난 사건(예 동생의 탄생, 이별 등)에 따라 영아에게 주목할 만한 변화가 관찰되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교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영아 평가에는 꼭 5개 영역의 내용을 모두 담아야 하나요?

- △ 아닙니다. 하루 동안의 놀이와 일상생활에 대한 영아 평가는 그날 영아가 경험한 내용 중 배움을 위주로 평가하여 지원을 계획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영아가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따라 5개 영역 모두 혹은 일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 날과 달에 걸친 영아 평가 역시 교사가 판단한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5개 영역 전부 혹은 일부 영역의 일부 내용(예 단일 영역의 단일 내용)에 대한 배움과 평가의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Q 실행자료에서 제시한 영아 평가 방법이나 양식을 따라야 하나요?

- △ 아닙니다. 하루 혹은 여러 날과 달에 대한 영아 평가의 방식은 교사 개인의 판단이나 교사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영아를 대상으로, 어떤 형식에 따라 작성할지는 교사 및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영아 평가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사는 일과 중 영아의 경험에 대해 표준보육과정 5개 영역 42개 내용을 중심으로 배움 읽기를 실시하고, 이를 기관에 따라 배움 읽기, 놀이기록, 보육일지 등으로 독립적 혹은 통합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영아의 놀이와 일상생활에 대해 수시로 이루어진 '배움 읽기'는 하루의 영아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다음은 하루 동안 일어난 배움에 대한 영아 평가의 예시이다.

하루 동안 일어난 배움에 대한 영아 평가의 예 #하루 평가 # 영아 두 명

목적 개별 영아에 대한 평가 및 지원 방향 모색

방법 일화 기록(사진 및 대화)

매미에 대한 흥미를 공유하는 은우와 해준



배움 읽기

은우와 해준이는 나무 위를 올라다보며
매미가 시끄럽게 우는 소리를 관심 있게 듣는다
(신체운동·건강-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 자연탐구-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두 영아는 매미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을 서로 이야기한다
(의사소통-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의사소통-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은우: 남자 매미만 시끄럽게 우는 거야.

해준: 우리 형이 그러는데 정말 오래 땅에 있다 금방 죽는대.

두 영아는 서로의 말에 호응하기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일방적으로 말하지만 매미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눈다(사회관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 본다).

반으로 들어온 뒤 매미에 대한 큰 책을 가지고 와서 함께 보기 시작한다
(사회관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 본다).

큰 책을 보려고 이리저리 책을 가지고 자세를 잡아 보다가
발을 뻗어 책을 펼 공간을 마련해서 편하게 책을 보기 시작한다(신체운동-건강-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해준이는 책장을 한 장씩 넘기는데(신체운동-건강-대소근육을 조절한다),

은우는 해준이가 한 장씩 넘기는 일을 하도록 기다려 준다

(사회관계-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은우와 해준이 둘 다 글을 읽지 못하지만 매미에 대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어 나간다

(의사소통-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

은우: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안 들린대.

해준: 여기 매미 꺾질!

서로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상대의 말을 끊기도 한다(의사소통-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평가

두 영아 공통 및 독립적 평가 내용을 함께 기록한 예

은우와 해준: 매미에 대한 흥미를 공유하면서 바깥에서는 나무에서 우는 매미 소리를 함께 듣고, 실내에서는 매미 책을 함께 보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계속 공유함.

해준: 소근육 사용이 능숙하여 책장을 한 장씩 잘 넘김.

은우: 해준이가 책장을 넘길 때 관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줌.

은우와 해준: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것이 이어지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상대의 말을 끊기도 함. 상대의 말을 듣고 그에 관해 답하는 대화 방식을 배워 가도록 하는 교사의 지원이 필요함.



평가 결과에 기반한 구체적 지원 방안의 예

- 책을 읽는 상황뿐 아니라 다양한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상대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거나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말하도록 지원할 예정
- 매미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는지 살펴보고 두 영아의 흥미와 관심을 따라가며 지원할 예정(● 매미에 대한 사실 알기, 매미의 소리를 듣거나 흉내 내기, 매미의 껍질 같은 흔적 찾기)

교사는 하루에 대한 영아 평가와 더불어,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일정 기간 축적된 관찰기록 중 ‘일부’를 추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봄으로써 특정 측면에서 영아의 변화를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 기간은 교사가 선택한 영아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몇 주 혹은 한 학기나 1년’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

다음의 세 가지 예시는 누적된 영아 평가를 기반으로 한 학기의 변화를 기록한 영아 평가, 한 영역에 대해 1년간의 변화를 기록한 영아 평가, 여러 영역에 대해 1년간의 변화를 기록한 영아 평가이다.

한 학기 변화를 기록한 영아 평가

#한 학기, #한 가지 내용(신체운동·건강·대소근육을 조절한다)

0~1세 시기에 대소근육 발달이 또래보다 다소 느린 점을 걱정했던 부모의 우려를 기억하여 교사가 해당 남아에 대해 '대소근육을 조절한다'(신체운동·건강 영역)에 초점을 두어, 한 학기에 걸쳐서 남아의 변화를 파악하고 놀이와 일상생활에서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한 예시이다.

목적

대소근육 조절 및 신체 협응과 관련한 영아의 변화를 파악하여 놀이 및 일상생활 지원에 반영

방법

축적된 관찰기록(놀이, 일상생활) 중 관련 내용만 추려 한 학기 대소근육 조절에서의 변화 흐름을 파악



[분무기로 놀이하기]

- 분무기로 물을 뿌리려고 시도하였으나 손가락 힘이 부족하고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조절하는 것도 어려웠음.
- 그러나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것에 열의를 보이면서 양손으로 분무기를 조작하거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함.
- 쉬었다가 물을 뿌리기를 반복하면서 손과 손가락의 힘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절하려고 노력함.

[포크로 음식 먹기]

- 손과 도구를 함께 사용하여 음식을 먹음.
- 포크를 사용할 때 주먹 전체로 말아 쥐어 잡으며, 작거나 딱딱한 과일을 정확히 찌는 데 어려움을 나타냄.

[옷 입고 벗기]

- 옷의 큰 단추를 끼우는 것은 하지 못하나 옷을 벗어야 할 때는 손가락 힘을 이용하여 단추를 빼려 하고, 가끔 성공하면 매우 즐거워함.





[빨래집게로 물체 매달기]

- 놀이 자료로 내어 준, 크기와 강도가 다양한 빨래집게에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옷, 토끼 인형의 귀 등 여러 곳에 꽃아 보려고 시도함.
- 교사가 반의 한 쪽에 줄을 매달고 빨래집게를 아래에 놓아 주자 이곳저곳에서 무게, 두께, 재질이 다양한 물체를 집어서 빨래집게로 줄에 매달아 보며, 떨어지고 매달리는 물체를 반복적으로 실험하는 모습이 나타남.

[가위질 시도하기]

- 한 달 반 전보다 손가락 힘이 많이 늘어난 것이 느껴지고, 능숙해진 소근육 조절과 증가한 손가락 힘을 이용해 얇은 종이 자르는 것에 성공하고 뿌듯해함.
- 손잡이 구멍에 손가락을 잘 나누어 끼고 양날이 움직이도록 바르게 조작하는 모습에서 소근육 발달과 협응이 부쩍 증가했음을 느낄 수 있었음.



[케이크 자르는 놀이 하기]

- 자석 블록으로 여러 개를 이어 붙여 케이크를 만들고 생일 축하 놀이를 함.
-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초를 붙여 끈 후, 역할놀이용 칼을 자석 블록 틈 사이에 끼우고 내리 눌렀음.
- 도구를 든 손을 잘 조절하여 목표한 지점에 대고, 기울기를 잘 조절하여 힘 있게 누르는 모습에서 눈과 손을 협응해 소근육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모습이 나타남.



1학기 종합 평가

손가락 힘과 조절 능력이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도구 사용 능력도 향상됨

- 다양한 놀이와 일상생활을 하면서 소근육이 꾸준히 발달함.
- 초반에는 분무기를 양손으로 사용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포크도 어색하게 사용하고 큰 단추만 뺄 수 있었으나 빨래집게를 활용한 놀이를 반복하면서 손가락 힘이 세졌고, 가위질할 때도 더욱 정교하게 조작할 수 있게 됨.
- 학기 중반을 지나면서 가위 손잡이 구멍에 손가락을 적절히 넣어 양날을 움직이는 것과 케이크 자르는 놀이에서 드러났듯이 협응 능력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음.



활용

정교한 도구 사용과 손놀림이 요구되는 놀이와 일상생활 활동에 참여할 기회 제공

- 빨래집게를 계속 선호하면 소근육과 협응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크기와 강도가 다양한 집게 제공(부드러운 집게, 더 단단한 집게)
- 정교한 소근육 움직임이 요구되는 놀이 자료 제공(작은 구슬이나 콩을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기, 종이 위에 작은 스티커 붙이기, 줄과 큰 구슬)
- 가위질을 할 때 힘을 조절해 볼 수 있게 특성이 다양한 종이 제공(두꺼운 종이, 부드러운 종이)
- 2학기부터 더 다양한 식사도구를 사용할 기회 제공
- 협응을 자연스럽게 시도해 보도록 조작적 운동을 포함한 놀이 자료(작은 공을 특정한 곳에 넣기, 조작이 필요한 블록 놀이 등)와 미술 자료(붓 사용하기, 색연필로 그림 그리기) 제공

1년간의 변화를 기록한 영아 평가

#1년, #한 가지 내용 범주(사회관계-더불어 생활하기)

사회관계 영역 ‘더불어 생활하기’의 하위 4가지 내용 범주에 대해 학기 초와 말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가정 및 승급 연령 교사와 협력하는 데 활용한 예시이다.

- 목적** 개인 영아에 대한 장기 평가를 토대로 영아의 변화 및 특성 이해
- 방법** 관찰일지, 놀이 및 일상생활 기록, 영아의 말이나 행동을 기록한 녹음, 메모, 사진, 동영상, 구성물 등

사회관계-더불어 생활하기



1학기 초

- 등원 시 엄마와 분리되는 데 어려움을 나타냄. 가족 사진을 보거나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함.



2학기 말

- 놀이와 일상에서 가족과 경험, 엄마 이외의 다양한 가족 구성원도 언급함.
- 함께 놀이하는 또래의 범위가 확장되고, 놀이 주제나 사용하는 자료에 따라 다양한 또래와 자연스럽게 놀이함. 또래의 말과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놀이가 진행되도록 조율하는 능력도 점차 향상되고 있음.



- 또래와의 놀이는 교사를 매개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음. 교사에게 음식을 차려 주다가 교사가 또래와 나눠 먹자고 권유하면 잠깐 나눠 먹기도 함. 선호하는 또래가 생겨 다가가서 안거나 웃는 등 반가움을 표현함.



- 울음이나 웃음 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뿐만 아니라 속상함같이 덜 두드러지는 감정과 행동에도 조금씩 관심을 보임(“○○이 집이 무너져서 속상해”). 감정과 행동뿐만 아니라 원인에 대해서도 가끔 언급함(“○○가 넘어져서 울어.” “○○가 엄마가 보고 싶대”). 그러나 직접 또래를 도와주거나 반응하는 것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음(엄마와 헤어져서 우는 또래에게 직접 다가가 달래 주기보다 교사에게 말함).
- 반 전체 약속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었고 자신의 상황에 따른 편차도 줄어 가고 있음.

- 또래나 교사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엄마와 헤어져 슬픈 또래)을 보이나 자신과 관련된 사항일 때 더 뚜렷하게 관심을 표현함. 옆에서 또는 함께 놀이하는 또래와 함께 즐거워하기도 함.
- 반 전체의 약속이 있음을 이해하나 더 놀고 싶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지키기 어려워함. 인사하기, 순서대로 사용하기와 같이 개별적으로 이행하는 약속은 덜 인식하고 있음(좋아하는 놀잇감이 보이면 교사나 옆의 또래에게 인사하지 않고 관심 있는 곳으로 감). 지키려는 노력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가족에 관심을 표현하던 상황이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과의 일상적 상황으로 확장되고 있음.
- 함께 놀이하는 또래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래와 하는 놀이가 다양해지고,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놀이를 유지하고 즐기는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음.
-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보이는 범위도 확장되고 원인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직접 적절히 반응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보임.
- 학급 구성원이 매일 동시에 지켜야 하는 약속을 이해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지켜야 하는 약속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함. 자신의 기분에 따라 약속을 이해하는 정도의 편차가 다소 큰 편이었으나 점차 완화된.



활용

[가정과 협력]

-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나 다양한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보이면 격려하고, 성인이 적절히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할 기회를 주거나 도움을 받아 직접 반응하도록 기회 주기
- 가정에서 영아가 매일 쉽게 할 수 있는 약속(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하기, 먹을 때 사용한 숟가락과 포크는 싱크대에 넣기)을 함께 정하고 지켜 볼 수 있는 기회 주기

[승급 연령 교사와 협력]

- 반에서 공유되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 개인의 기분이나 하던 놀이에 따라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점차 반 전체 약속의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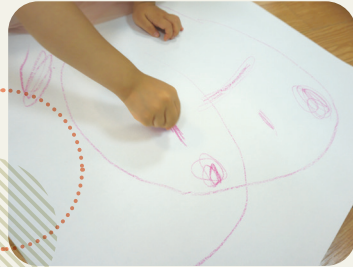
1년간의 변화를 기록한 영아 평가

#1년, #5개 영역 통합적

영아가 선호하는 색과 활동, 끼적임과 결과물에 대한 표현, 자기 신체 인식, 가족과 또래에 대한 관심 표현 등과 관련한 변화를 1학기 초반과 2학기 후반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본 예시이다.

1학기 초반

2학기 후반



- 좋아하는 쓰기 도구로 수시로 끼적이기를 즐김(의사소통-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
- 크레용을 높이 잡기 때문에 손의 힘을 조절하는 것을 어려워함(신체운동-건강-대소근육을 조절한다).
- 점을 찍거나 동그라미 형태로 끼적인 후 “아빠야.”라고 명명하거나, 가까이 있는 놀잇감을 활용해 명명함(토끼 인형이 눈에 띄자 “이건 토끼야.”)(의사소통-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자연탐구-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 선호하는 두 가지 색 크레용(빨강과 분홍)을 주로 사용하여 끼적임(사회관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본다. 예술경험-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한다).
- 빨간색 크레파스로 그린 동그라미가 겹쳐지자 “불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함(신체운동-건강-대소근육을 조절한다, 의사소통-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 분홍색과 끼적이기를 여전히 선호하나 다른 색 그리기 도구도 점차 사용함(사회관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본다, 나의 고유함을 알아간다).
- 크레용을 잡을 때 힘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선이 얇아지는 등 발전된 모습을 보임(신체운동-건강-대소근육을 조절한다).
- 얇은 색연필로 얼굴의 눈과 입, 몸, 팔, 다리 등을 구분해서 그리거나 엄마 뱃속의 아기나 아빠의 수염까지 그리는 등 구체적인 표현을 하게 됨(사회관계-가족에게 관심을 가진다, 예술경험-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한다, 자연탐구-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 또래와 교사에게 무엇을 그리거나 썼는지 물어 보거나 자기가 해 주겠다며 관심을 표현함(의사소통-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사회관계-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 1월생이고 앉아서 소근육을 사용하는 놀이를 즐겨서인지 손의 협응력이나 소근육 발달이 빠른 편이고 표현력이 좋음.
- 미술 도구나 자료 선택에서 선호를 보이거나 선택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학년 초에는 명명 위주로 표현하였으나 2학기에는 의도적 끼적이기를 할 만큼 발전하였고 표현도 섬세하게 함.
- 또래와 교사가 그리거나 쓴 것에 관심이 증가함.



[가정과 협력]

- 자녀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게 충분한 공간과 자료(스케치북같이 작은 종이가 아닌 큰 전지, 잘 부러지지 않는 그리기 도구 등)를 마련해 주기
- 그린 것에 관해 부모와 함께 이야기하며 생각을 공유하는 상호작용 하기

[승급 연령 교사와 협력]

- 표현한 형태 및 그림, 상징에 대해 읽기 경험 지원하기
- 또래의 그림이나 행동에 관심을 보이므로 또래가 원하면 도울 수 있게 하는 등 쓰기의 토대를 다지거나 또래 관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2. 보육과정 운영 평가



보육과정 운영 평가는 영아 평가와 함께 영아중심 보육과정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아 평가로 보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고, 보육과정 운영이 개선된 결과를 영아 평가로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등원 시 놀이를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영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즐겁게 등원할 수 있게 교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육과정 운영을 개선한 결과로 등원할 때 겪는 어려움이 해소된 것을 영아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육과정 운영 평가를 하는 시기(하루, 한 주, 격주, 한 달, 한 학기, 1년 등)와 방법(별도 서식에 기록 남기기, 일지에 기록하기, 동료장학이나 연구수업, 참관수업, 부모 만족도 조사 등), 주체(개인 교사, 공동 담임 교사, 동일 연령 교사, 기관 교사 전체 등), 평가 기준(자율 기준, 고시문 내용 참고, 실행자료 3장 내용 참고 등)은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

다음 세 가지 평가 예시는 각각 담임 교사가 일지를 활용해 하루 동안의 보육과정 운영 평가를 한 예, 계획안과 일지 등 각종 누적된 자료를 종합하여 낮잠에 대해 1년간의 운영 평가를 한 예,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고 실행자료 3장 내용을 참고하여 1년간의 보육과정 운영 평가를 한 예이다.

일일 보육과정 운영 평가의 예

#하루 #개인 교사 #별도 서식 #고시문 내용 기준

보육과정 운영 평가는 당일의 보육과정 운영 평가를 기초로 내일의 운영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중요하다. 보육과정 운영 평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할 수 있는데, 고시문의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서술, 즉 충분한 놀이 시간, 흥미와 관심에 따른 영아 놀이, 놀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 영아의 요구를 존중하는 일상생활, 영아-교사-환경 간의 능동적인 상호작용, 영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배움 지원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아래 예시는 위 항목 중 일부를 평가한 예시이다.

목적 모든 영아가 만들어 가는 일일 보육과정 평가를 통해 다음 날 지원 방안 모색

방법 일일 계획 및 일지 기록 <참조 자료 중 ‘일일계획안(일지)’ 참고>

바깥 놀이를 포함한 충분한 놀이 시간 운영: 하루 일과의 대부분이 놀이 시간



시간표

07:30~08:30 | 오전 통합보육(△△반) / 실내 놀이
 08:30~09:30 | 등원 및 오전 간식(간식 시간 영아 선택) / 실내 놀이
 09:30~11:40 | 오전 간식 계속(간식 시간 영아 선택) 및 실내 놀이와 바깥 놀이
 (끼적이기, 아기 돌보기 놀이, 봄 동산 산책)
 ※ 미세먼지 좋음: 앞마당, 나뭇: 강당
 11:40~12:40 | 점심 식사 및 양치
 12:40~15:00 | 조용한 놀이, 낮잠 및 휴식, 정리
 15:00~15:30 | 오후 간식
 15:30~17:00 | 실내 놀이와 바깥 놀이 중 자율 귀가
 17:00~ | 오후 통합보육(□□반)

영아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동생이 태어나 등원을 어려워하는 영아에 대한 지원



등원

- 최근 동생이 태어나 등원을 힘들어하는 영아(서진)가 길게 떼쓰며 등원 시간이 길어지자 이어서 등원하던 다른 영아들도 영향을 받음. 등원이 길어질 수록 분리를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임.
- ✓ 등원을 도와주는 조부모님과 서진이가 간결하고 정확하게 인사를 나누고 빨리 교실로 들어오도록 지원해야 함.

영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른 놀이: 로션 놀이의 발현



놀이

[로션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 우연히 시작된 로션 놀이]

- 손을 씻은 후 일부 영아가 로션을 바르다가 거울에 문지르며 놀기 시작함.
- 새로운 감각과 느낌을 탐색하며 즐거워하자 다른 영아도 관심을 보임.
- 많은 영아가 참여하면서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함.



놀이를 배울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로션 놀이 공간과 자료 지원



놀이

[로션 놀이 공간과 자료 지원]

- 충분한 놀이 공간을 확보하도록 공간 재구성(벽 쪽의 장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함)
- 바닥 외 벽면에 비닐을 부착하여 로션 탐색에 참여하는 영아가 분산되도록 함.
- 미끌어져 넘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충격이 완화되도록 뽕뽕이나 매트를 깔아 줌.



개별 요구에 따른 휴식과 일상생활: 급식과 낮잠 및 휴식의 개별 요구 존중



일상 생활

급식

- 가지나물을 평소 선호하지 않던 영아(일아, 우윤)도 잘게 썰어 주자 잘 먹었음. 앞으로도 즐거운 마음으로 고른 반찬을 맛보도록 지원 필요함.

낮잠 및 휴식

- 표식이 매트 뒷면에 있는 영아(주현, 아윤, 하성, 우윤)는 찾기 어려웠음. 앞에도 표식을 달아 주실 수 있는지 매트를 보낼 때 가정에 요청해 보아야 하겠음.
- 자신의 표식이 있는 매트에 누워서 토래와 자신의 표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즐거워함.

영아-교사-환경 간의 능동적인 상호작용: 유아차로 블록 나르기



놀이

[유아차로 블록 나르기]

- 공간 재구성 후 영아 간 갈등이 감소하였고, 다른 공간에서도 택배 놀이를 이어 감.
- 택배 나르는 놀이를 하다가 나르는 물건에 맞는 크기의 사물을 영아들이 함께 찾기 원함(예: 양말은 작은 사물/ 자전거는 큰 사물).
- 블록뿐만 아니라 동물 인형을 조심스럽게 옮겨 주는 놀이도 나타났으나 조심스럽게 나르는 방법을 두고 영아 간 이견이 나타남(예: 안고 나르기 vs. 수레에 넣어 나르기).
- 택배 일을 하는 사람을 표시하는 모자나 옷 등의 소품을 교사에게 요청함.
 - ✓ 교사는 영아와 함께 택배에 필요한 소품을 찾거나 만들어 볼 예정/ 동물을 어떻게 조심스럽게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 책을 찾거나 이야기할 예정

영아의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지원: 높은 곳에 오르기를 선호하는 영아



놀이

[삼각 거울 오르기]

- 높은 곳에 오르기를 선호하며 삼각 거울을 반복해서 오르려는 영아(윤재)가 있음.
- ✓ 높이 세울 수 있고 폭신한 재질이라 안전한 영아용 경사 매트를 강당에서 제공함.



연간 보육과정 운영 평가의 예

#1년 #공동 담임 교사 #별도 서식 #일상(낮잠)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누적된 평가를 종합하여 한 학기 또는 1년의 보육과정 운영을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은 연간 보육과정 운영 평가 중 일상생활(낮잠)에 대한 평가의 예시이다.

목적 연간 낮잠 시간 운영을 평가하고 차년도 계획에 반영할 개선점 모색

방법 연간 기록된 계획안 및 보육일지, 관찰일지, 사진, 영상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월



신학기 새로운 반의 낮잠 적응 지원

개별 영아의 다양성과 개인차를 존중했는가?

- 좋아하는 놀잇감이나 애착물을 가지고 자도록 함.
- 잠들기까지 시간, 습관을 수용하여 도움을 조절함.
-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함.

5월



낮잠 일과에 주도적인 참여 지원

편안하게 휴식하고 잠들도록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지원했는가?

- 자고 싶은 자리에서 자게 함.
- 원하는 영아는 스스로 잠자리를 준비하고 정리하도록 함.
- 영아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여 놀이처럼 잠들 수 있게 지원함.

9월



11~12월

자연스러운 배움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기회 제공

일상의 순간에서 자연스러운 배움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는가?

- 낮잠을 힘들어할 경우 다양한 지원 방법을 시도함(천장 빔).
- 장기적으로 영아가 편안한 수면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함.



낮잠 일과가 어려운 신입 원아 존중

학기 중에도 개별성을 존중하고 충분히 기다려 주었는가?

- 2학기 신입 원아가 낮잠 일과에 적응하도록 개별적으로 배려함(낮잠 관련 놀이 자료 제공).

연간 보육과정 운영 평가의 예

#1년 #공동 담임 교사 #별도 서식 #실행자료 3장 내용 기준

여러 차례 실시한 보육과정 운영 평가가 축적되면 한 학기 또는 1년의 보육과정 운영을 평가할 때 기초 또는 비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은 그동안 실시한 보육과정 운영 평가나 수집한 다양한 자료에 반영된 교사 역할에 대한 반성적 분석과 사고를 바탕으로 학년 말에 보육과정 운영 평가를 실시한 예시이다. 보육과정 운영 평가도 다양한 측면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아래 예시는 3장에 제시된 영아중심 보육과정 실행의 핵심 내용에 비추어 반성적 평가를 한 것이다. 상호작용, 공간과 자료 등 3장에 언급된 모든 내용을 평가할 수도 있지만 교사가 영아중심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 또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교사로서 개선하길 희망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 선택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목적

보육과정 운영 장기 평가를 토대로 보육과정 계획 수립과 운영 개선 방안 모색

방법

관찰일지, 놀이기록과 보육일지에 반영된 교사의 역할, 연간·월간·주간 계획 및 평가에 반영된 교사 역할에 대한 반성적 평가

교사의 반성적 평가



보육과정 실행자로서 영아 교사의 전문성

- 따뜻하고 반응적으로 상호작용, 영아의 특성을 존중한 일과 운영, 관찰 자료에 근거한 교육적 지원은 지난해보다 발전함.
-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더 다양한 연수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함.



영아와 교사가 함께하는 일과 운영

일과

- 날씨, 영아의 요구 등에 따라 일관성을 기반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함.
- 더 효율적인 전이를 위해 공동 담임 교사와 협의 해야 함.
- 등·하원 시간에 영아가 최대한 많이 놀 수 있게 운영한 것이 바람직했음.

놀이

- 우연한 기회로 시작되어 발전하는 놀이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원하려고 특별히 노력하여 영아의 흥미와 관심을 존중할 수 있었음.
- 교사가 준비한 자료에 영아의 관심을 유도하지 않고, 영아가 원할 때 놀이하도록 하여 교사 주도가 아닌 영아 주도의 놀이가 되어 바람직했다고 사료됨.

일상생활

- 개인차를 존중하고 스스로 할 기회를 주고 발달을 고려하여 지원하려고 노력했음.
- 개인차가 크고 교사가 직접 도와줘야 하는 경우도 많아서 각 영아에 맞게 지도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상호작용

- 각 유형의 상호작용을 실제 영아와 상호작용할 때 잘 적용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음. 동료 교사와 이 주제로 학습공동체를 운영해 보는 것이 좋겠음.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공간과 자료

- 영아의 미적 감수성을 길러 주는 공간을 구성하도록 다양한 참고 자료를 살펴볼 예정임.
- 영아에게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신속하게 판단하고 제공하는 것이 어려웠음. 일지에 자료 지원 대한 반성적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됨.



평가를 기반으로 한 계획

연간계획 <참조 자료 중 ‘가능성을 고려한 연간 계획안’ 참고>

- 시기와 놀이 주제를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현된 놀이에 더 가치를 둘 수 있었음.
- 내년에도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 놀이와 일상생활 예시’를 미리 고려해 볼 예정임.

월간 또는 주간 계획 <참조 자료 중 ‘축적된 평가가 될 월간 및 주간 계획안’ 참고>

- 교사가 준비한 자료를 기반으로 시작된 놀이와 발현된 놀이를 색을 달리하여 기록함으로써 영아 스스로 놀이를 시작하고 이어 가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 좋았음.
- 각 놀이에 주로 참여한 영아의 이름과 일상생활 지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영아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관찰기록을 축적하여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 바람직했음.

보육과정 만들어 가기: 계획과 평가



[참조 자료]

<가능성을 고려한 연간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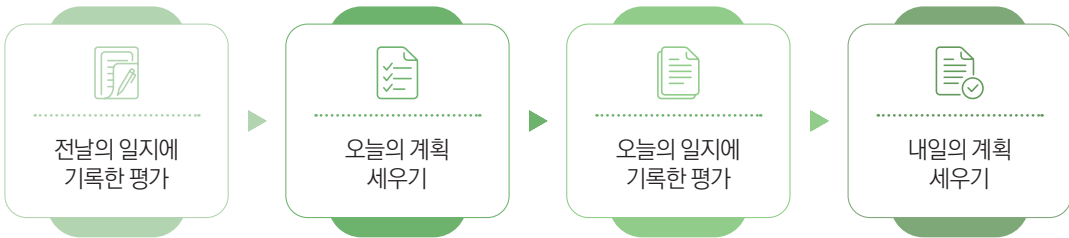
월	가능한 행사의 예시	가능한 놀이 및 일상생활 예시
3	입학, 집단면담, 부모회	우리 반 적응
4	봄 산책 어린이날 행사	• 영아가 흥미와 관심을 보일 때 이를 지원하는 놀이(예 탈것, 동식물, 물, 열매 등) • 계절과 관련된 놀이(예 산책이나 영아가 계절에 따른 변화에 관심과 흥미를 보일 때) • 월령에 적절한 놀이
5		
6	가족 참관 또는 참여	- 실내외에서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 놀이 하기
7	물놀이/여름 산책	- 실외에서 동물(예 곤충, 새)과 식물 관찰하기
8		- 블록으로 놀이하기(예 나르기, 높이 쌓기, 옆으로 쌓기, 간단한 구성물 만들기 등)
9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산책	- 역할놀이 하기(예 아기 돌보기, 병원놀이, 가게 놀이 등 영아의 생활과 경험이 반영된 놀이)
10		-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예 책 읽기, 또래나 교사와 말하고 듣기)
11	가을 산책	- 다양한 자료와 재료로 놀기(예 식재료, 물, 모래, 자연물, 인공물로 놀이하기) - 다양한 재료와 도구로 하는 끼적이기, 그리기, 만들기 등
12	겨울 산책	•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기본 생활 지도와 적응(예 가정의 변화에 따른 적응, 휴가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나 장기간 결석 후 재적응 등) • 배변 훈련(예 영아의 월령과 준비에 따라 다양한 시기에 이뤄지는 배변 훈련)
1	진급 준비	
2	수료	진급 준비

<4월 4주 주간 계획안>

	20(월)	21(화)	22(수)	23(목)	24(금)
놀이	<p>‘○○반 하루 일과’ 책 보기</p> <p>‘○○반 하루 일과’에서 나와 친구 이름 말하기</p> <p>↳ 교사가 기관의 일과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해 준 책에서 친구 이름 말하기를 반복해서 즐김(소연, 일아, 윤재).</p>	<p>아기 돌보기</p> <p>유아차로 블록 나르기</p>	<p>택배 놀이 하기</p> <p>↳ 유아차에 블록을 넣어 나르는 놀이에서 택배 놀이 시작됨. 짧게나마 놀이 주제를 공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하성, 우윤, 서진).</p>	<p>곤충/벌레 책 보기</p> <p>↳ 곤충/벌레에 대한 관심 높아 나감(윤재, 하은).</p>	
		<p>끼적이기</p>	<p>넓은 전지 위에서 움직이며 끼적이기</p> <p>↳ 활발하게 신체를 움직이며 끼적이기를 즐김. 감각 운동의 즐거움을 느끼며 다양한 선을 탐색하는 모습이 보임(소연, 하은, 일아, 우윤).</p>		
			<p>봄꽃 찾기</p> <p>곤충/벌레 관찰하기</p> <p>↳ 산책을 나가 곤충을 유심히 탐구하는 모습을 보임(윤재, 하은, 일아, 하성, 서진).</p>		
기타	<p>‘통통통’ 울동하며 두 발 모아 뛰기</p>		<p>경사가 낮은 신체 매트 오르기</p> <p>↳ 딱딱한 삼각 거울 대신 도전적이면서도 폭신한 신체 매트 제시함. 활발하게 놀이하며 신체 조절을 시도함(윤재, 소연, 하은, 서진).</p>		
			<p>봄 산책</p>		
	<p>일상 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씻기-물비누 한 번만 짜기] 기관에 오면 손을 먼저 씻고 놀이를 시작한다는 패턴을 대부분의 영아가 인지하게 되었음. 물비누 짜기를 선호하여 반복해서 펴핑하는 영아(시윤, 은석)가 있어 지도 필요함. 한 번만 짜고 손을 깨끗이 닦도록 지속적인 지도 필요함. 추가로 교실에 펴핑 용기 놓으심을 꺼내 주는 것도 좋겠음. • [모든 반찬 맛보기] 채소보다 고기반찬을 선호하는 영아(일아, 하은), 반찬보다 밥만 선호하는 영아(지우), 익숙한 식재료 외의 음식 맛보기를 꺼리는 영아(하성)가 있음. 교사 의 지원을 받아 모든 반찬을 하나씩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교사의 안내에 따라 즐겁게 이동하기] 강당이나 유학실로 이동하거나 산책하러 전이를 할 때마다 매우 느리게 행동하는 영아가 있음(우윤). 모든 영아가 실내화/신발을 다 챙기고 복도에서 기다릴 때도 아직 교실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개별적 지원이 필요함. 		

* 파란 글씨: 자연스럽게 시작되어 추가되어 진행된 놀이

<일일 계획안(일지)>



일일 계획안(일지): 4월 21일 예시*

반 이름	○○반	연령	2세	날짜	4월 21일 화요일
시간표	시간	일과			
	07:30~08:30	오전 통합보육(△△반)/ 실내 놀이			
	08:30~09:30	등원 및 오전 간식(간식 시간 영아 선택) / 실내 놀이			
	09:30~11:40	오전 간식 계속(간식 시간 영아 선택) 및 실내 놀이와 바깥 놀이 (끼적이기, 아기 돌보기 놀이, 봄 동산 산책) (미세먼지 좋음: 앞마당, 나뭇: 강당)			
	11:40~12:40	점심 식사 및 양치			
	12:40~15:00	조용한 놀이, 낮잠 및 휴식, 정리			
	15:00~15:30	오후 간식			
	15:30~17:00	실내 놀이와 바깥 놀이 중 자율 귀가			
	17:00~	오후 통합보육			
일과	계획 및 일지	오늘의 계획			
등원	- 21일 화요일 일지를 기반으로 22일 수요일 계획 수립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21일 계획 작성 내용 기술은 생략함.				
놀이					
일상생활					
귀가					
일지(◆: 오늘의 기록 및 평가, ✓: 내일(4월 22일)을 위한 계획)					
등원	◆ 최근 동생이 태어나 등원을 힘들어하는 영아(서진)가 길게 떼쓰며 등원 시간이 길어지자 이어서 등원하던 영아들도 영향을 받음. 등원이 길어질수록 분리를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임. ✓ 등원을 도와주시는 조부모님과 서진이가 간결하고 정확하게 인사를 나누고 빨리 교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놀이	<p>[전지 위에 끼적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에 깔아 둔 전지 위에서 함께 끼적이기 시도함. ◆ 자유롭게 신체를 움직이며 끼적이기를 함(소연, 하은, 일아, 우윤). ◆ 신체 움직임이 활발해 갈등이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를 조금 더 넓게(2장 → 4장) 깔아 주어 갈등이 감소하는지 양상을 살펴봐야 하겠음. ✓ 함께 끼적이가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도 살펴볼 예정임.  <p>[유아차로 블록 나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에 아기 인형과 유아차, 우유병 등의 소품을 꺼내 줌. ◆ 한 영아가 아기 인형을 바닥에 내려놓고 종이 벽돌 블록을 꺼내어 유아차에 실은 뒤 나르기 시작함(하성). ◆ 점차 여러 명이 참여하는 태배 놀이로 발전함. ◆ 태배를 나르며 영아 간 갈등도 유발됨. (유아차 쟁탈전, 바닥에서 다른 놀이를 하던 영아와 충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영아와 반복적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구간의 동선을 점검하여 공간을 재구성함(예: 퍼즐장을 벽 쪽으로 이동). ✓ 강당이나 유희실 등의 넓은 공간에서도 태배 놀이를 하는지 관찰 필요함. ✓ 태배 놀이의 다른 요소(예: 받기) 등이 나타나면 지원할 예정임.  
일상생활	<p>[삼각 거울 오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곳에 오르기를 선호하여 삼각 거울을 반복해서 오르려는 영아가 있음(윤재). ✓ 강당에서 높이 세워 올라갈 수 있으면서 폭신한 재질이어서 안전한 영아용 경사 매트 제공함. 
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물건 정리하기: 바깥 놀이 후 빨리 놀고 싶은 마음에 겂옷과 신발을 대충 정리하고 들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적은 인원으로 나눠서 들어가서 겂옷과 신발을 정리하도록 격려할 예정임. ◆ 이불 정리: 낮잠 후 먼저 깨서 놀다가 정리하는 영아 중 나중에 정리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생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런 영아는 이불 정리를 먼저 하고 놀이하도록 격려할 예정임.

전날의 일지를 기반으로 작성한 일일 계획안(일지): 4월 22일 예시*

반 이름	○○반	연령	2세	날짜	4월 22일 수요일
시간표	시간	일과			
	07:30-08:30	오전 통합보육(△△반)			
	08:30-09:30	등원 및 오전 간식(간식 시간 영아 선택)			
	09:30-11:40	오전 간식 및(간식 시간 영아 선택) 실내외 자유 놀이 (끼적이기, 아기 돌보기 놀이, 봄 동산 산책) (미세먼지 좋음: 앞마당, 나뭇: 강당)			
	11:40-12:40	점심 식사 및 양치			
	12:40-15:00	조용한 놀이, 낮잠 및 휴식, 정리			
	15:00-15:30	오후 간식			
	15:30-17:00	실내외 자유 놀이 중 자율 귀가			
	17:00~	오후 통합보육(□□반)			
계획 일과	오늘의 계획				
등원	• 동생이 태어난 뒤로 등원을 힘들어하는 영아(서진)가 신체활동을 특히 좋아하므로 마음껏 신체를 움직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지원				
놀이	[더 넓은 종이에서 끼적이기] • 갈등이 감소하도록 전지를 더 넓게(4장) 제공 • 더 넓어진 공간에서 대소근육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또래와 함께 끼적일 수 있는 환경 조성				
	[유아차로 블록 나르기] • 택배 놀이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영아 간 갈등이 감소하도록 공간을 재구성(퍼즐장을 벽 쪽으로 이동) • 강당이나 유희실에서도 택배 놀이가 나타나는지 보고 지원 • 택배를 나르는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면 지원 • 택배 놀이의 다른 요소(예: 받기/주문하기)가 나타나면 지원				
	[낮은 매트 오르기] • 영아의 대근육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도전적인 놀이 환경 제공 • 영아용 경사 매트 오르기를 할 수 있도록 환경 구성 • 영아가 스스로 매트의 기울기나 높이를 조절하도록 격려				
	[산책 가기] • 영아가 산책 후 벚꽃이나 나뭇잎을 수집해서 놀이한다면 영아의 관심이나 요청에 따라 지원				
	[오늘 영아들이 새로 시작하는 놀이를 관찰한 후 적절히 지원]				

일상 생활	간식	• 오전 간식: 누룽지죽, 백김치/ 오후 간식: 감자버터구이, 우유
	급식	• 보리밥, 새우젓두부국, 닭다리살간장조림, 가지나물, 김치 • 가지나물은 식감을 낮설어하는 영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 필요해 보임.
	낮잠 및 휴식	• 개별 침구 보관장에서 자신의 침구 스스로 찾아오기 시도 중 • 매트에 있는 개인 표식이 큰 경우 스스로 쉽게 매트를 찾아 침구를 매트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음.
	손 씻기	• 기관에 오면 손을 먼저 씻고 놀이를 시작한다는 패턴을 대부분의 영아가 인지하고 있는데 잘 실행되는지 살펴볼 예정
	전이	• 강당이나 유희실로 이동하려고 전이를 할 때마다 매우 느리게 행동하는 영아 있음(우윤). 영아가 실내화를 다 신고 복도에서 기다릴 때에도 교실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할 예정
	옷 입고 벗기	• 교사의 도움을 받아 양말에 발 끼어 보기 시도 중. 지속적으로 연습해 볼 예정
일과	일지	일지 (◆: 오늘의 기록 및 평가, ✓: 내일(4월 23일)을 위한 계획)
등원		<p>◆ 서진이가 다른 날보다 편안하게 등원함.</p> <p>✓ 놀이하다가 심심해지면 다시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므로 더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를 상시 제공할 예정</p>
놀이		<p>[더 넓은 종이에서 끼적이기]</p> <p>◆ 더 큰 종이에서 끼적하기를 하면서 갈등도 감소하고, 점점 더 큰 큰육을 사용하여 활발히 움직였음.</p> <p>◆ 종이가 크니 토래와 함께 끼적이면서 자신이 '그린 것'에 대한 언어적·감정적 교류를 더 활발히 함.</p> <p>◆ 다양한 그리기 도구를 스스로 찾아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나 너무 얇은 도구를 사용하다 부러뜨리기도 함.</p> <p>✓ 굵기가 다양한 그리기 도구를 제공하고 영아가 그린 것에 대해서로 이야기 나눌 때 교사가 상호작용이 촉진되도록 지원할 예정</p> <div data-bbox="1035 942 1262 1110" data-label="Image"> </div> <p>[유아차로 블록 나르기]</p> <p>◆ 공간 재구성 후 영아 간 갈등이 감소하였고, 다른 공간에서도 택배 놀이를 이어 감.</p> <p>◆ 택배 나르는 놀이를 하다가 나르는 물건에 맞는 크기의 사물을 찾기 원함(예: 양말은 작은 사물/자전거는 큰 사물).</p> <p>◆ 블록뿐만 아니라 동물 인형을 조심스럽게 옮겨 주는 놀이도 나타났으나 조심스럽게 나르는 방법에 대한 이견이 나타남(예: 안고 나르기 vs. 수레에 넣어 나르기).</p> <p>◆ 택배하는 사람을 표시하는 모자나 옷을 찾기 시작함.</p> <p>✓ 영아와 함께 택배에 필요한 소품을 찾거나 만들어 볼 예정/ 동물을 어떻게 조심스럽게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 책을 찾거나 이야기할 예정</p>

놀이	<p>[경사가 낮은 신체 매트 오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 매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하여 도전적인 놀이를 시도했음. ◆ 매트를 기어 올라간 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영아가 생기기 시작함. ✓ 영아끼리 협력하여 더 다양하고 도전적인 방식으로 조합해 보도록 격려할 예정/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 		
	<p>[산책 후 수집한 자연물로 놀이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의 변화를 느끼며 즐겁게 산책함. ◆ 떨어진 꽃잎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나 잎도 수집해서 옴. ◆ 친구에게 보여 주며 자랑하고 비교함. ✓ 영아의 의견에 따라 말리거나 역할놀이 영역에서 사용할 예정/ 영아가 수집해 온 꽃과 관련 있는 동요를 틀어 줄 예정 		
	<p>[사진 찍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책 시 원하는 영아에게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게 하였더니 자신이 찍은 사진을 함께 보거나 사진 속 모습 따라 하기 놀이를 시작함. ✓ 사진 찍고 찍힌 모습을 보고 따라 하는 놀이가 어떻게 발전할지 관찰하고 지원할 예정 		
일상 생활	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지나물을 평소 선호하지 않던 영아(일아, 우윤)도 잘게 썰어 주자 잘 먹음. 앞으로도 즐거운 마음으로 고른 반찬을 맛볼 수 있도록 지원 필요 	
	낮잠 및 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식이 매트 뒷면에 있는 영아(주현, 아윤, 하성, 우윤)는 찾기 어려웠함. 앞에도 표식을 달아 주실 수 있는지 매트를 보낼 때 가정에 요청해 보아야 하겠음. • 자신의 표식이 있는 매트에 누워서 토래와 자신의 표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즐거워함. 	
	손 씻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비누 짜기를 선호하여 반복해서 펴핑하는 영아(시윤, 은석)가 있어 지도 필요함. 한 번만 짜고 손을 깨끗이 닦도록 지속적인 지도 필요함. 추가로 교실에 펴핑 용기 놀잇감을 꺼내 주는 것도 좋겠음. 	
	전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이가 시작되기 10분 전/5분 전 미리 개인적으로 알려 이동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도록 지원하기(“우리는 곧 유희실에 갈 거야! 가서 어떤 놀이를 할까? 선생님은 공놀이를 하고 싶어.”) • 다른 교사와 먼저 실내화 신으러 가기, 교사의 손을 잡고 이동하기 등 다양한 전략을 발휘해 보아야겠음. 	
	옷 입고 벗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말에 발을 끼어 본 뒤 스스로 올려서 양말 신기가 더 능숙해지도록 차근차근 지도할 예정 	 



* 위의 계획안과 일지는 다양한 서식 중 하나의 예이며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서식 사용 가능

*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소화된 방식으로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루 또는 일주일 분량을 함께 기록하는 것 가능

* 간략하게 기록하려고 일지를 함께 작성하였으나 분리 작성도 가능



보육과정(2세) 5개 영역 42개 내용 한눈에 보기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신체활동 즐기기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	듣기와 말하기	표정, 몸짓,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기본 운동을 즐긴다.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해 본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
	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한다.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나를 알고 존중 하기	나의 고유함을 알아간다.	아름 다움 찾아 보기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탐구 과정 즐기기	주변 환경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나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한다.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본다.				
더불어 생활 하기	가족에게 관심을 가진다.	창의적 으로 표현 하기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한다.	생활 속에서 탐구 하기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한다.		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한다.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안다.		상상놀이를 한다.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생활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2세 실행자료



연구 책임자 김 희 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 선 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공동 연구자 김 영 신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김 지 현 국회제2어린이집 원장
동 풀 잎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박 보 영 숙명여자대학교 초빙교수
안 소 영 인덕대학교 교수
우 현 경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본부장
이 원 선 한국보육진흥원 본부장
정 다 운 시립풍무푸르지오어린이집 원장
차 기 주 가천대학교 교수
한 영 미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연구 보조원 김 미 선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서 기 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주임
송 정 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전 자 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생
함 재 영 숙명여자대학교 석박통합과정생

(이상, 가나다순)

사례제공기관 국회제2어린이집, 꽃가람발도로프어린이집, 반포퍼스티지하늘어린이집, 백송어린이집, 백현하나어린이집, 부산검찰어린이집, 삼성창원병원직장어린이집, 서초구립 서초 3동어린이집, 서초2삼성어린이집, 시립풍무푸르지오어린이집, 이화·오뚜기어린이집, 진해사랑별어린이집, 창원법원어린이집, BNK창원어린이집, LG사랑어린이집

(이상, 가나다순)

총괄기획 김 은 영 선임연구위원, 강 은 진 선임연구위원, 배 윤 진 연구위원, 김 지 현 연구위원, 김 지 원 부연구위원, 김 혜 진 전문연구원, 최 윤 경 전문연구원, 김 희 수 전문연구원, 이 정 은 연구원 (이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협력관 문 복 진 교육연구관, 이 해 나 교육연구사, 이 혜 리 주무관 (이상, 교육부)

발행일	2025년 2월 28일
발행처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www.moe.go.kr
디자인	(주)유월애디자인(전화 02-859-2278)
인쇄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전화 02-2279-6760)

이 책을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발간등록번호 11-1342000-100054-01
ISBN 979-11-6865-111-1 34370



2세 실행자료

